

문화도시 수원

2022 인문 도시 주간

결과자료집

모든 것은
노래한다

EVERYTHING SINGS



EVERYTHING SINGS
모든 것은 노래한다

문화도시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결과자료집

10. 15(토) ~ 10. 23(일)
북한문화공간 111CM
행궁동
수원 시내 곳곳

제1장. 인문도시주간 개요 005

제2장. 인문클럽 016

제3장. 오색프로젝트 021

제4장. N개의 실행그룹

[프로그램] 포럼, 컨퍼런스

- 1. 인문도시포럼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 028
- 2. 기후포럼 <기후와 마음> 032
- 3. 월간문화포럼 ; 문화도시, 너마저! 036

[프로그램] 시민, 민주주의

- 4. 시민+광장 ; a.k.a 민주주의 038
- 5. 안녕 행궁동 ; 건자 행궁동 045

[프로그램] 책, 시, 인문학

- 6. 9일간의 책 여행 ; 자그마한 초대, 조금 더 듣고 싶은 이야기 050
- 7. 문화도시의 밤 ; 수원시민 창작시집 출간기념회 054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 8. 영화로운 시네마 ; 잃어버린 마음을 깨우다 057
- 9. with YOU, with ME ; 어서 모여라! 작은 지구마을로! 061

[프로그램] 세대, 예술

- 10. 책 놀이터 ; 책이라는 숲_책을 보고, 책으로 놀고, 책과 함께 쉬며 064
- 11. 청춘예찬 ; 희곡_그녀들의 방 068
- 12. 청춘예찬 ; 음악-나도 네가 Sigur rós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072
- 13. 인문도시주간 아카이브 전시 074

제5장. 월간문화포럼 078

제6장. 문화도시 연계사업 082

제7장. 홍보물 제작 121

제8장. 홍보 및 행정지원 135

제9장. 공간 조성 144

부록 152

01

제1장

2022 인문도시주간 개요

2022 인문도시주간 개요

2022 인문도시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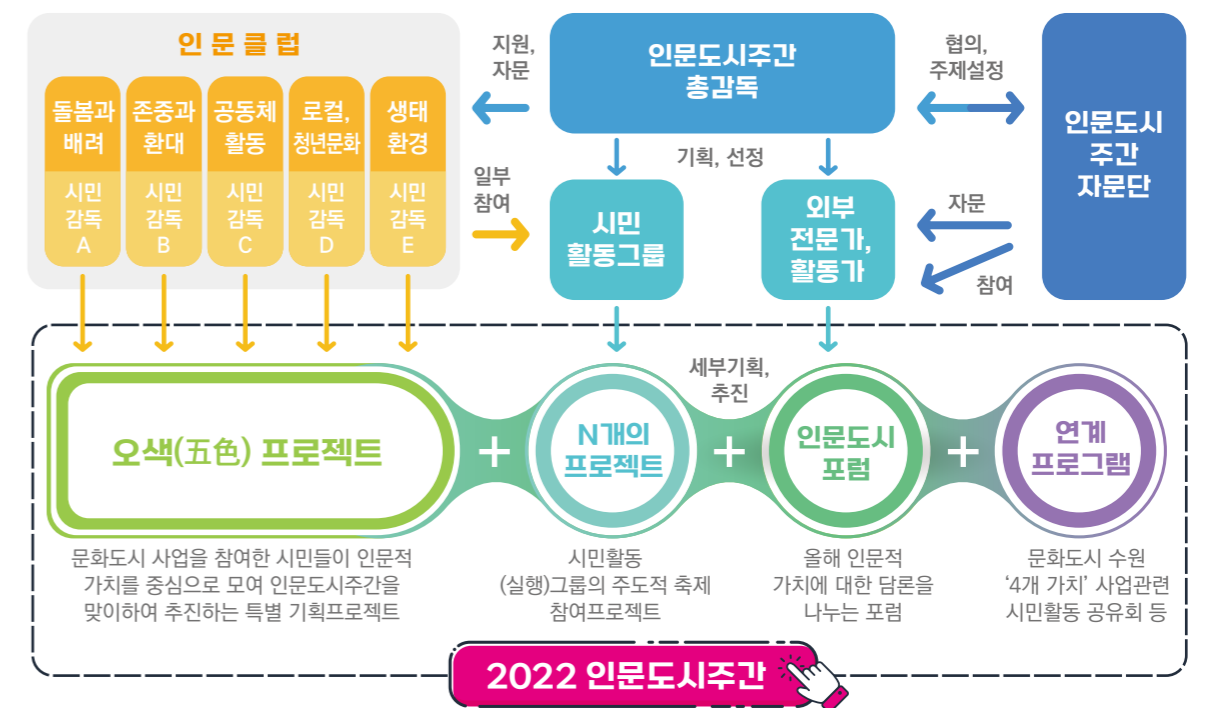
슬로건 : 모든 것은 노래한다

EVERYTHING SINGS

일 정 : 2022.10.15.(토) ~ 10.23.(일)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행궁동, 수원 시내 곳곳

인문도시주간 구조도



※ 데니스 우드가 제작한 이야기하는 지도들에 관한 책이다. 각각의 지도는 보이지 않는 것,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에 눈을 맞춘다.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 한 마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각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EVERYTHING SINGS
모든 것은 노래한다

문화도시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2022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복합문화공간 111CM을 중심으로 행궁동과 수원 시내 곳곳의 작은 공간들에서 인문도시주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문도시주간은 문화도시 수원의 특성화 사업으로 문화도시 수원의 인문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인문적 활동들을 공유하며 상호교류의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특례시는 2022년 법정 문화도시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과연 어떤 도시가 ‘문화도시’이고 우리는 어떤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도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은 정조의 인본과 실학사상의 바탕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위에서 사람 중심의 인문성을 발전시켜 왔고, 그러한 노력들은 인문학을 넘어 인문도시로 그리고 다시 문화도시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문도시주간은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인문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에 대한 상상력의 산물이고 실험이며 삶의 다양성을 만나는 축제입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만나는 인문도시주간

인문도시주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은 일 년간의 문화도시 사업들의 성과를 모아내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문화도시는 시민, 마을, 지역,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 1년간의 이러한 활동들의 성과와 내용들이 인문도시주간을 통해 공유되는 축제형 성과공유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시민을 만나고 관계 맺고 새로운 상상을 도모하며 다양한 활동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의 과정과 결실들이 인문도시주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의미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문클럽 오색프로젝트는 다섯 개의 인문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돌봄과 배려, 존중과 환대, 공동체 활동, 로컬:청년문화, 생태환경이 그것입니다.

<공동체 활동>은 이번 인문도시주간 오색프로젝트에서 세대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장을 만들고자 ‘질문’을 주제로 삼았고, <돌봄과 배려>는 서로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자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몹쓸 가면무도회’를 기획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나만의 장소와 이야기를 공모 받아 전시 하고 책으로 엮은 <로컬:청년문화>와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게임을 이용한다거나 생태환경 관련 도서와 씨앗을 전시한 <생태환경>의 활동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거나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였습니다. <존중과 환대>는 서로를 다독여 주고 응원해주며 우정을 나누는 장으로 ‘뽀뽀 FUN!한 가을 운동회’를 준비해 많은 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인문클럽 오색 프로젝트는 다양한 시민그룹들의 관심사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 주제에 시민그룹이 참여하면서 구성됩니다. 각 주제에 대해 그룹대화를 반복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계획을 세웠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적 성장과 개인의 배움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인문도시주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은 N개의 실행그룹입니다. 올 해의 인문도시주간에서는 인문도시포럼을 포함해 총 10개의 기획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진행된 두 개의 포럼에 인문도시주간의 주제성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조금 다른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한 <인문도시포럼>은 “더불어 즐겁게 살기를 도와주는 ‘공생의 도구’로서,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세 가지는 자전거, 도서관, 시(詩)이다.”라고 말한 이반 일리치의 생각에서 좋은 도시란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고자 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편리해 졌지만 또한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도시는 복잡해졌고 성장과 개발, 속도 중심의 사회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연을 향한 대가가 지불되는 에너지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구르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울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시(詩)적 감정들로 충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문도시를 추구한다면 적어도 그 안에 인간의 삶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말은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적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제 환경운동가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기이며 이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위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위기적 경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성찰이 필요하고 한편 우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후포럼 : 기후와 마음>은 이런 위기적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굳건히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인문도시주간에서는 수원시민들의 창작시를 모아 시집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을 출간하였고, 작가를 초대한 북 토크는 물론 블라인드 북 판매라는 형태로 수원시내 동네 서점 18곳과 연결되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담은 영화를 보고 관련 대담을 진행한 다거나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양한 의제를 모았습니다. 차가 없는 거리를 시민의 보행공간으

로 바꾸고 여러 나라와 민족의 문화가 한 곳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희곡과 음악으로 청년들의 관심과 고민을 접하기도 했으며 111CM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 놀이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하나하나의 작은 축제들로 9일간 시민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함께 구성하는 삶의 축제

인문도시주간 목표 중 하나는 ‘새로운 추진체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인문도시주간에는 많은 시민그룹이 참여했습니다. 공부하는 시민들의 모임과 지역의 시민활동가 그룹, 동네책방을 운영하거나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주민들과 청년예술가 그리고 기획자들까지 각자의 관심사와 욕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동네책방 운영자는 책을 매개로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필요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시민활동가는 자신의 관심과 활동분야를 넘어 다른 방식의 기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차로 넘쳐나는 생태교통 마을이라는 역설을 해결해 보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공부하는 주제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다양한 방식을 상상하고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로 만나 인문도시주간이라는 축제를 함께 준비하지만 각각의 그룹은 각각의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인문도시주간은 시민과 전문가가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시도했습니다. 기획하고 홍보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시민그룹이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축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문도시주간 프로그램

| 일정 | 프로그램 | 장소 |
|-------|--|---------------------|
| 15(토) | 11:00 책 놀이터 '빛그림' 공연 | 111CM 갤러리 |
| | 12:00 직거래 장터 <수문장> | 111CM 야외 광장 |
| | 12:00 인문도시주간 개막식 | 111CM 라운지 |
| | 13:30 인문도시포럼 :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 | 111CM 라운지 |
| | 17:30 문화도시의 밤 _ 창작 시집 출간 기념회 | 111CM 라운지 |
| 16(일) | 11:00 책 놀이터 '빛그림' 공연 | 111CM 갤러리 |
| | 12:00 로컬브랜드 직거래장터 수문장 | 111CM 야외 광장 |
| | 13:30 기후포럼 : 기후와 마음 | 111CM 라운지 |
| 17(월) | 10:00 수원의 안부, 안쪽 프로젝트 결과 공유회 | 111CM 창작활동 교육실 |
| | 14:00 시민가치 연합공유회 : 우리서로 문화공감 | 111CM 라운지 |
| | 14:00 슬기로운 공유문화 포럼 | 111CM 라운지 |
| | 19:00 영화로운 시네마 _ 풀타임(Full Time) | 글로벌평생학습관 1관 Theater |
| 18(화) | 11:00 북 토크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 111CM 라운지 |
| | 14:00 가족공예로 사이시옷 하자 | 봄봄공방 |
| | 14:00 책 놀이터 '빛그림' 공연 | 111CM 갤러리 |
| | 15:00 [포럼] 문화도시에서의 지역예술인의 역할 | 수원문화재단 지하 강당 |
| | 19:00 영화로운 시네마 _ 컴온컴온(C'mon C'mon) | 글로벌평생학습관 1관 Theater |
| 19(수) | 14:00 지구에 무해한 하루 | 지니얼스 |
| | 14:00 시민주도 R&D 성과공유회 | 111CM 라운지 / 개더타운 |
| | 14:00 도시여행 학습연구모임 | 111CM 창작활동 교육실 |
| | 19:00 영화로운 시네마 _ 종착역(Short Vacation) | 글로벌평생학습관 1관 Theater |
| | 19:30 [공연] 문수 좋은 날 | 행복한산책 |
| 20(목) | 10:00 오색 프로젝트 _ "()위로를 담다." | 111CM 라운지 |
| | 11:00 아트페어 | 신봉로39번길 15 |
| | 11:00 북토크 <각별한 당신: 자기답게 살아온 사람들> | 111CM 라운지 |
| | 14:00 웰컴 투 수원 활동 공유 워크숍 | 111CM 라운지 |
| 21(금) | 19:00 영화로운 시네마 _ 사마에게(For Sama) | 글로벌평생학습관 1관 Theater |
| | 10:00 오색 프로젝트 _ "()위로를 담다." | 111CM 라운지 |
| | 11:00 아트페어 | 신봉로39번길 15 |
| | 14:00 수원은 학교 포럼 2부 | 111CM 라운지 |
| | 16:00 [포럼] 예술가가 바라본 법정문화도시 수원 | 창릉마을창작센터 |
| 22(토) | 20:00 청춘예찬 : 나도네가 Sigur Rós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공유회 | 경기대 앞 와인집 <짜잔> |
| | 10:00 오색 프로젝트 _ "()위로를 담다." | 111CM 라운지 |
| | 11:00 안녕, 행궁동 | 행궁동 차없는거리_신봉로 일대 |
| | 11:00 시민 + 광장 | 행궁동 차없는거리_신봉로 일대 |
| | 11:00 아트페어 | 신봉로39번길 15 |
| | 11:00 시민활동공동체 오픈런 Open Learn | 행궁동 차없는거리_신봉로 일대 |
| | 12:00 with You, with Me | 행궁동 문화상회 다담 |
| | 13:00 오픈라디오로 만나는 문화도시 수원 <미디어 차차> | 111CM 입구 |
| 23(일) | 14:00 오색 프로젝트 _ 몹쓸 가면 무도회 | 111CM 정문 앞 |
| | 14:00 오색 프로젝트 _ 우리의 먹거리를 알아야 지구를 지킨다. | 111CM 정문 앞 |
| | 15:00 청춘예찬 : 그녀들의 방 공유회 | 청년공간 청누리 |
| | 10:00 오색 프로젝트 _ "()위로를 담다." | 111CM 라운지 |
| | 11:00 오색 프로젝트 _ 질문은 당연하다;무엇이든 물어보살 | |
| 23(일) | 11:00 아트페어 | 신봉로39번길 15 |
| | 14:00 오색 프로젝트 _ 뽀X펀FUN!한 가을 운동회 | 111CM 옆 원형마당 |
| | 17:00 월간문화포럼 ; 문화도시 너마저! | 111CM 라운지 |

우리는 서로의 삶의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인문도시주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참여구조를 만드는 것이 서로의 협력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문화도시를 통해, 그리고 인문도시주간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현대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많은 편이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인류는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또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대한 도시에서 서로 단절되어 살아가거나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소외된 일부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과거엔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공동체의 울타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현대인들을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화려함 속에서 소외감을 겪습니다.

인문도시주간은 함께 살아가며 삶의 기쁨을 나누는 공생공락共生共樂의 정신을 이야기 했습니다. 어찌 보면 힘겹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이 그저 평범한 우리의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좋은 삶과 태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시선을 멈추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려는 노력과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문도시주간을 준비하면서 매달 월간문화포럼이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이들과의 우정을 나누기 위한 자리이고 서로를 환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조차 서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대와 우정의 마음이며 그러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 상설 프로그램 | | |
|-----------------------|--------------------------------|--|
| 책 놀이터 | 2022.10.15.(토)~22.(토) / 월요일 제외 | 111CM 로비 / 야외 광장 |
| 인문실천 아카이브 전시 | 2022.10.15.(토)~23.(일) | 111CM 갤러리 |
| 블라인드 북 판매 | 2022.10.15.(토)~23.(일) | 수원시내 책방 18곳 |
| [전시]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 | 2022.10.22.(토)~11.13.(일) | 탐동시민농장 / 푸른지대 창작샘터 전시장 유우사 / 실험목장AGIT |

| 사전 프로그램 | | | |
|---------------|------------------|-----------------------------------|----------------|
| 07.15.~08.15. | 32일간 | 수원시민 창작시 공모 '시민은 모두 시인이다'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 08.24.~09.14. | 20:00~21:00(총4회) | 청춘예찬 ; 나도 네가 Sigur rós를 좋아했다면 좋겠어 | 경기대 앞 와인집 '짜잔' |
| 08.27.~10.08. | 15:00~17:00(총6회) | 청춘예찬 ; 그녀들의 방 | 청년공간 청누리 |

인문도시주간 주요 일정

| 일정 | 프로그램 | 장소 |
|-------------------|--|----------------------------|
| 3월 29일(화) | 인문도시주간 1차 자문회의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4월 7일(목) | 인문도시주간 총감독 선임 후 첫 미팅 | 수원문화도시센터 |
| 4월 15일(금) | 인문도시주간 자문회의 2차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4월 26일(화) | 동네서점 첫 모임 | 마그앤그래 |
| 5월 11일(수) | 공공예술프로젝트, 수원은 학교, 인문도시주간 상호 협력을 위한 기획 미팅 | 실험목장 아지트 |
| 5월 12일(목) | 인문도시주간 자문회의 3차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5월 24일(화) | 실행그룹 첫 전체 회의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5월 25일(수) | 시민협약체 발족식 및 인문클럽 오픈 설명회 | 경기상상캠퍼스 |
| 5월 30일(월) | 문화도시센터 사업 담당자 미팅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6월 16(목) | 인문도시주간 자문회의 4차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6월 12일(일) | 인문클럽 라운드테이블워크숍<공공공감> | 1회차(18일, 25일, 26일까지 4회 진행) |
| 7월 7일(목) | 인문도시주간 스텝 워크숍 1차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7월 11일(월) | 인문도시주간 스텝 워크숍 2차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7월 14일(목) | 인문도시주간 자문회의 5차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7월 15일(금) | 수원시민 창작시집 공모 시작(7.15.~8.15.) | |
| 7월 19일(화) | 7월 월간문화포럼 | 하늘을 나는 돛단배 |
| 7월 31일(일) | 오색 프로젝트 1차 기획 미팅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8월 23일(화) | 인문도시주간 x 인문클럽 블로그 오픈 | |
| 8월 30일(화) | 8월 월간문화포럼 | 실험목장 아지트 |
| 8월 31일(수) | 수원시민창작시 공모 심의 진행 | 수원전통문화관 |
| 9월 25일(일) | 오색 프로젝트 최종 점검 미팅 | 111CM |
| 9월 27일(화) | 9월 월간문화포럼 | 마그앤그래 |
| 10월 7일(금) | 실행그룹 최종 점검 미팅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10월 12일(수)~14일(금) | 111CM 무대 및 전시장 설치 작업 | 111CM |
| 10월 15일(토)~23일(일) | 인문도시주간 | 111CM, 행궁동 및 수원시내 곳곳 |
| 10월 24일(월) | 무대 및 전시장 철수 | |
| 10월 27일(목) | 인문도시주간 스텝 평가 모임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11월 2일(수) |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평가 모임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11월 6일(일) | 오색 프로젝트 리뷰 미팅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 11월 28일(월) | 11월 월간문화포럼 | 가치가게 |
| 12월 3일(토) | 인문클럽의 밤 | 작은도서관 책고집 |
| 일정추가 | 3월 1차 자문회의 | 보도자료 배포 등 |

인문도시주간 1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2.03.29.(화)
- 참석자 : 고영직 문화평론가, 노명우 아주대교수, 정현경 경희대 교수
- 회의내용
 - 2021 인문도시주간 결과보고서 공유
 - 2022 인문도시주간 사업구조 및 방향성 소개 및 자문
 - 2022 인문도시주간 총감독 심의 진행

인문도시주간 2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2.04.15.(금)
- 참석자 : 고영직 문화평론가, 노명우 아주대교수, 박윤정 문화기획자, 정현경 경희대 교수,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대표, 한문희 총감독
- 회의내용
 - 2022 인문도시주간 기획위원회 소개
 - 2022 인문도시주간 사업공유 및 방향성 설정

인문도시주간 3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2.05.12.(목)
- 참석자 : 고영직 문화평론가, 노명우 아주대교수, 박윤정 문화기획자, 정현경 경희대 교수,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대표, 한문희 총감독
- 회의내용
 - 2022 인문도시주간 개최장소 및 일정, 인문클럽 소개 등
 - 2022 인문도시주간 올해의 담론, 인문도시포럼 주제 선정

인문도시주간 4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2.06.17.(목)
- 참석자 : 고영직 문화평론가, 노명우 아주대교수, 박윤정 문화기획자, 정현경 경희대 교수,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대표, 한문희 총감독
- 회의내용
 - 2022 인문도시주간 포럼 주제 선정
 - 섹션 1.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
 - 섹션 2.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수원
 - 포럼 패널 섭외 논의

인문도시주간 5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2.07.14.(목)
- 참석자 : 고영직 문화평론가, 노명우 아주대교수, 박윤정 문화기획자, 정현경 경희대 교수,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대표, 한문희 총감독
- 회의내용
 - 2022 인문도시주간 기획(안)
 - 인문도시포럼 슬로건에 대한 재고 및 고찰
 - 기후 포럼의 성격 및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

- 2022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기획(안)
 - 창작시 공모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아이디어 제안
 -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내용에 대한 내용 공유 및 논의
- 인문클럽 운영 현황

인문도시주간 6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2.08.18.(목)
- 참 석 자 : 고영직 문화평론가, 노명우 아주대교수, 박윤정 문화기획자, 정현경 경희대 교수, 한문희 총감독
- 회의내용
 - 인문도시포럼 패널 섭외 논의
 - 인문클럽 5색 프로젝트 자문

인문도시주간 7차 자문회의

- 일 시 : 2022.12.01.(목)
- 참 석 자 : 고영직 문화평론가, 노명우 아주대교수, 정현경 경희대 교수, 한문희 총감독
- 회의내용
 - 2022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결과보고
 - 2022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전문가 참여의견
 - 2023 인문도시주간 추진 방향



자문회의 모습

02

제2장 인문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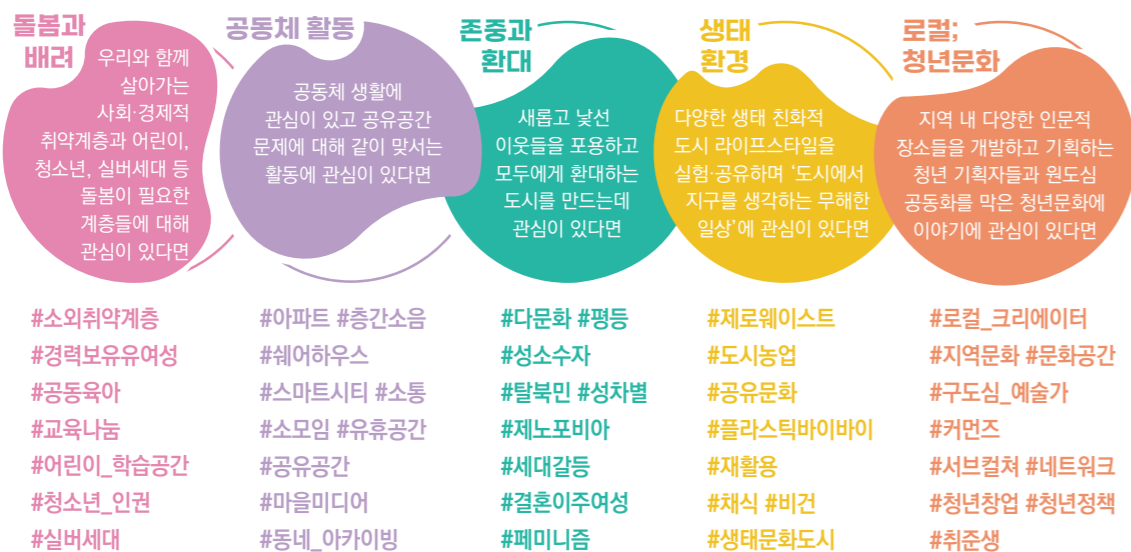
인문클럽

인문클럽이란? 돌봄과 배려, 존중과 배려, 공동체 활동, 로컬; 청년문화, 생태환경 등 문화도시 수원이 지향하는 인문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실현하는 자발적 시민활동 주체이자 문화도시 수원의 핵심 워킹그룹

- 운영기간 : 2022. 4. ~ 12.
- 등록클럽 : 86개 클럽(316명) / 클럽은 3인 이상이며 문화도시 수원 시민협의체 가입된 구성원
- 지원사항
 - 문화도시 활동 관련 맞춤형 핫 라인/수시 제안 창구로 제안 내용과 관련된 사업 및 담당자 연결
 - 모임을 위한 장소 대관비 지원(클럽당 최대 5회 / 회당 20,000원 지원 / 동행공간 한정)
 -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모임의 활동 내용 및 소식 홍보 지원
- 클럽활동
 -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클럽들과 소통
 - 관심주제를 바탕으로, 인문도시주간 중 오색 프로젝트 시민감독 선발 및 참여
 - 지역 내 다양한 동행공간과 소통하고 이용 가능
 - 문화도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소식 안내 제공

인문클럽 구성 가치

#인문클럽_관심분야



인문클럽 상반기 라운드테이블

| 회차 | 일시 | 주제 | 세부내용 |
|----|---|----|--|
| 1 | 6/12(일) 15:00~18:00 | 공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 / 대표 활동 공유 • 동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동기 및 기대 - 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 - 지역적 가치로의 확장 • 지향점 및 공감대 형성 • 네트워크 구성 |
| | |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 테이블 회고 • 느슨하고도 긴밀한 관계 유지의 방법 |
| 2 | 6/18(토) 13:00~16:00 17:00~20:00 6/19(일) 10:00~13:00 14:00~17:00 18:00~21:00 |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 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속에서의 가치 발견 - 가치 중심적 활동의 조건 - 관심 있는 이슈 공유 - 구현 방법 스케치 |
| | |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 테이블 회고 |
| 3 | 6/26(일) 15:00~18:00 | 공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색 프로젝트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의 구체화 - 실행을 위한 방법 - 상호 피드백 |
| | |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 테이블 회의 |
| 4 | 7/10(일) 15:00~18:00 | 공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독 선출 및 프로젝트 공유 |
| | |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고 및 워킹 그룹 운영 계획 |



인문클럽 하반기 라운드테이블

| 회차 | 일시 | 세부내용 |
|----|-------------------------|--|
| 1 | 7/31(일) 14:00~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감독과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진행사항 공유 - 클럽별 인적 자원 교류 |
| 2 | 8/21(일) 14:00~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클럽원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색프로젝트 운영 방식 - 프로젝트 진행 사항 공유 |
| 3 | 9/25(일) 14:00~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감독과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방안 공유(장소 등) - 최종 점검 및 리스트 예방 |
| 4 | 11/6(일) 14:00~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도시주간 오색 프로젝트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합의된 가치 점검 - 과정에서 가치가 발현되거나 퇴색된 지점 - 전반적 평가 및 논의 • 인문클럽인의 밤 논의 |
| 5 | 12/3(토) 17:00~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특강 • LETS (local energy trading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의 배움 경험 • 네트워킹 시간 |
| 6 | 12/14(수) 10:00~12: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클럽의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클럽과 문화도시와의 관계 - 지역에서 인문클럽이 주는 효과 • 인문클럽 열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클럽의 방향성 - 인문클럽 운영 방식 |

성과 및 보완점

- 주말에 많은 모임들이 진행되어 참여가 쉽지 않았음
-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 인문클럽 첫 해로 많은 참여인원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함께해서 의미 있고 감사했습니다.
- 주제별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 수원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첫 해에 시행착오를 통해 내년에는 더 재미있는 인문클럽으로 알차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03

제3장 오색 프로젝트

인문클럽 <오색 프로젝트>

가. 일 시 : 10.20(목)-10.23(일) 10:00-17:0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재미있는 문화도시 수원을 함께 도우며 만들어가자”

“느슨한 관계 안에서 서로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결합을 조율하자”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닥치고 재미있게!’ 함께 즐기며 만들어가자”

인문클럽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5색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오색 프로젝트는 서로 가진 개성과 재능, 고민까지 다양각색의 모양으로 만들진다.

1. 공동체 활동 <질문은 당연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10.23(일) 11:00-17:00 / 111CM 정문 앞, 내부 스튜디오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며, 세대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손수건 천연염색, 꽃 일러스트를 만들며 나를 표현하고, 나를 표현하며 생긴 질문을 질문트리에 걸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2. 돌봄과 배려 <몸쓸 가면 무도회>

10.22(토) 14:00-17:00 / 111CM 정문 앞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과 배려는 그대로 인정하고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치보는 것 없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음악게임을 하고 낙서를 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3. 로컬: 청년문화 <“() 위로를 담다.”>

10.20(목)-10.23(일) / 111CM 내부 라운지

‘수원, 그 어느 곳’에서 온도를 함께 나누어요. 위로가 되는 나만의 장소와 이야기를 공모 받고, 사진전, 영상, 출판, 위로존 팻말로 수원의 숨어있는 곳곳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4. 생태환경 <우리의 먹거리를 알아야 지구를 지킨다.>

10.22(토) 12:00-17:00 / 111CM 정문 앞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먹거리를 촉감으로 맞추는 게임을 하고, 생태환경 도서와 씨앗을 전시하여 환경을 살리는 방법과 생활의 지혜를 나눕니다.

5. 존중과 환대 <뽀X FUN!한 가을 운동회>

10.23(일) 14:00-16:00 / 111CM 옆 원형마당
연령, 인종, 계층의 구분을 두지 않고 만나 서로를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며 우정을 나누는 장이 한바탕 펼쳐집니다. 플래시 몹, 퍼포먼스, 전래놀이 등 재밌는 놀이판과 다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라. 진행방식

| 공동체 활동 <질문은 당연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 짜 : 10월 23일(일) 11:00-17:00 • 진행 장소 : 111CM 정문 앞, 내부 스튜디오 • 프로그램 | | |
| 체험존 | 질문 트리 | 무엇이든 물어보살 |
| 1) 소개 소통에 앞서 나를 표현하다 - 패션 일러스트 - 천연 염색 2) 재생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다 - 하바리움 볼펜 만들기 - 나에게 편지쓰기 | - 익명으로 참여 - '나', '사람', '미래' 키워드 중 택일하여 질문 작성 - 작성한 질문 카드를 질문트리에 걸어 전시 | - MBTI 검사 스튜디오 - 고민 상담 스튜디오 - 사전 모집 및 당일 예약 운영 |

| 돌봄과 배려 <몹쓸 가면 무도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 짜 : 10월 22일(토) 14:00-16:00 • 진행 장소 : 111CM 정문 앞 • 프로그램 | |
| 가면 무도회 | 음악게임 |
| 1) 대상 - 휠체어를 탄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 행동이 불편한 장애인, 그 외 다양한 참여자, 지나가는 구경꾼 등이 서클을 만들어 춤을 추고 세이프티 존(서클 안)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 2) 내용 - 시범단 출발 - 음악 들으며 느끼는 대로 몸 움직이기 - 포크댄스 지도자의 안내로 모두가 서클로 움직이며 춤추기 | ① 오르프를 잡아라 - 오르프 리듬치기 악보를 개인 또는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완주하는 게임 ② 즉흥 연주 - 앞에 놓인 악기를 들고 춤에 맞춰 리듬치기 ③ 돛자리 오락실 - 돛자리를 깔고 앉아서 레트로 게임(오락 게임) |

| 돌봄과 배려 <몹쓸 가면 무도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 짜 : 10월 22일(토) 14:00-16:00 • 진행 장소 : 111CM 정문 앞 | |
| 시민 도화지 | 전시 및 배포 |
| 1) 낙서 - 시민 도화지 - 색칠종이텐트 2) 만들기 - 가면 만들고 꾸미기 3) 춤 - 연주 - 그림 - 춤추고 연주하는 장면을 그림 및 사진으로 표현 | 1) 온라인 전시 - 참여자들의 사진, 영상, 낙서, 그림을 온라인 전시(유튜브) 2) CM송 제작 3) 온라인 기사 송출 |

| 로컬: 청년문화 <“() 위로를 담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 짜 : 10월 20일(목)-10월 23일(일) 10:00-17:00 • 진행 장소 : 111CM 내부 라운지 • 프로그램 | |
| 공모 | 릴레이 참여 챌린지 |
| 문화도시 수원 홈페이지, SNS 게시 ① 설문 문항 - 이름, 연락처, 연령대 (이후 연령대별 선호 장소로 확장 가능성) - 위로가 된 키워드 - 해당 장소 사진 - 장소명, 위치 - 구체적으로 명시 (00저수지 00번째 벤치에서 바라보는 노을, 00카페 00번 테이블에서 누구와 함께) ② 수집 기간 - 8/11(목) ~ 9/8(목) ③ 수집 방법 - 구글폼, 네이버폼으로 링크 및 QR 배포, 개인정보 동의 및 장소 제공자 명부 관리 | ① 대상 인문클럽 라운드 테이블 참여자 및 수원 공동체 네트워크 활용 ② 릴레이 방식 - 각 그룹별 시민감독 및 공동체를 통한 참여 요청 - 그룹 시민감독에서 팀원으로 릴레이 및 설문을 통한 영상 접수 - 영상과 함께 설문 내용 업로드 (오색 청개구리) ③ 설문지 문항 공모와 동일 (사진&영상 구글 링크를 통한 접수) |
| 위로존 장소 선정 | 전시 및 배포 |
| ① 선정 기준 - 명확한 스토리와 장소 - 사진 첨부 ② 선정 인센티브 - 도서 증정, 팸말 설치 - 현장 공감 투표로 5곳 선정 후 1만원 상당의 쿠폰 현장 지급 • 일정 8/11(목) ~ 9/8(목) 장소 공모 및 릴레이 챌린지 10/15(토) ~ 10/23(일) 전시 및 실행 | 1) 영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연 영상 상영 2) 판넬 - 인문도시주간 현장 전시 3) 도서 발간 4) 위로존 팸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소 표기 |

생태환경 <우리의 먹거리를 알아야 지구를 지킨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 짜 : 10월 22일(토) 12:00~17:00 • 진행 장소 : 111CM 정문 앞 • 프로그램 | | |
| 씨앗 알아보기 | 먹거리 알아맞히기 | 환경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을 제안하기 |
| 지구와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먹거리의 근원이 되는 씨앗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씨앗의 종류를 전시하여 우리의 먹거리와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참여 이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먹거리 중에서 일반인 [남녀노소]이 우리의 먹거리를 구별하는 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식생활을 주도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참여 프로그램 - 주요 먹거리를 비밀상자에 넣어 놓고 촉감(손으로 만져서)으로 이름을 써서 알아맞히기 | 우리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고 지구환경과 관련이 있는 도서 전시 및 환경 살리기 실천사항 및 생활의 지혜와 제안을 적어 주면 친환경 생활용품 선물로 주는 참여 이벤트 |

존중과 환대 <뽀X 뽀FUN!한 가을 운동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 짜 : 10월 23일(일) 14:00~16:00 • 진행 장소 : 111CM 옆 대유평공원 원형마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 송 : '날 좀 보소'(밀양 아리랑) • 행사 진행 : 레크레이션 사회자 1명 • 음악 : 전통악기 연주자 5명(가야금2, 대금1, 장구1, 소리1)이 라이브 공연 및 테마송, 전래놀이 음악을 연속적으로 연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프닝 '날 좀 보소' 2) 이주민, 장애인, 노인, 청년, 어린이 등 10명으로 구성된 다섯 단체의 '존중과 환대' 가치를 표현하는 플래시몹 시연 3) 각 팀 고유 의상 및 장비 착용 후 퍼포먼스 실행 4) 전래놀이 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개의 전래놀이(소요시간 60분)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박 터트리기, 강강술래로 연계 5) 희망 메시지를 담은 박 터트리기 및 메시지 인터뷰, 강강술래 6) 시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소감,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천에 적어 행사장에 마련된 줄에 장식 |

마.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별도 무대는 마련되지 않음 | |
| 객석 | - 체험부스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20~30개 배치 | |
| 음향 | -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
| 영상&사진 | - 프로그램 스케치 사진 촬영 |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프로젝트별 포스터, 책자 등 홍보물 비치 - 각 프로그램 장소에 배너 및 우드 안내판 비치 | |
| 인력 | - 장동현, 이명신, 윤준화, 지준성, 이현주 등 25명 | |

바. 참여인원

| 인문클럽 | 출연자 | 비고 |
|----------|-----|-----------------------------------|
| 공동체 활동 | 7명 | 2명 |
| 돌봄과 배려 | 3명 | 12명 (댄스 8명, 설치 및 진행 보조 4명) |
| 로컬: 청년문화 | 5명 | 7명 |
| 생태환경 | 3명 | 3명 |
| 존중과 환대 | 9명 | 39명 (사전섭외팀 33명, 악단 5명, 사회자 1명) |
| 소계 | 25명 | 58명 |
| 합계 | | 83명 |

사. 성과 및 보완점

- 다양한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서 좋았다.
- 다른 팀과의 활동 공유가 필요하면서 프로젝트 중간중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거 같다.
- 클럽원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느슨한 연대를 통해 본인의 관심사를 찾아가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여 A to Z까지 진행하도록 재단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여 새로운 경험이었다.
- 행사 성공의 압박감, 부담감 없이 시민들 주도로 재미있게 진행하여 기억이 남는다.
- E-나라도움 사용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웠다.
- 행사운영, 정산보조 등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 현장스케치



04

제4장
N개의 실행그룹

포럼, 컨퍼런스

인문도시포럼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

01

프로그램
포럼, 컨퍼런스

가. 일 시 : 10월 15일(토) 13:30~16:3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더불어 즐겁게 살기를 도와주는 ‘공생의 도구’로서,
세상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자전거·도서관·시(詩)이다.”

- 이반 일리치 Ivan Illich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고,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꿈꾸는가?

‘도시포럼-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에서는 무한대의 산업성장 시대, 인류의 미래를 지탱해줄 공생의 도구로 ‘도서관’과 ‘자전거’ 그리고 ‘시’가 존재하는 도시를 이야기한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주장에 주목한다. 세 가지 요소는 실질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시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수원 시민들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주제어1. 자전거

“도시공간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 시민 보행권과 보행환경, 걷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뉴욕/파리/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의 보행과 자전거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수원에 시사점 도출

주제어2. 도서관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도서관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를 찬찬히 짚어보며, 수원시민에게 필요한 담론을 제시

주제어3. 시

예술(가) 활동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공간, 시민/예술가의 활동이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례를 살펴보고 수원시의 미래를 전망해 봄

라. 진행방식

- 1) 사회자의 포럼배경 소개(5분 이내) 이후, ‘도서관’, ‘자전거’, ‘시’ 3가지 주제별 개인 강연자 3명이 각각 발표(30분)
- 2) 마지막에 강연자와 사회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
- 3) 사전에 받은 질문과 현장에서 받은 질문을 취합하여 강연에 반영
- 4) 포럼 현장 영상촬영 진행, 추후 플랫폼을 통해 공개
- 5) 신청방법 : 구글폼 사전신청(http://bit.ly/포럼_신청)

마. 프로그램

사회 : 노명우(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시간 | 구분 | 내용 | |
|-------------|--------------|---------------------|--|
| 13:30-13:40 | 여는 말 | <도시포럼> 포럼배경 및 주제 소개 | - 노명우 사회학자, 아주대학교 교수 |
| 13:40-14:10 | 1부. 주제 강연 | 자전거와 도시 | - 정 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 14:10-14:40 | | 도서관과 도시 | - 이은주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 |
| 14:40-15:00 | | 휴식 시간 | |
| 15:00-15:30 | | 시와 도시 | - 강원재 前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
| 15:30-16:30 | 2부. 열린 대담 | 사회 | - 노명우 사회학자, 아주대학교 교수 |
| | | 강연자 | - 정 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이은주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사무총장 - 강원재 前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
| | | 토론자 | - 안태호 인천 연수구 문화도시센터 총괄기획자 |

바. 출연자

| 구분 | 강연자 | 이전 활동 |
|--------------------|-----------------------------|---|
| 사회자 |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수원문화재단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 지은 책 <노명우의 한 줄 사회학>, <구경꾼의 탄생> 등 44종 |
| [주제강의] 자전거와 도시 | 정 석 도시공학과, 서울시립대 교수 |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 보전, 시민 보행권과 보행환경, 걷고싶은 도시 등의 프로젝트 연구 및 수행 - 1997년 전국 최초 제정된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 담당. - 지은 책 <나는 뛰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도시의 발견 :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인문학>, <천천히 재생> 등 |
| [주제강의] 도서관과 도시 | 이은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 | -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 - (전) 인천 늘푸른어린이도서관 (2012-2017) - (전)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인천지부 지부장 (2016-2017) |
| [주제강의] 시(詩)와 도시 | 강원재 前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 - (전)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 땡땡은대학연구소 제1대학 소장 -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 문화예술교육웹진 '지지불봄' 편집장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코디네이터 -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의 대표 - 홍익대학교에서 미학 석사과정 |
| 토론자 | 안태호 인천 연수구 문화도시센터 총괄기획자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문화도시 총괄기획자 -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 -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웹진 편집장 -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 - 부천문화재단 정책팀장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웹진 <컬처뉴스> 편집장 - 함께 쓴 책으로 『나의 아름다운 철공소』, 『노년예술수업』 |

사.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포럼용 무대 설치(자체제작) - 무대 배경막 설치 - 사회자 1인, 패널 4명을 위한 테이블(자체제작) 및 의자 5개 셋팅 - 테이블 위 마이크 5개, 탁상용 패널 이름표, 물, 컵 - 4M LED TV 설치(개막식 사용 후 그대로 사용) | *무대셋팅은 14일진행 |
| 객석 | - 청중의자 40개(111CM물품) - 계단 방석 20개, 계단 위쪽 빈백 10개 | |
| 음향 | - 포럼 시작 10분전 BGM ON - 객석옆쪽으로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포럼 내용 기록을 위한 속기사 배치 및 녹취(추후 서면 기록) | *셋팅 및 녹취진행 대행업체 |
| 영상&사진 | - 포럼 전 과정 녹화 - 포럼 영상 스케치 & 사진촬영 | *재단계약 영상업체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
| 인력 | - 담당자 안혜영 - 진행인력 1명(담당자 업무 보조 및 참가자 확인) | *진행인력 2명 대행업체 파견 |
| 기타 | - 출연자 도착시간 확인 및 대기공간 안내 - 출연자용 인문도시주간 기념품(티셔츠, 에코백, 배지 등) - 다과 및 음료 준비 | |

아. 공간배치



자. 참가인원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1명(2명) | 5명 | 42명 | 25명 | 현장 참여자 10명 |

차.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 1) 포럼 중 영상자료 송출을 위하여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개막식으로 인해 기 설치된 4M LED TV 사용

카. 자체 홍보현황

- 1)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2) 수원시 및 인근 대학 관련학과에 웹홍보물 배포 및 게시
: 경기대학교(수원캠퍼스), 아주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 휴머니티스칼리지 등

타. 성과 및 보완점

행사의 주제를 함축한 분야별 전문가들 선정이 적절했던 유의미한 자리였음. 짧지 않은 진행시간(3시간)임에도 수원에서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현장토론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적절한 시간 안배 필요

인문도시포럼과 기후포럼을 하나의 신청품으로 통합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복 참여자가 많았음. 참가비가 없는 무료행사라서 행사 당일 no-show가 많았으며 행사장소 또한 수원 시내에서 접근하기 힘든 지리적 취약점, 주차장의 열악함이 no-show에 일조하였음

파. 현장 스케치



포럼, 컨퍼런스 기후포럼 <기후와 마음>

02

프로그램
포럼, 컨퍼런스

가. 일 시 : 10월 16일(일) 13:30~16:3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이성으로 비판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 안토니오 그람시 Antonio Gramsci

‘생활포럼-기후와 마음’에서는 환경위기 전환기에 일상의 가치와 연대를 울림 있게 엮어가는 각계의 강연자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칫 디스토피아적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후우울감에서 강연자들의 목소리를 빌어 우리의 마음지형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라. 진행방식

- 1부. 주제강연(기후와 마음)과 초청강연(나는 왜 ○○을 하는가?)에 대한 강연
 - 2부. 사회자와 강연자,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대담 시간
 - 3부. 강연과 대화 그리고 재연결 작업을 위한 워크숍
- 2) 포럼 현장 영상촬영 진행, 추후 플랫폼을 통해 공개
- 3) 신청방법 : 구글폼 사전신청(http://bit.ly/포럼_신청)

마. 프로그램

사회 : 노명우(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시간 | 구분 | 내용 |
|-------------|--------|--|
| 13:30~13:40 | 여는 말 | <기후와 마음> 포럼 배경 및 주제 소개 - 고영직 문학평론가 |
| 13:40~14:10 | 1부. 강연 | [주제강연] 기후와 마음 - 김해자 시인 |
| 14:10~15:10 | | [초청강연] 나는 왜 ○○을 하는가? - 한진희 청년활동가, 농사짓고 예술하는 농부 - 홍칼리 영성을 중요시 하며 채식하는 전업무당 -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 |
| 15:10~15:30 | | 휴식 시간 |
| 15:30~16:00 | 2부. 대화 | [대담] - 진행 : 고영직 문학평론가 - 강연자, 참석자 전원 |
| 16:00~16:30 | 3부. 연결 | [워크숍] 재연결작업 -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꿈꾸는 재연결작업 안내자 |

바. 출연자

| 구분 | 강연자 | 이전 활동 |
|---------------------------|---|---|
| 사회자 | 고영직 문학평론가 | - 수원문화재단 자문위원 - 문학평론가 - 아르떼365 편집위원,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문학 웹진 《비유》 편집장, 아르떼 이사 등 역임 -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 서울시민대학 전공세미나 지도교수 활동 - 지은 책 『인문적 인간』,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등 |
| 주제강연 & 초청강연 | [주제강연] 김해자 시인, 농부 | - 15년째 농사를 배우며, 문학강의, 환경생태교육하는 시인, 문학가 - 1998년 《내일을 여는 작가》 선정 - 시집 『무화과無花果는 없다』 『축제』 『집에 가자』 『해자네 점집』 『해피랜드』, 민중구술집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세이집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상했다』, 『위대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평 에세이 『시의 눈, 벌레의 눈』 등 출간 - 전태일문학상, 백석문학상, 이육사시문학상, 아름다운작가상, 만해문학상, 구상문학상, 난설헌시문학상 등을 수상 |
| | [초청강연] 한진희 청년활동가 농사짓고 예술하는 농부 | - 청년농부, 예술가, 지역&환경활동가 - 친환경 유기재배 농사 - 순천 에코아트페어 커뮤니티 작가 - 전남녹색당 사무처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 6.13 지방선거 수원시의원 후보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환경분과 위원 |
| | [초청강연] 홍칼리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지향 무당 | - 비건지향 전업무당, 작가, 예술가 - 고양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장애여성 창작 예술 모임 및 전시회 기획 운영 - 청년예술가네트워크 운영 - 대안청년단체 신촌대학교 사회예술학과, 서울아트학과 운영 - 춘천 여성주의 감성노리협동조합 인문학카페36.5° 운영 - 지은 책 『신령님이 보고 계셔』, 『붉은 선』, 『엄마는 인도에서 아난다라고 불렀다』, 『세상은 내가 이상하다고 한다』 등 |
| [초청강연]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 | - 녹색연합 활동가 - 재연결작업 워크숍 안내자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통문》 편집위원 - 노원우주학교 주말 과학해설사 | |

사.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포럼용 무대 설치(자체제작) - 무대 배경막 설치 - 사회자 1인, 패널 4명을 위한 테이블(자체제작) 및 의자5개 (111CM물품) 셋팅 - 테이블 위 마이크 5개, 탁상용 패널 이름표, 물, 컵 - 영상자료 송출을 위한 빔프로젝터&스크린 설치 | *무대셋팅은 14일진행 |
| 객석 | - 청중의자 40개(111CM물품) - 계단 방식 20개, 계단 위쪽 빈백 10개 | |
| 음향 | - 포럼 시작 10분전 BGM ON - 객석옆쪽으로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포럼 내용 기록을 위한 속기사 배치 및 녹취(추후 서면 기록) | *셋팅 및 녹취진행 대행업체 |
| 영상&사진 | - 포럼 전 과정 녹화 - 포럼 스케치 영상 & 사진촬영 | *재단계약 영상업체 |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
| 인력 | - 담당자 안혜영 - 진행인력 2명(담당자 업무를 보조 및 설문지 수거 등 담당) | *진행인력2명 대행업체 파견 |
| 기타 | - 출연자 도착시간 확인 및 대기공간(무대백월 뒤쪽) 안내 - 출연자용 인문도시주간 기념품(티셔츠, 에코백, 배지 등) - 다과 및 음료 준비 | |

아. 공간배치



자. 참가인원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1명(2명) | 5명 | 42명 | 25명 | 현장 참여자 10명 |

차.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 1) 포럼 이후 재연결작업 워크숍 진행하려다 보니, 연결 흐름이 맞지않아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이 해산되는 분위기여서, 워크숍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

카. 자체 홍보현황

- 1)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웹게시판 홍보
- 2) 수원 소재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및 기관 홍보
- 3) 수원 시민 네트워크 단톡방 홍보

타. 성과 및 보완점

인문도시주간에 '기후위기'뿐 아니라 개인의 '마음'과 '연결성'을 고민하는 포럼 주제는 시의적절했음. 밀도있고 철학적인 주제와 패널섭외에도 불구하고, 인문도시주간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포럼행사에 초점이 맞춰지기는 힘들었다는 한계가 있었음. 인문도시 주간은 프로그램별 참가 타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후 포럼 진행 시는 사전에 주제 관련 기관, 학교 등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법도 필요함.

특히 재연결작업 워크숍은 쉽게 만날 수 없는 특수 주제워크숍으로 대중적이지는 않으나, 관심있는 시민들이 있었음에도 포럼 장소인 열린공간에서 진행하기엔 적절하지 않았음. 재연결작업 워크숍은 수원 에서 별도로 진행해달라는 추가요청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별개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임

파. 현장 스케치



포럼, 컨퍼런스

월간문화포럼

; 문화도시, 너마저!

03

프로그램
포럼, 컨퍼런스

가. 일 시 : 10월 23일(일) 17:00~19:00(본 프로그램 후 리셉션)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지역 예술가, 문화인력, 시민들의 평등한 대화 테이블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진행중이며 그 중 10월, 인문도시주간에 진행되는 월간문화포럼은 기존의 포맷에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담당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꾸며지는 '문화도시, 너마저!'를 포럼 속 코너로 기획한다.

라. 진행방식

- 1)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는 포럼 속 코너로 인문도시주간 실무자, 실행그룹, 시민감독들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 2) 2부는 월간문화포럼 본 행사로 인문도시주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짐
- 3) 행사 종료후 참여자들 대상 리셉션
- 4) 홍보대상은 워킹그룹, 실무자, 시민감독 등 총 40~50명 예상
- 5) 구글폼 사전신청(<https://bit.ly/3y9QDoq>월간문화포럼)

마. 프로그램

사회 : 정현경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시간 | 시간 | 주제 | 내용 |
|-----------------------------------|-------------|------------------------------------|-------------------------|
| 1부. <문화도시 너마저> 토크쇼 (30분) | 17:00~17:05 | 05' | 오프닝 |
| | 17:05~17:25 | 25' | 진행자 및 패널 소개 |
| | 17:25~17:30 | 05' | 토크쇼 진행 |
| 2부. 월간문화포럼 (90분) | 17:30~17:40 | 10' | 플로어현장 질문 |
| | 17:30~17:40 | 10' | 관계 형성 |
| | 17:40~17:55 | 10' | 모듬별공통점 찾기, 역할 선정 |
| | 17:40~17:55 | 10' | before - 참여전 |
| | 17:55~18:20 | 25' | 내가 참여한 이유 참여 전 기대 사항 |
| | 17:55~18:20 | 25' | ing - 막상 해보니 |
| 18:20~18:40 | 20' | 내가 발견한 의미 재미 or 때려 치고 싶었던 순간 | |
| 18:20~18:40 | 20' | after - 앞으로 우리는 | |
| 18:40~19:00 | 20' | 각자 위치에서의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 | |
| | | | 공유 및 서로에 대한 질문 |

바.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포럼용 무대 설치(자체제작) - 무대 배경막 설치 | *무대셋팅은 14일진행 |
| 객석 | - 청중의자 40개(111CM물품) - 계단 방석 20개, 계단 위쪽 빈백 10개 | |
| 음향 | - 포럼 시작 10분전 BGM ON - 객석옆쪽으로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대행업체 셋팅 |
| 영상&사진 | -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 |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
| 인력 | - 담당자 코코코 최윤주 대표 | |

사. 공간배치



야. 참가인원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1명(2명) | 5명 | 50명 | 35명 | 현장 참여자 5명 |

자. 현장 스케치



시민, 민주주의 시민+광장 ; a.k.a 민주주의

04

프로그램
시민, 민주주의

가. 일 시 : 10월 22일(토) 11:00~17:00

나. 장 소 : 행궁동 차 없는 거리 일대(화령전 앞 메인무대, 후소, 경기서적 등)

다. 내 용

자동차의 속도와 편리를 빼낸 도로와 골목의 일상공간이 '광장'이었던 경험을 소환하고, 그 '광장'의 축제에서 만나고, 외치고, 묻고, 대화하고, 알아차리고, 궁금해진 지점에서 시민들의 일상은 변화하게 된다.

라. 진행방식

1) 활동가게, 같이가게

수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해 온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기관 14곳과 함께 수원과 동네 곳곳에서 펼쳐온 시민활동들을 전시하고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시민활동박람회. 화령전 앞마당에 설치되는 메인 무대 주변으로 단체별 플리마켓 나무부스 설치운영함.

2) 말하는 광장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7개 주제를 선정하고 시민발언자를 모집하여 메인무대에 설치된 마이크 앞에서 사회에, 이웃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유로이 발언함.

3) 시민, 생각하는 광장

돌봄의 시민성, 마을민주주의, 기후위기와 마을 등 총 4개의 주제로, 행궁동 차 없는 거리 곳곳(선경도서관, 후소 앞마당, 경기서적 앞마당, 경기전통의례연구원 총 4곳)에서 주제분야에 관심있는 시민과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 집담을 진행함.

4) 둘러앉는 광장

화령전 앞 메인무대에서 노래공연이 있는 거리강연을 진행함. 희망샘도서관 인문기획단이 기획하고 인문학자 김찬호 교수와 싱어송라이터 이매진을 초청하여 진행함.

5) 신청방법- 네이버폼 사전신청(<http://naver.me/xKNvx5N>)

마.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명 | 장소 | 내용 |
|-------------|-----------------------------|---|--|
| 11:00~17:00 | 〈시민활동박람회〉 활동가게, 같이가게 | 화령전 앞마당 | 시민활동 맛집 찾기 수원과 동네 곳곳의 다양한 시민활동을 진열대에 펼치고 소개합니다. 나의 관심과 지향을 따라가 만나보세요. |
| 11:00~12:30 | 〈시민발언대〉 말하는 광장 | 화령전 앞 메인무대 | 주목과 경청, 공감과 지지 평소 할 말 많았던 시민들의 자유발언대 입니다. |
| 13:00~15:00 | 〈지역운동포럼〉 시민, 생각하는 광장 | 경기전통의례연구원 경기서적 행궁점 열린문화공간 후소 선경도서관1층 강의실 | 행궁동 곳곳은 토론장! 수원과 우리 삶의 이슈를 놓고 토론하고 방법을 논의합니다. · 문화도시와 문화시민 · 상호의존적 돌봄을 상상한다 · 마을민주주의, 마을학교에서 길을 찾다 · 기후위기와 마을 ※ 포럼은 주제별로 장소가 다릅니다. 사전신청하고 안내받으세요. |
| 15:30~17:00 | 〈노래가 있는 거리강연〉 둘러앉는 광장 | 화령전 앞 메인무대 | 노래가 있는 거리강연! 민주주의의 연결과 환대는 이곳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요? 연결되고 환대하는 삶과 행복을 이야기해 볼까요. 강연.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공연. 싱어송라이터 이매진 |

바. 시민활동박람회 참여단체

| 시민활동박람회 〈활동가게, 같이가게〉 참가단체 | | |
|---------------------------|-------------------|----------|
| 순번 | 단체명 | 전기사용 물품 |
| 1 | 다산인권센터 | |
| 2 | 미얀마 민주화운동 수원행동 | |
| 3 |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 |
| 4 | 수원YWCA | |
| 5 |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 자체음향기기 |
| 6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 |
| 7 | 수원에너지협동조합 | |
| 8 | 활동가게, 같이가게 안내소 | |
| 9 |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 10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 |
| 11 |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 | |
| 12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 |
| 13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홍보영상 모니터 |
| 14 |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
| 15 | 인권교육 온다 | |

사. 출연자

| 구분 | 출연자 | 이전 활동 | 비고 |
|-----------------------------|-------------|---------------------|-------------------|
| 〈시민발언대〉 말하는 광장 | 딴전투 | 미안마 민주화운동 수원행동 활동가 | 미안마 민주화운동지지 발언 |
| | 김현숙 | 음악가, 전동휠체어이용시민 | 장애인 이동권 발언 |
| | 황동준 | 수원청년협의회 대표 | 청년으로 살아가기 발언 |
| | 유현민 | 페미니즘 실천가 | 페미니즘으로 세상 이해하기 |
| | 권영열 | 과거 노숙생활 시민 | 노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
| | 정일용 | 성공회 신부, 수원나눔의집 대표 | 노인빈곤의 문제 |
| | 김광원 | 행궁동주민 | 건강좋은 행궁동으로 전환 |
| 〈지역운동포럼〉 시민, 생각하는 광장 | 안은정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말하는 광장〉 진행 |
| | 김대준 | 김대준 한국회화작가진흥원 대표 | ‘문화시민과 문화도시’ 발제 |
| | 임철빈 | 독립영화감독 | ‘문화시민과 문화도시’ 토론 |
| | 윤세홍 |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 ‘문화시민과 문화도시’ 토론 |
| | 장미영 | 수원특례시의원 | ‘문화시민과 문화도시’ 토론 |
| | 전영순 |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 ‘상호의존적 돌봄’ 발제 |
| | 김희경 |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 ‘상호의존적 돌봄’ 토론 |
| | 이정수 | 수원여성회 사무국장 | ‘상호의존적 돌봄’ 토론 |
| | 박영철 | 수원KYC 대표 | ‘마을민주주의, 마을학교’ 발제 |
| | 전경숙 | 꿈소리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마을민주주의, 마을학교’ 좌장 |
| | 김봉수 | 남창초등학교 교장 | ‘마을민주주의, 마을학교’ 토론 |
| | 이상명 |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 ‘기후위기와 마을’ 발제 |
| | 박미정 |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박미정 | ‘기후위기와 마을’ 좌장 |
| | 구채윤 | 매탄동 환경동아리 하늘숲 대표 | ‘기후위기와 마을’ 토론 |
| 지영호 | 지동 그린웰리스 대표 | ‘기후위기와 마을’ 토론 | |
| 〈노래가 있는 거리강연〉 둘러앉는 광장 | 김경미 | 칠보마을6단지(와이시티) 마을활동가 | ‘기후위기와 마을’ 토론 |
| | 김찬호 |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 거리강연 |
| | 이매진(김빛나) | 싱어송라이터 | 공연 |
| | 년(최진원) | 연주자 | 공연 |
| | 오천석 | 희망샘도서관 인문기획단 활동가 | 둘러앉는광장 진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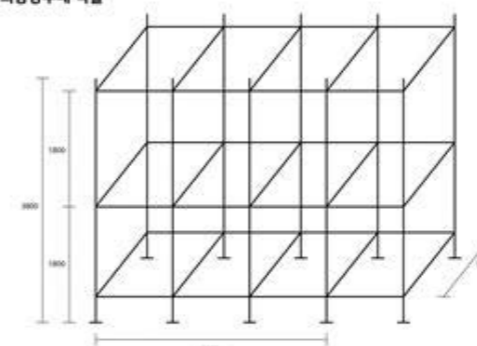
아.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화령전 앞 메인무대 설치(자체제작) - 무대 배경막 설치 | *무대셋팅 및 백월 설치 21일 |
| 객석 | - 객석용 휴게공간(파레트 등 자체제작) - 청중용 캠핑의자 50개 - 객석을 둘러싸는 형태로 플리마켓 나무부스 20개와 의자 40개 셋팅 | |
| 음향 | -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포럼 시작 10분전 BGM ON - 포럼 내용 기록을 위한 녹취 진행(추후 서면 기록) | *대행업체 셋팅 |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영상&사진 | - 시민광장 스케치 영상 및 사진촬영 | *재단계약 영상업체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플리마켓 나무부스용 현수막 설치 - 각 지역운동포럼 장소에 홍보물 설치 | |
| 인력 | - 담당자 김성연, 최보라 - 진행인력 2명(담당자 업무 보조) | *진행인력2명 대행업체 파견 |
| 기타 | - 휴게 및 출연자 대기 공간 확보(무대백월 뒤쪽) - 출연자 도착시간 확인 및 대기공간 안내 - 출연자용 인문도시주간 기념품(티셔츠, 에코백, 배지 등) | |

자. 공간배치

야외광장무대 백월



차. 참가인원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2명(2명) | 27명 | - | 7,000명 | . |

카.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 1) 애초 메인무대의 장소로 추진했던 수원제일교회 주차장 사용이 교회 측의 허가를 구하지 못하고 화령전 앞마당으로 변경하였다. 〈생각하는 광장〉의 포럼 진행장소로 섭외하던 행궁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장소사용을 꺼려하면서 다른 장소를 찾아야했다. 행궁동 마을행사의 빈번도로 인한 우려와 피로감에 기인한다고 본다. 행궁동 집중에 대한 관계기관과 주민 협력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 2) 시민활동박람회 <활동가게, 같이가게> 참가단체를 20곳으로 기획하였으나 14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화령전으로 장소가 확정되면서 공간규모를 고려하고, 계획에서 벗어나는 지출로 인한 예산 문제를 감안하여 더 많은 참여단체 확장을 유도하지 않았다.
- 3) <말하는광장> 시민발언자를 자유신청으로 계획하였으나 주제의 중복과 한정된 발언인원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하기 어려움으로, 7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활동가나 시민들에게 발언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 4) 네이버폼 사전을 계획하고 안내하였으나 행사 특성상 시민참여에 있어 사전 신청 절차가 특별히 의미 있지 않았다.

타. 자체 홍보현황

- 1) 온라인 맘카페 게시
- 2)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포스터 게시 및 리플릿 배포
- 3) <활동가게> 참여단체 회원 홍보 요청
- 4) 희망샘도서관 이용자 홍보
- 5) 실행그룹 SNS 홍보

파. 성과 및 보완점

- 1) 행사장소로서 수원제일교회 주차장을 대체한 화령전 앞마당은 아늑한 공간분위기를 만들어낸 장점이 있었다. 화서문로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야하는 위치성은 거리에서 분리되어지는 지점이 우려되었지만 무대와 나무부스, 파레트 설치물과 캠핑의자 배치 등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유도해내었지만 보행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 2) <활동가게, 같이가게> 참여단체들은 플리마켓의 형식을 차용하여 각 단체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펼쳐 보이는 의미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행궁동을 넘어 마을로 들어가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말하는광장>, <둘러앉는광장> 등 메인무대의 진행 내용도 매우 좋았는데 부스 위치에 따라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행사장 구성이 예쁘고 아늑한 장점과 햇빛 차단이 불가한 단점이 동반되는 지점이 있었다.
- 3) <말하는광장>의 발언자 각자의 내용들이 매우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7개 분야 중 일부는 발언자를 찾는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노숙생활시민이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의미있게 전달되었지만 현장에서 휘발되지 않고 문제의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록된 영상과 녹취가 아카이빙되어 공개되는 후속 과정이 필요하다.
- 4) 4개 섹션의 포럼이 각처에서 진행되었던 <시민, 생각하는광장>은 계획 시기부터 일반 시민들의 선택과 참여도가 우려되었던 바이다. 결과적으로도 일반 시민의 참여가 높지 않았지만, 문화도시·민주주의·돌봄·기후위기의 우리 사회 주요 의제들을 고민하는 단위들이 계획하여 토론하고 생각과 이후 활동을 이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기록물이 남겨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5) 희망샘도서관 인문기획단 활동시민들이 기획한 <둘러앉는광장>은 김찬호 인문학자와 희망샘도서관 시민이 대담하며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고 환대하며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면서 시민+광장의 의미와 주제를 마무리하며 주민선언과 행진과의 연결의 역할을 하였다.
- 6) 시민+광장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희망샘도서관 인문기획단의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시민운동이 축제의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은 적게 잡아도 4개월 이상의 기간에 논의와 점검의 추진과정이 있었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의 비전을 실현해 가는데 이러한 다양한 결합과 협력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성격이 다른 주체들의 협력은 늘 어려웠다. 인내가 요구되고 헌신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어렵지만 결합의 시도가 계속되고 경험이 쌓여야 잘할 수 있다.
- 7) 행사 당일 진행과정에서 음향담당자가 다른 상황까지 관리·수행하느라 정작 필요한 순간에 부재하였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느라 실행팀이 예정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담

당업체 역시 역할의 중첩으로 인한 난관과 스트레스가 있었고 실행팀에게 전가되어졌다. 분야별로 별도의 전담업체가 선정되어 역할이 분산되어야 한다.

- 8) 행사 현장의 성과들이 후속작업으로 인문도시의 의미를 이어내고 재생산되어야 하겠다. 시민발언의 영상, 토론내용의 기록, 거리강연의 메시지가 정리되어 회자되고 활동이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설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하. 현장 스케치



시민활동박람회 <활동가게, 같이가게>

시민발언대 <말하는 광장>



시민발언대 <말하는 광장>
열린문화공간 '후소'

지역운동포럼 <시민, 생각하는 광장>
경기전통의례연구원

05

프로그램
시민, 민주주의

N개의 실행그룹

시민, 민주주의 안녕 행궁동 : 걷자 행궁동



지역운동포럼 <시민, 생각하는 광장>
경기서적

지역운동포럼 <시민, 생각하는 광장>
선경도서관 1층 강의실



거리강연과 작은공연 <돌러앉는 광장>

가. 일 시 : 10월 22일(토) 10:00~18:00

나. 장 소 : 행궁동 차 없는 거리 일대(신풍로)

다. 내 용

역사문화와 자연환경, 골목 문화가 어우러진 행궁동을 '걷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내년 생태교통사업 10주년을 앞두고, 행궁동 주민들이 '걷기 좋은 행궁동'을 마을 비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논의하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오는 10월 22일, 인문도시주간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행궁동에서 놀고, 배우고, 쉬며 온전한 생태 마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라. 진행방식

- 1) 차 없는 거리
 - 가) 10:00~18:00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하며 행궁동 주민과 방법기동순찰대원들이 차량 통제 예정
 - 나) 차량통제 예정도로 - 신풍로로터리부터 고가커피사거리
 - 다) 참가방식 : 현장에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2) 기타
 - 가) 차 없는 거리 전체에서 행사가 진행되므로 '걷기좋은행궁마을네트워크' 운영팀을 통해 행궁동 주민과 파견진행인력 간의 역할 분담 세분화하기
 - 나) 차량 통제를 위한 인력배치 및 물품 배포

마. 프로그램

- 1) 거리는 공부다
 - 가) 분필 바닥화 '함께 그리는 멸종위기동물' / 11:00~16:30 신풍로'더그림ing' 작가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바닥화를 그림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며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기억해보아요.
 - 나) 문장 사이를 걷다 / 11:00~17:30 신풍로차 없는 거리에서 띄우는 뜻 있는 문장들, 찬찬히 읽어보며 걸어요.
- 다) 길거리 강연
 - 강연1 - <지금 세계 도시들의 실험> / 15:30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강사 :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
 - 강연2 - <마을이 학교다> / 16:00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강사 : 김봉수 남창초등학교장

2) 거리는 놀이다

- 가) 퍼포먼스 : 진격의 거인_지구의 분노 / 14:00, 15:00(15분씩) 신풍로3.5 미터 높이의 거대한 나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픈 지구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보세요.
▷ 극단 '우체통' 퍼포먼스
- 나) 폴짝폴짝 : 추억의 놀이터 / 14:00~16:40 신풍로 제일감리교회 앞차가 사라진 도로에서 놀아요. '영화마을전래놀이맘'이 운영하는 추억의 놀이마당
- 다) 골목마켓 & 거리버스킹 / 13:00~17:00 신풍초 후문, 마을문고 마당행궁동 주민들과 소품 창작자들이 여는 골목마켓('행궁동골목장단' 연계사업)
▷ 어린이책 무료나눔(남창초)* 거리버스킹 공연도 곁들여집니다.
- 라) 마을극장 '행궁픽처스' / 11:00~17:30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쉼터행궁동을 배경으로 마을 주민, 남창초 아이들이 출연한 서툰고 웃기고 따뜻한 작은 영화들, 행궁동에 사는 배우 서승원감독이 만든 마을영화 상영

3) 거리는 광장이다

- 가) 남창초 아이들과 함께 깃발 만들기 / 14:00~16:00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마당건기 좋은 행궁동, 건강한 지구를 위한 바람을 담은 깃발과 종이피켓 만들기
- 나)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 16:50~17:30 신풍로건기 좋은 마을, 행궁동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전하며, 다함께 동네 한바퀴 행진
 - 타악그룹 '블레블레' 공연 / 17:00 화령전 앞마당 메인무대
 - 다음 세대를 위한 행동, '기후 위기송' 배우기
 - '기후 위기송' 퍼포먼스 & 다함께 동네 한바퀴 행진

타악그룹 '블레블레'는?

당신과 우주의 행복을 찾아떠난다! 블레블레
 블레블레는 아프로-브라질리언 타악을 매개로 활동하는 예술단체입니다.
 리듬을 통해 하나되는 즐거움을 나누는 타악기 워크숍, 신화와 상징을 기반으로 한 거리예술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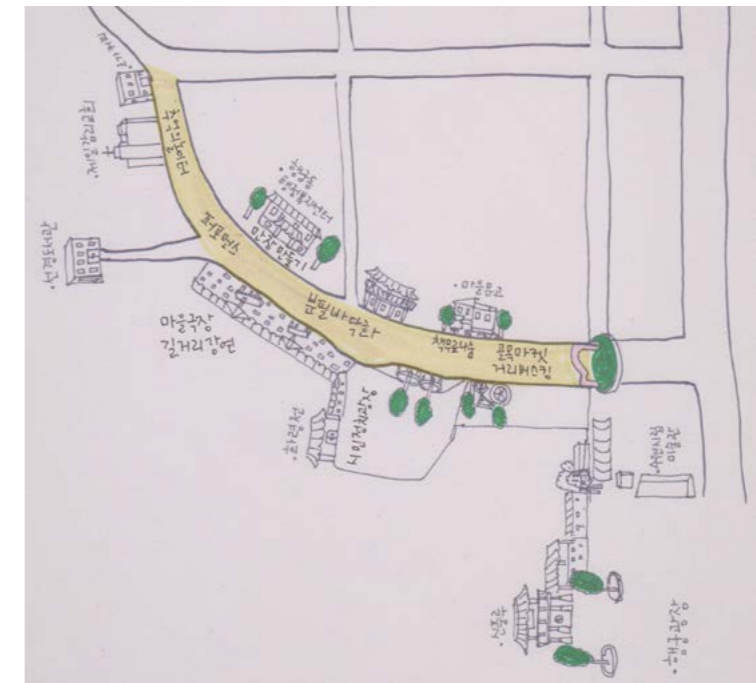


아.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차량통제 | - 10:00~18:00 차량통제 시간 - 18:00 정각에 차량통행 시작되므로 늦어도 17:30분까지 행사종료 및 정리, 철거 - 차량통제 인원 휴게용 파라솔 5개, 의자 12개 세팅 - 차량 통제 시작, 중간, 끝 지점에 차량통제용 A보드 총 3~4개 설치 | |
| 휴게공간 (쉼터) | -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총 2~3곳 조성하며 파레트 등 자체제작 물품 및 파라솔 세트를 나누어 배치(자체제작 쉼터 구성에 따라 파라솔 세트 가감할 수 있음) | |
| 음향 | - 음향기기는 실행그룹 자체기기 사용 | |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영상 | - 마을극장 <행궁픽처스> 상영장소(행궁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쉼터)에 55"TV 1개 설치 - 행사 스케치를 위한 영상촬영 | *대행업체 셋팅 *재단계약 영상업체 촬영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차 없는 거리 초입에 행사장 종합안내도 1~2개 설치 | |
| 인력 | - 담당자 노영란, 김광원 - 파견인력 2명(담당자 업무를 보조하며 차량통제, 진행 등 담당) - 차량통제 및 행사진행 인력 행궁동 주민 40명, 방범기동순찰대 역할 분담 내용 확인 | *진행인력2명 대행업체 파견 |
| 기타 | - 출연자 및 남창초 참가자용 인문도시주간 기념품(티셔츠, 에코백, 배지 등) | |

자. 공간배치



아. 참가인원(참여단체)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5명(10명) | 5명 | - | 7,000명 | . |

자.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1) 차없는거리 구간 변경

당초 신풍동, 장안동 주요 도로인 신풍로와 화서문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했다. 이런 내용을 행궁동행정복지센터(이하 행궁동)와 주민자치회 생태교통분과와 협의했고, 차없는 거리 행사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주민그룹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후 생태교통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9월에 행궁동에 인사이동이 있어 담당자가 바뀌었고, 10월초 미팅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등 많은 행사가 있어 차없는 거리 행사까지 행궁동의 적극적 협조가 어렵다고 했다.
 행사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행정의 입장 변화로, 행정의 협조 없이 주민들만으로 양 구간에 차량 통제를 하고 거리행사를 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무리라고 판단해 부득이 행사구간을 축소하게 됐다.

차. 자체 홍보현황

- 1) 차량통제 및 행사안내 전단지 제작, 배포
 - 행사가 진행되는 신평동을 중심으로 가가호호, 주차차량에 전단지 배포
 - 주요 골목에 전단지 부착
- 2) 상가들 방문해 행사 안내
 - 행사구간에 있는 상가들 방문해 전단지 배포 및 행사 안내하며 협조요청
- 3) 현수막 제작 부착
 - 정조로 등 주요 도로 및 마을 진입 입구에 차량통제 및 행사안내 현수막 부착
- 4) 차량통제 관련
 - 행궁동 주민자치위원이자 그동안 행궁동에서 차없는 거리 행사시 차량통제 총괄했던 조병삼씨를 섭외해, 차량통제 전반에 관한 협의
 -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 차량통제 참여할 주민 조직 요청하고, 참여주민 연락 및 교육

카. 성과 및 보완점

첫째, 차없는 거리 행사의 취지를 잘 살린 기획이었다. 주말 자동차가 점령한 거리를 비워 사람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길을 걷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부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그 대신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문장과 멸종위기동물 거리바닥화를 통해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삶을 잠시라도 되돌아볼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차 없는 도로에서 분필로 낙서하고, 전래놀이를 하면서 도로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둘째,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는 기획이었다. 남창초 아이들과 사전워크숍 및 행사 당일 제작한 깃발로 거리 행진에 함께하고, 김봉수교장선생님의 길거리 강연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여한 아이들은 행사가 끝난 후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차 없는 거리를 주말마다 운영해야 한다”, “전교생이 모두 도로에 나와 야외수업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행궁동은 걸어서’라는 마을의 비전과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학교를 오가는 길이고, 관광객들과 주차된 차들로 골목이 점점 좁아드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골목에서 뛰어노는 일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향후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행궁동은 걸어서’라는 마을비전을 추진할 때 학교와의 연계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셋째, 마을주민들이 ‘행궁동은 걸어서’라는 마을 비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됐다. ‘걷기좋은행궁마을’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행궁동 주민 30여 명이 참여해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관광객의 급증으로 마을 내 주요 도로와 골목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2013생태교마을의 취지를 살리고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그동안 걷기 좋은 행궁동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오던 차에 이번 인문도시주간에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참여하게 됐다. 마을주민의 첫 번째 실천행동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평가모임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걷기 좋은 거리를 운영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컸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민 간의 유대감이 높아졌고, 걷기 좋은 행궁동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네트워크는 지난 11월20일, 식당에서 버리는 기름 쓰레기로 오염된 도로를 자발적으로 청소했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걷기 좋은 행궁동을 만들기 위한 일이기에, 주민들이 모여 두 번째 실천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보완점>

- 1) 택배차량(오토바이 포함) 운영 방안

차없는거리 운영에서 가장 큰 난관은 택배차량(오토바이 포함)의 진입이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택배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도록 유도했으나, 차없는 거리 운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었다. 특히 차 없는 거리에서 오토바이는 속력을 내 질주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때 택배차량의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택배물품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리어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마을주민들이 배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다양한 주민그룹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 및 정기적인 차없는거리 행사 운영

걷기좋은 행궁동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상인회, 마을 주민 등 다양한 주민그룹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행궁동은 걸어서’라는 마을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조율하는 일상적인 협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협의체를 통해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정기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타. 현장 스케치



책, 시, 인문학

9일간의 책 여행
; 자그마한 초대,
조금 더 듣고 싶은 이야기

06

프로그램
책, 시, 인문학

가. 일 시 : 10월 15일(토) ~ 23일(일)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수원 시내 책방 18곳

다. 내 용

시민들이 수원 곳곳에서 책 문화를 일구는 공간인 작은 책방을 탐방하며 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책방들이 인문도시주간의 지역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문도시 주간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 수원의 작가를 강사, 사회자로 초빙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라. 프로그램

1) 인문도시주간 북 토크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할 사람>

가) 1차 북 토크 10.18.(화) 11:00~12:30 111CM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 무루 박서영 x 작가 한미화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의 작가 무루 박서영과 작가 한미화가 책 속 이야기를 나누는 무대

나) 2차 북 토크 10.20.(목) 11:00~12:30 111CM

<각별한 당신 : 자기답게 살아온 사람들> / 김종철 x 신순애 x 이동현

인문도시주간 참여 책방이자 '9일간의 책 여행' 실행그룹 마그앤그래의 이소영 대표를 사회자로 하여 '각별한 당신'의 작가 김종철 작가에게 듣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진행되며 후반부는 김종철 작가가 책 속 인물들과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됨

2) 책방에서 만나는 인문도시

가) 인문도시를 담은 블라인드 북 판매(10.15.~10.23.)

- 책방 18곳 각각의 개성이 담긴 책과 선물

나) 책방 독서모임 : 책방 5곳에서 열리는 정겨운 모임

- 10.15(토) 11:00~13:00 책과 : 독서광이 너무해(이덕무와 그 후예들)

- 10.16(일) 11:00 아뮤컨셉 : 상호작용(相互作用)

- 10.16(일) 19:00~21:00 낮설여관 : 책 자랑회 <나를 안아준 문장들>

- 10.20(목) 19:30~21:00 오평 : 가을의 독서모임

- 10.21(금) 19:00~21:00 책방마음이음 : 나의 인생책

다) 책방 북토크 : 책방 2곳에서 진행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

- 10.22.(토) 17:00~19:00 / 그런의미에서

gaga77page가 쓰고 있는 5년 동안의 페이지들

- 10.14.(금) 19:00~21:00 / 서른책방

나의 포근한 아현동 / 박지현 작가와의 만남

라) 참여 책방 18곳

광화문서림 / 구름산책 / 그런의미에서 / 글은서점 / 낮설여관 / 담해복스 / 랄랄라하우스 / 마그

앤그래 / 서른책방 / 아뮤컨셉 / 아티스트웨이 / 여름서가 / 오평 / 책먹는돼지 / 책방마음이음 /

책과 / 청명book로 / 탐조책방

@ 책방에서 열리는 독서모임, 북토크는 해당 책방에 참가 신청

마. 진행방식

1) 사전 준비사항

- 각 책방에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매대용 폼보드 사인물, 블라인드 북 포장용 에코백 180개 (서점 1개당 10개 총 18곳) 배포

2) 신청방법

- 각 책방별 행사(독서모임, 책방 북토크)는 해당 책방에 직접 참가신청

- 인문도시주간 공식 북토크(1차, 2차)는 구글폼을 통해 사전신청

https://bit.ly/9일간의책여행_북토크

바. 현장운영

1) 1차 북토크 - 10월 18일(화) 11:00~12:30(90분간)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포럼무대 그대로 사용 - 무대 배경막 설치 - 진행자 1명, 패널 1명을 위한 테이블(자체제작) 및 1인용 소파 2개(대행업체) 셋팅 - 테이블 위 마이크 2개, 탁상용 패널 이름표, 물, 컵, 관련도서 1권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 *무대 및 테이블 셋팅은 포럼의 기본 셋팅 유지 |
| 객석 | - 청중의자 40개(111CM물품) - 계단 방석 20개, 계단 위쪽 빈백 10여개 | |
| 음향 | - 객석옆쪽으로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북 토크 시작 10분전 BGM ON | *대행업체 셋팅 |
| 영상 | - 인문도시주간 전체 스케치를 위한 촬영 | *재단계약 영상업체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
| 인력 | - 담당자 이소영(마그앤그래 대표) - 진행인력 2명(담당자 업무 보조 등) | |
| 기타 | - 출연자 도착시간 확인 및 대기공간 안내 - 대기공간 내 다과 및 음료 준비 - 출연자를 위한 인문도시주간 기념품(티셔츠, 에코백, 배지 등) - 북 토크 후 도서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판매코너 운영(마그앤그래) | |

2) 2차 북토크 - 10월 20일(목) 11:00~12:30(90분간)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포럼무대 그대로 사용 - 무대 배경막 설치 - 사회자 1명, 진행자 1명, 패널 1명을 위한 테이블(자체제작) 및 1인용 소파 3개 (대행업체) 셋팅 - 테이블 위 마이크 3개, 탁상용 패널 이름표, 물, 컵, 관련도서 1권(각별한 당신) | *무대 및 테이블 셋팅은 포럼의 기본 셋팅 유지 |
| 객석 | - 청중의자 40개(111CM물품) - 계단 방석 20개, 계단 위쪽 빈백 10여개 | |
| 음향 | - 객석옆쪽으로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북 토크 시작 10분전 BGM ON | *대행업체 셋팅 |
| 영상 | - 인문도시주간 전체 스케치를 위한 촬영 | *재단계약 영상업체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
| 인력 | - 담당자 이소영(마그앤그레 대표) - 진행인력 2명(담당자 업무 보조 등) | |
| 기타 | - 출연자 도착시간 확인 및 대기공간 안내 - 축제라운지 내 다과 및 음료 준비 - 출연자를 위한 인문도시주간 기념품(티셔츠, 에코백, 배지 등) - 북 토크 후 도서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판매코너 운영 (진행 마그앤그레) | |

사. 공간배치



아. 참가인원

- 인문도시주간 북 토크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1명(2명) | 4명 | 85명 | 60명 | . |

- 동네책방 북토크 & 독서모임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7명 | 2명 | 45명 | 41명 | . |

자.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 1) 인문도시주간 북토크 : 2차 북토크 패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 2) 동네책방 독서모임 시간 변경 (책래)

차. 자체 홍보현황

- 1) 기획자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한 홍보
- 2) 초대 작가, 사회자 등 출연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 3) 18개 책방 방문자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카. 성과 및 보완점

18개 동네책방이 참가해 함께 인문도시주간을 홍보하고 고객에게 알리는 행사 주체로 참여한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책방별로 열린 독서모임, 저자 초청 행사의 경우 모집이 책방별로 이뤄지고 자세한 행사 내용 등이 공유되지 않아 해당 책방만의 행사로 국한된 점, 전체 참여 책방 18곳 중 7곳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아쉽다. 도서관, 학교도서관, 중대형 서점 등 책을 다루는 문화공간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111CM에서 열린 북토크는 주차 등 행사 장소 방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대안이 필요했다. 북토크가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경험을 공유한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타. 현장 스케치



책, 시, 인문학

문화도시의 밤

수원시민 창작시집 출간기념회

07

프로그램
책, 시, 인문학

가. 일 시 : 10월 15일(토) 17:30~19:0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인문도시주간을 기념하며 수원시민 창작시 공모(7월15일~8월15일)를 통해 선정된 80여편의 시를 모은 '수원시민 창작시집'(가칭)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로 시 당선자, 가족, 수원시민이 함께하며 전문 배우의 시 낭송과 작은 공연을 즐기는 자리이다.

라. 진행방식

- 1) 시 공모 당선자 입장순으로 자리 안내 및 기념품 배부(참석여부 사전확인)
- 2) 착석 완료되면 사회자(정수자(시인))의 진행으로 오프닝 멘트 및 참석자 소개
- 3) 시 공모 심사위원 박설희 시인의 심사평과 축시 낭송 여는 글
- 4) 사회자의 진행으로 참가자 중 4명을 선정하여 시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 토크 진행 (토크 참가자 사전선정)
- 5) 인문도시주간 홍보 및 마무리글로 종료
- 6) 당선자 참석여부 전화확인. 참석자는 현장에서 시집 및 기념품 수령하며 미참석자는 인문도시주간 기간중 111CM 방문수령(인문도시주간 종료 후 수령은 재단방문 및 우편발송)
- 7) 당선자 온라인 초대장 발송(https://bit.ly/문화도시의밤_참가신청)

마. 타임테이블

| 시간 | 장소 | 내용 |
|-------------|-------------|------------------------|
| 17:30~17:45 | 오프닝 | 사회. 정수자(시인) |
| | 심사평 및 축시 낭독 | 시인 박설희 |
| 17:45~17:55 | 시 낭송 1인극 | 배우 고병택 |
| | 시 낭독 I | 시 당선자 2인 |
| 17:55~18:20 | 시 이야기 | 사회. 정수자(시인) with시당선자4인 |
| 18:20~18:30 | 시 낭송 1인극 | 배우 고병택 |
| | 시 낭독 II | 시 당선자 2인 |
| 18:30~18:45 | 거문고 연주 | 연주 박천경 |
| 18:45~19:00 | 클로징 | 사회. 정수자(시인) |

* 프로그램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바.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포럼무대 그대로 사용 - 무대 배경막 설치 - 진행자 1명, 심사위원 1명, 시토크를 위한 의자(대행업체) 셋팅 - 시 토크용 마이크 5개 - 연주자용 마이크 2개(마이크 스탠드 1개) - 시 낭송 배우용 핀 마이크 | *무대 셋팅은 포럼의 기본셋팅 유지 *무대 의자 개수는 출연자 인원 에 따라 조정 |
| 객석 | - 청중의자 40개(111CM물품) - 계단 방석 20개, 계단 위쪽 빈백 10여개 | *의자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대행업체 의자 추가 확보 |
| 음향 | - 객석옆쪽으로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출간기념회 시작 10분전 BGM ON | *대행업체 셋팅 |
| 영상 | - 인문도시주간 전체 스케치를 위한 촬영 | *재단계약 영상업체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
| 인력 | - 담당자 김인 - 진행인력 2명(담당자 업무 보조 등) | |
| 기타 | - 출연자 도착시간 확인 및 대기공간 안내 - 축제라운지 내 다과 및 음료 준비 | |

사. 공간배치



아. 참가인원

- 인문도시주간 북 토크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2명(2명) | 12명 | 135명 | 200명 | |

자.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기획단계에선 당선자들 몇몇의 시낭독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으나 다양한 계층의 당선자와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다른 관심있는 시민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공연장이 거의 가득차 환호와 함께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 자체 홍보현황

- 1) 수원시민 창작시 공모전의 홍보는 SNS와 교육청 및 수원시 공공기관 및 시설에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여 홍보하였음
- 2) 문화도시의 밤 행사는 공모 당선자와 인문도시주간 주요 홍보활동과 함께 진행하였음

카. 성과 및 보완점

- 1) 창작시 공모 당시에도 과연 많은 분들이 작품응모에 참여할까 의구심에 걱정이 많았고, 의외로 응모 기간이 다소 짧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2) 문화도시의 밤 행사는 주차장의 협소함과 개관한지 얼마 안된 111CM이어서 장소 접근성이 힘들었으나 당선자들의 행사참여도가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사전신청에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가 신청하였다. 직접 무대에 올라와 낭독행사에 참여한 당선자들 역시 불편해하기보다 인문도시주간 문화도시의 밤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행사진행에 부딪힘이 느껴졌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기획된다면, 시공간의 제약이 조금 해결되어 더 많은 당선자들의 시낭독을 감상할 수 있었다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을까싶다.

타. 현장 스케치



N개의 실행그룹

문화다양성

영화로운 시네마
: 잃어버린 마음을 깨우다

가. 일 시 : 10월 17일(월) ~ 10월 20일(목) 19:00~21:30

*영화 러닝타임에 따라 마치는 시간 달라짐

나. 장 소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과 1관 Theater

다. 내 용

“세상의 암흑이 얼마나 클지라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빛을 찾아야만 한다”


- 스탠리 큐브릭(영화감독)전쟁으로 일상이 무너진 우크라이나, 0.3평 철창에 스스로 몸을 가두며 농성을 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 생활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일가족 등, 뉴스 헤드라인만 살펴도 세상은 이미 암흑이다. 이런 암흑 가운데 '영화'는 과연 어떻게 각자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인문도시주간에 마련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시네마'는 전쟁, 폭력, 차별, 빈곤, 혐오 등 암울한 시대를 비추는 영화에 주목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떠올린다. 연민, 사랑, 우정, 동심, 환대 등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이 마음을 깨우는 영화, 주제에 대한 해석을 담은 인문 강연, 여기에 일상에서 길어 올린 시민의 질문이 더해지는 깊이 있고 색다른 영화 체험의 장을 연다.


라. 진행방식


- 1) 4일간 1일 1편의 영화를 관람하고 관련 강연과 주제관련 책 큐레이션 전시가 진행됨
- 2) 신청방법 : 구글폼 사전예약(<https://bit.ly/영화로운시네마>)을 통해 1일 30명 내외의 관람객 사전신청

마. 상영작 및 게스트

| #여성 #노동 #빈곤 #돌봄 | | | |
|-----------------|---|--|-------------------------|
| 날짜 | 영화 | 정보 | 게스트 |
| 10/17 (월) |  풀타임 (Full Time) | 에리크그라벨 프랑스 2021 드라마, 스릴러 87분 홀로 두 아이를 기르는 칠리는 파리 시내의 호텔 룸메이드로 일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인 교통 파업이 발생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자 일상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위기에 처한다. 싱글맘의 전쟁 같은 삶에 과연 평화와 여유가 찾아올까? | 정희진 (융합연구자, 여성학자) |

| #어린이 #동심 #가족 #사랑 | | | |
|------------------|---|--|---------------------|
| 날짜 | 영화 | 정보 | 게스트 |
| 10/18 (화) | <p>컴온컴온 (C'mon C'mon)</p>  | <p>마이크밀시 미국 2022 드라마 109분27초 12세이상관람가</p> <p>어린이의 삶과 미래에 대해 인터뷰하는 라디오 저널리스트 조니. 어머니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 등 돌리고 살던 여동생 비브의 부탁으로 육아 난이도 극상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8살 조카 제시를 돌보게 된다.</p> | <p>이다혜 (씨네21기자)</p> |

| #청소년 #성장 #우정 #애뜻함 | | | |
|-------------------|--|---|------------------------|
| 날짜 | 영화 | 정보 | 게스트 |
| 10/19 (수) | <p>종착역 (Short Vacation)</p>  | <p>권민표, 서한솔 한국 2021 예술, 독립영화 79분 전체관람가</p> <p>사진 동아리 '빛나리' 부원인 시연, 연우, 소정, 송희는 '세상의 끝'을 찍어 오라는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신창역으로 향한다. 웃음이 끊이지 않던 친구들은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 여정에 점점 지쳐가고, 낯선 곳에서 14살 첫 여름방학을 마주하게 된다.</p> | <p>권민표, 서한솔 (공동연출)</p> |

| #전쟁 #폭력 #난민 #평화 #연대 | | | |
|---------------------|--|---|----------------------------|
| 날짜 | 영화 | 정보 | 게스트 |
| 10/17 (월) | <p>사마에게 (For Sama)</p>  | <p>와드 알-카팁, 에드워드 와츠 영국 2019 다큐멘터리 95분 43초 15세이상관람가</p> <p>시리아 내전을 취재한 2019년 작 다큐멘터리 영화로 시리아인 시민기자 와드 알카팁(가명)이 내전 중 알레포에서 벌어진 5년간의 일을 촬영하여 기록한 작품이다. 시리아의 참상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p> | <p>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p> |

바.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1관 Theater 무대사용(별도설치X) - 무대물품 셋팅(담당자 확인) - 테이블 위 마이크, 물, 컵 | |
| 객석 |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 |
| 음향 |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 |
| 영상 | - 인문도시주간 전체 스케치를 위한 촬영 | *재단계약 영상업체 |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홍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X배너 비치 - 나침반 별도 제작 포스터, 리플렛, 클립펜(기념품) | |
|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신연정(문화기획단 나침반 대표) - 진행인력 7명(담당자 업무를 보조 및 설문지 수거 등 담당) | *나침반 자체인력 활용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도착시간 확인 및 대기공간 안내 - 다과 및 음료 준비 | |

사. 참가인원

- 인문도시주간 북 토크

| 실행그룹(진행)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7명 | 5명 | 158명 | 138명 | . |

아.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4회차 영화와 게스트 모두 계획대로 변경 없이 수급과 섭외가 이뤄졌다. 다만 관객의 피로도를 예상하지 못했다. 4일 연속 야간 상영으로, 3,4 회차의 경우 노쇼 관객이 많아 아쉬웠다.

자. 자체 홍보현황

1) 포스터와 리플렛을 자체 제작하고, 수원 시내 도서관에 홍보물을 비치했으며, 개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통해 온라인 홍보 진행함

| 포스터 | 리플렛 |
|---|---|
|  |  |
| 도서관 비치한 홍보물 | 온라인(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  |  |

09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차. 성과 및 보완점

우리나라 독립예술영화(종착역)를 포함한 적절한 주제의 영화와 게스트 구성으로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인문 실천의 장이 되었다.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는 영화 상영 문화 사례로 의미 있는 실험이었으며,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시민기획단 나침반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컸다. 수원시외국어 마을의 Theater 공간을 주로 학령기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습의 장에서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영화 상영 공간으로 확장했다. 4회 연속 야간 상영 방식은 참여 시민의 피로도를 감안, 회차와 상영 시간을 조정하고 GV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카. 현장 스케치



N개의 실행그룹

문화다양성 with YOU, with ME : 어서 모여라! 작은 지구마을로!

가. 일 시 : 10월 22일(토) 12:00~17:00

나. 장 소 : 문화상회 다담

다. 내 용

수원은 외국인 거점도시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많지만,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수원에서도 다양한 여가와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수원은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한국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성의 허브이기도 하다. 이에 인문도시주간을 통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와 공존의 마음을 키우고자 한다.

라. 진행방식

- 1) 놀이마당 & 전시
 - 다른 나라에서 즐겨 노는 놀이를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
 - 다양한 나라의 볼거리와 이슈들을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현재 세계의 상황을 공유하며 글로벌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 토크쇼 & 세계 먹거리 체험
 - 수원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들어보고 토크쇼와 함께 각 나라의 전통음식도 체험
- 3) 참여방법 : 토크쇼는 사전신청으로 참가자 모집(<https://naver.me/5UGgrSVC>)하며 다른 프로그램은 자유로이 현장에서 참여가능

마.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객석 | - 별도의 무대와 객석 설치없이 카페 다담 내외부 공간 자유로이 사용 - 테이블 위 마이크, 물, 컵 | |
| 전시 | - 전시용 이젤 10개 셋팅 | *대행업체 셋팅 |
| 음향 | - 토크쇼용 이동용 소형 음향기기 설치(이주민센터 자체음향기기 사용) | |
| 영상 | - 인문도시주간 전체 스케치를 위한 촬영 | *재단계약 영상업체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
| 인력 | - 다문화 자제 제작 리플렛 비치 | |
| 기타 | - 담당자 킨 메이타(수원이주민센터) | |

바. 참가인원

- 인문도시주간 북 토크

| 실행그룹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1명 | 5명 | 17명 | 토크쇼 38명 음식&놀이체험 80명 | *실행그룹 외 각 나라별 참가자가 행사 진행 담당 |

사.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 1) 놀이 체험 공간 부족으로 홍보의 제한이 있었으며 체험의 기회가 적었음
- 2) 처음 경험이라 활동 담당자 간의 소통과 업무 역할이 미흡해서 진행에 영향을 줬으나, 문제가 생길 때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아. 자체 홍보현황

- 1) 홈페이지, 페이스북, 단체 토크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유함.
- 2) 사전홍보와 함께 행사 당일 직·간접 홍보로 지역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음.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장소가 협소하여, 더 많은 시민이 토크쇼에 참여할 수 없었음.

자. 성과 및 보완점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삶을 이야기형식의 토크쇼 진행으로 시민들이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주민들이 본인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수원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지구마을 맛집투어'인 다양한 나라의 음식체험을 통해서도 계획대비 많은 이주민의 참가 신청으로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다.

선주민 중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한 분이 음식이 맛있다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가 수원시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은 이주민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는데, 축제를 통해 이주민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사를 해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다양한 나라의 전통 놀이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놀이 방법을 물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행사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했음에도 동행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전통놀이 참여와 상품으로 준비한 다양한 나라의 과자를 맛보면서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홍보과정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가 없이 자체 TF 구성으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였기에 잘 끌어갈 수 있었으며, 실행과정 동안 메네징(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행궁동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차량이 통제되면서 차량들이 행사장소(문화상회 다담) 앞으로 우회하면서 차량 흐름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야외에서 진행하는 전통놀이를 차량을 피해야 하며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행사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었지만,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넓은 장소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를 만들고 싶다.

차. 현장 스케치



세대, 예술 책 놀이터 ; 책이라는 숲

_ 책을 보고, 책으로 놀고, 책과 함께 쉬며

10

프로그램
세대, 예술

가. 일 시 : 10월 15일(토) ~ 10월 22일(토) 10:00~18:00

*10월17일(월) 휴관. 책 놀이터 운영시간은 111CM 운영시간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2022년 문화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을 자축하며, 오랜 시간 축적해온 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에 근간하는 수원 시민의 책사랑이 건강한 일상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어 특례시 수원에 대한 자부심, 되찾은 일상에 대한 기쁨과 연결 지어 '책을 보고, 책으로 놀고, 책과 함께 쉬며' 가족과 이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화 힐링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특히 인문도시주간에 놀이와 책을 다양하게 접목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한다.

책이라는 숲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책전시 및 책을 통한 힐링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실외에서 진행되는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라. 진행방식

- 1) 보는 책, 노는 책, 쉬는 책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각각 전시와 놀이 및 체험, 힐링으로 기획해 실내와 실외에서 진행
- 2) (한국)그림책을 전시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헌책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 3) 책 읽어주기, 골목에서 하던 놀이들과 빛그림 공연 체험 등 책을 통한 다양한 즐거움을 축제에 참가한 시민에게 제공
- 4) 참여방법 : 사전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가능

마. 프로그램

| 구분 | 기간 | 장소 | 내용 | 비고 |
|-------------|--|----------|--|--|
| 책, 보고 놀다 쉬기 | 10/15(토) ~ 10/22(토) | 111CM 실내 | *우리 그림책 111권 전시 - 일부는 천장 기둥에 줄로 달아 전시 | |
| | | | *버리는 책으로 재미나게 놀기 - 체험 버리는 책으로 업사이클링 작품만들기 (10월의 크리스마스트리(미리 만드는 트리)) (책 드레스) - 헌책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시간 (책 도미노, 책 쌀기, 책 터널 만들기 등) | |
| | | | *일상에서 벗어나 쉬어 가는 책마당 - 내 집처럼 편하게 책 읽기(빈백활용) | |
| 책, 목소리로 만나다 | 10시~18시 (10/17 월요일 책 놀이터 쉬는 날) | 111CM 실내 | *책 속 주인공이 읽어주는 이야기 - 전통복장의 전기수, 마녀 위니 복장의 활동가가 책 읽어주기 | |
| | | | *가족, 친구, 연인에게 책 읽어주기 - 소리내어 함께 읽거나 서로에게 읽어주기 | *포토존 |
| | | | *인형에게 읽어주기 - 인형에게 책을 읽어주며 책읽기의 두려움 없애기 | |
| 책 속 놀이 | | 111CM 실외 | *책 속에서 찾는 전래놀이 - 책 속에서 본 전래놀이 등을 체험하는 시간 (깡깡이, 망쭈기, 사방치기, 점프등) | *다른 동네 같은 놀이 다른 이름 알아보기 |
| 공연 | • 1회차 10/15(토) • 2회차 10/16(일) • 3회차 10/18(화) | 111CM 실내 | *빛 그림 슬라이드 공연 -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고, 목소리 연기로 극을 공연 - 체험 슬라이드 필름용 기계 조작과 배역에 따른 목소리 연기 | *회당 20명 선착순 입장 *주말 11시공연 *평일 14시공연 |

바. 참가인원

| 실행그룹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비고 |
|------|-------|-----------|----|
| 3명 | 36명 | 약 5,200여명 | . |

사.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다빈치 터널을 이용해 <보는 책>에서 <노는 책>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즐길 수 있게 기획을 했지만, 실행과정에 있어 대행업체의 선정이 늦어지고, 크기로 인한 배치도 어려워 진행하지 않음.

아. 자체 홍보현황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수원지회 홈페이지, 지역카페(수원맘), 인스타(해님달님작은도서관. 회원개인), 페이스북, 밴드(세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수원지회), 해님달님작은도서관 이용자 홍보제작물 배포 및 부착, 회원 개인 카카오톡 대문 등

자. 성과 및 보완점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전시와 체험이 아닌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즐기며 연대와 소통하게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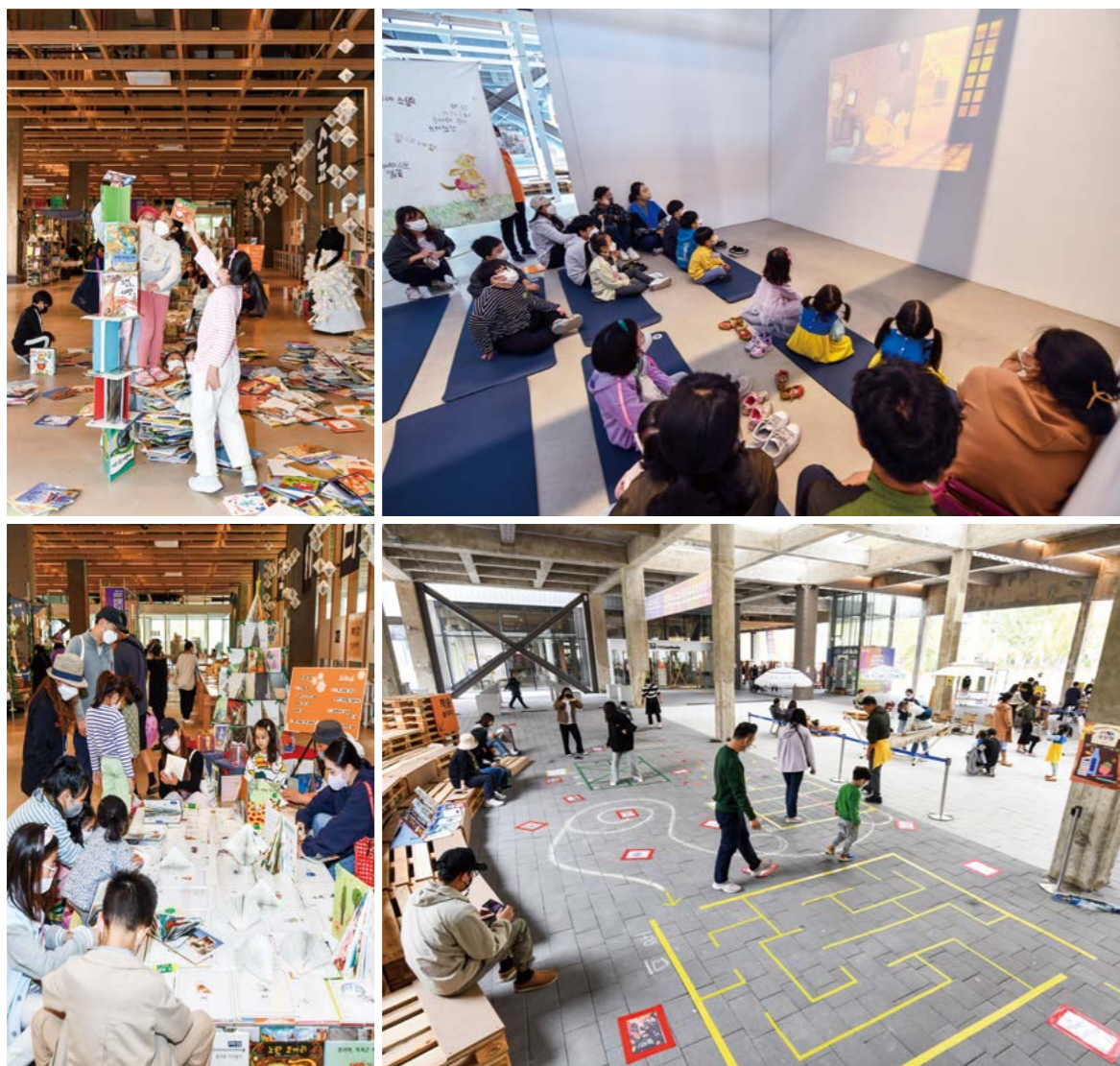
체험형 문화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책 드레스 만들기는 개인의 작품이 아닌 공동의 작품을 만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책을 읽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으로 다양한 구조물을 만드는 가운데 독서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책에 대한 친근함은 물론 다 읽은 후 방치되는 헌 책을 활용해 전시체험 콘텐츠로 이용하고, 키르기스스탄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업사이클링과 자원 순환 문화에 시민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책이라는 숲의 책놀이터는 책 한 권에서 시작해 놀이와 문학, 소통과 연대로 확장하는 새로운 독서문화를 실현했다.

아쉬운 점은 책놀이터 체험 프로그램의 많은 책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흔쾌히 책을 내어 준 후원자들에 대한 안내가 누락된 점이다. 체험 활동시 활동가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를 설명해 주긴 했으나 미비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행사가 끝나면 남은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버려지는 책이 없도록 한 점을 한 번 더 강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차. 현장 스케치



세대, 예술 청춘예찬 ; 희곡 _ 그녀들의 방

11

프로그램
세대, 예술

가. 일 시 : 사전워크숍 8월 27일(토)~10월 8일(토) 15:00~17:00
결과공유회 10월 22일(토) 15:00~17:00

나. 장 소 : 청년공간 청누리

다. 모집대상 : 사전워크숍 2, 30대 여성결과공유회 자격 제한 없음(누구나)

라. 내 용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은 몇 평쯤일까?”

지도 위, 빼곡히 들어선 건물 중에 나에게 허락된 공간은 얼마나 될까? 몸을 누일 공간이 없거나 마음을 누일 공간이 없어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다. 여성 청년과 함께 집과 관련한 작품을 보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가 가진 고민을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집에 대해 상상해 보고자한다. 또한 짧은 희곡 쓰기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청춘예찬 ; 희곡 - 그녀들의방>은 집과 관련된 작품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짧은 희곡을 써보는 모임이다.

마. 진행방식

-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워크숍과 인문도시기간 중 1회의 결과공유회를 가짐
- 사전워크숍 각 회차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으며 주제에 맞는 작품들이 사전에 공지됨.
공지된 작품은 사전에 감상한 후 워크숍에 참가
- 모임을 통해 완성한 희곡은 인문도시주간 결과공유회(10/22)에서 발표
- 신청방법 : 구글폼(<https://bit.ly/그녀들의방>)을 통해 사전신청(선착순 마감)

바. 프로그램

| 회차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1회차 (8월 27일) |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에서 - 함께 나눌 작품 : 박민정, 「신세이다이 가옥」 - 함께 쓰기 : “대신 살아줄 사람 구함” | *첫회는 15:00~17:30 (2시간 반) 진행 |
| 2회차 (9월 3일) |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 함께 나눌 작품 : 도리스 레싱, 「19호실로 가다」 - 함께 쓰기 : “가짜로 쓰는 자기소개서” | |

| 회차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3회차 (9월 17일) | 집이 없어 - 함께 나눌 작품 : 배해률, 「여기, 한때, 가가」 - 함께 쓰기 : “초대받지 않은 손님” | |
| 4회차 (9월 24일) |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 - 함께 나눌 작품 : 영화 <쇼미더고스트> - 함께 쓰기 : “슬픈 유령의 사연” | |
| 5회차 (10월 1일) | 혼자를 기르는 법 - 함께 나눌 작품 :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 함께 쓰기 : “어서 오세요, 우리 집으로” | |
| 6회차 (10월 8일) | 팝업 공유 작업실 -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할 희곡 완성하기 | |

바. 참가인원

- 사전워크숍 참여자들이 집필한 희곡을 모아 희곡집을 제작하고, 외부인원의 참가 신청을 받아, 함께 희곡을 낭독하고 이야기 나누는 행사를 진행.
- 신청 방법 : 구글폼(https://bit.ly/그녀들의방_집들이)을 통해 사전신청(선착순 마감)
- 낭독 작품
 - 네 이웃의 자리(작가 김서영)**
다세대주택에 사는 은수는 생활비가 모자라 고민하던 중 지인의 제안을 받고 새로운 '부업'에 눈뜨게 된다. 바로 주차 공간을 제3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 여유가 생기자 욕심이 난 은수는 남은 자리를 더 '판매'하게 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 정협과 주차장에서 마주치게 된다.
 - 아야(작가 박서영)**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서열 다툼을 하는 이야기
 - 첫 번째 친구(작가 김적운)**
일본에서 살던 '소라'는 한국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온다. 서울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앞으로의 삶을 보내게 된 '소라'. 그때 '소라'는 자신의 방 천장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기소침해진 '소라'는 이것을 쉬이 해결하지 못한다. 얽힌 데 덮친 격으로 셰어하우스를 같이 사용하는 '연지'의 지갑을 훔쳐 갔다는 누명까지 쓴다.
 - 화분을 안고 산책하는 여인(작가 유채진)**
호수 공원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생활비를 버는 이춘옥, 밴드 보컬로 공연을 하던 리피, 임신 후 직장에서 쫓겨난 헤림. 어느 날 호수 공원에서의 공연이 금지되어 버린다. 이춘옥, 리피, 헤림은 버스킹을 할 새 장소를 찾다가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으로 향한다.
 - 진심(작가 지혜림)**
여자는 회사 사무실에서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를 받게 되고, 전화를 건 혜진의 사정을 듣게 된다.
 - 그 여자의 방(작가 김지인)**
수업이 끝난 오후, 교수의 방을 찾은 재인. 국문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던 중 자신만의 소설을 집필하려 지방의 별장에 내려갔다가, 많은 일을 겪고 돌아왔다. 자신을 믿어 주었던 지도교수에게 별장에서 겪은 일을 모두 고백하고 사직서를 내려 한다. 그러나 교수는 차분하게 재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재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을 제시한다.

사. 참가인원

1) 사전워크숍

| 실행그룹 | 사전 신청자 | 중도 포기자 | 최종 참가자 | 비고 |
|------|--------|--------|--------|----|
| 1명 | 9명 | 3명 | 6명 | . |

2) 결과공유회

| 실행그룹(진행) | 사전워크숍 참여자 | 사전 신청자(외부) | 실제 참가자(외부) | 비고 |
|----------|-----------|------------|------------|----|
| 1명(1명) | 6명 | 8명 | 7명 | . |

아.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 없음

자. 자체 홍보현황

1) 홍보물 제작

- 사전워크숍 : 웹 포스터 1종, 카드뉴스 1종
- 결과공유회 : 웹 포스터 1종, 카드뉴스 1종

2) 홍보처

- 인스타그램 유료광고 진행
- 커뮤니티 사이트 게재 (네이버 카페, 온오프믹스 등)
- 유관 기관 홍보 협조 요청 (수원시청년지원센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학교 등)

차. 성과 및 보완점

<그녀들의 방> 프로그램 목표 중 하나는, 사전워크숍 참여자 전원이 짧은 희곡을 완성하고 이를 결과 공유회에서 발표하는 것이었다. 사전워크숍 참여자 대부분이 희곡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었기에, 여섯 번의 모임 안에 희곡 한 편을 완성하도록 글쓰기 활동에 대한 꼼꼼한 설계가 필요했다. '장소 만들기-인물 만들기-갈등 설계-독백 작성-희곡 작성'으로의 단계적 희곡 쓰기 활동을 설계하고, 매시간 집필 과정 피드백을 통해 사전워크숍 참여자 전원이 희곡을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시간 2시간 중 1시간을 글쓰기 활동에 할애하였는데, 글을 쓰고 피드백을 주고받기에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존에 계획한 프로그램 종료 시각을 넘어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다음번에는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조금 늘려서 이 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참여자들이 3시간이라는 진행 시간에 부담을 느낀다면, 인터넷 카페 혹은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피드백을 전달하거나, 조를 나누어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전워크숍 참여자 모집 당시, 참여자들의 희곡 완성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홍보 타겟을 글쓰기의 관심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 중에는 젠더 혹은 청년 담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는 희곡 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참여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극작술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주거와 관련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면, 1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해당 주제와 관련 있는 패널을 초대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혹은 희곡 쓰기에만 집중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전워크숍 참여자 모집에는 성별과 나이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결과공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 결과, 결과공유회 참여 신청자 대부분이 사전워크숍 참여자와 다른 젠더 및 연령대의 사람들이어서 행사장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집에 대한 여성청년의 경

험과 그들의 생각을 희곡 읽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사전워크숍 참여자가 완성한 희곡의 형식에 맞게 결과공유회 행사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읽기 방식을 제안한 점도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한다. (1부-다 함께 읽기, 2부-팀을 이루어 읽기) 다만, 사전워크숍 참여자 대부분이 결과공유회에 지인을 초대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소수만이 지인을 초대하여 결과공유회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겪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다음에는 사전워크숍 참여자 지인 초대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적 홍보 방안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카. 현장 스케치



세대, 예술 청춘예찬 : 음악

12

프로그램
세대, 예술

_ 나도 네가 Sigur rós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가. 일 시 : 사전워크숍 8월 24일(수)~9월 14일(수) 20:00~21:00
결과공유회 10월 21일(금) 20:00

나. 장 소 : 경기대 앞 와인집 짜잔

다. 모집대상 : 2, 30대 청년

라. 내 용

- 1) 각자의 음악적 취향을 공유해보고 음악을 매개로 하여 청년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2) 사전프로그램으로 플레이리스트 곡 선정과 관련한 모임을 진행하고 인문도시 주간동안 행궁동 일대 카페에서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를 진행한다.

마. 진행방식

- 1)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워크숍과 인문도시기간 중 1회의 결과공유회를 가짐
- 2) 회차별 주제에 맞는 개인별 선곡과 사연들을 받고 다같이 모여 노래를 감상하며 각자 선정한 곡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 3) 선정된 곡들을 취합하여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하고 선곡표와 함께 선곡 이유를 블로그 등에 올려 공유
- 4) 행궁동 주변 카페 2~3곳을 섭외하여 완성된 플레이리스트를 플레이
- 5) 사전워크숍 프로그램

| 회차 | 날짜 | 주제 |
|----|---------------------|-----------------------------------|
| 1 | 8월18일 (PM8:00~9:00) | 청춘찬가(가없는 내 청춘에 위로를 전해주는 노래) |
| 2 | 8월25일 (PM8:00~9:00) | 타임머신(특별한 순간으로 타임워프시켜주는 노래) |
| 3 | 9월15일 (PM8:00~9:00) | 깊은 밤을 날아서(가을 밤, 산책할 때 듣고싶은 노래) |
| 4 | 9월22일 (PM8:00~9:00) | 여기 지금 우리(우리가 모인 모임장소의 분위기를 담은 노래) |

바. 결과 공유회

- 1)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백 장소(총 3곳)
 - 카페 '나.니.행'(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4-25 2층)
 - 카페 '블루스보이커피'(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59 1층 블루스보이커피)
 - 카페 '루프독스'(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5-5 정율빌딩 3층 루프독스 301호)
- 2)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YesJYjkQfM9Kh1pjLV-iRBY3V1fUWXa>

사. 참가인원

| 실행그룹 | 출연자 | 사전 신청자 | 실제 참가자 | 비고 |
|------|-----|--------|--------|----|
| 1명 | - | 29명 | 22명 | . |

아. 기존 계획과의 상이점 : 없음

자. 자체 홍보현황

- 1) 참여자 SNS 공유를 통한 홍보 진행
- 2) 모임 진행장소 인스타 피드를 통한 홍보 진행

차. 성과 및 보완점

초반 홍보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다행히 모임장소의 SNS와 참여자들의 개인 SNS 홍보를 통해 기존 목표로 했던 8명 이상의 인원으로 4회차 모임이 완료되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컨셉이었기에 참여자들이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어색하고 지루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까 걱정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대화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진행을 위해 대화를 자제시켜야 할 정도로 참여자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듣는 것을 보고 이런 시간들이 다들 필요했다고 느꼈다. 결과공유회 때 참여자들의 소감을 물었을 때도 만족도가 무척 높았으며 이런 모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요청이 많아 향후 비슷한 컨셉으로 좀 더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최근 사람들의 음악을 듣는 방식이라든지 즐기는 방식에 대해 알 수 있어 앞으로 음악을 기획하고 제작할 때, 그리고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서로 다른 취향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카. 현장 스케치



세대, 예술 인문도시주간 아카이브 전시

13

프로그램
세대, 예술

가. 일 시 : 10월 15일(토) ~ 10월 23일(일)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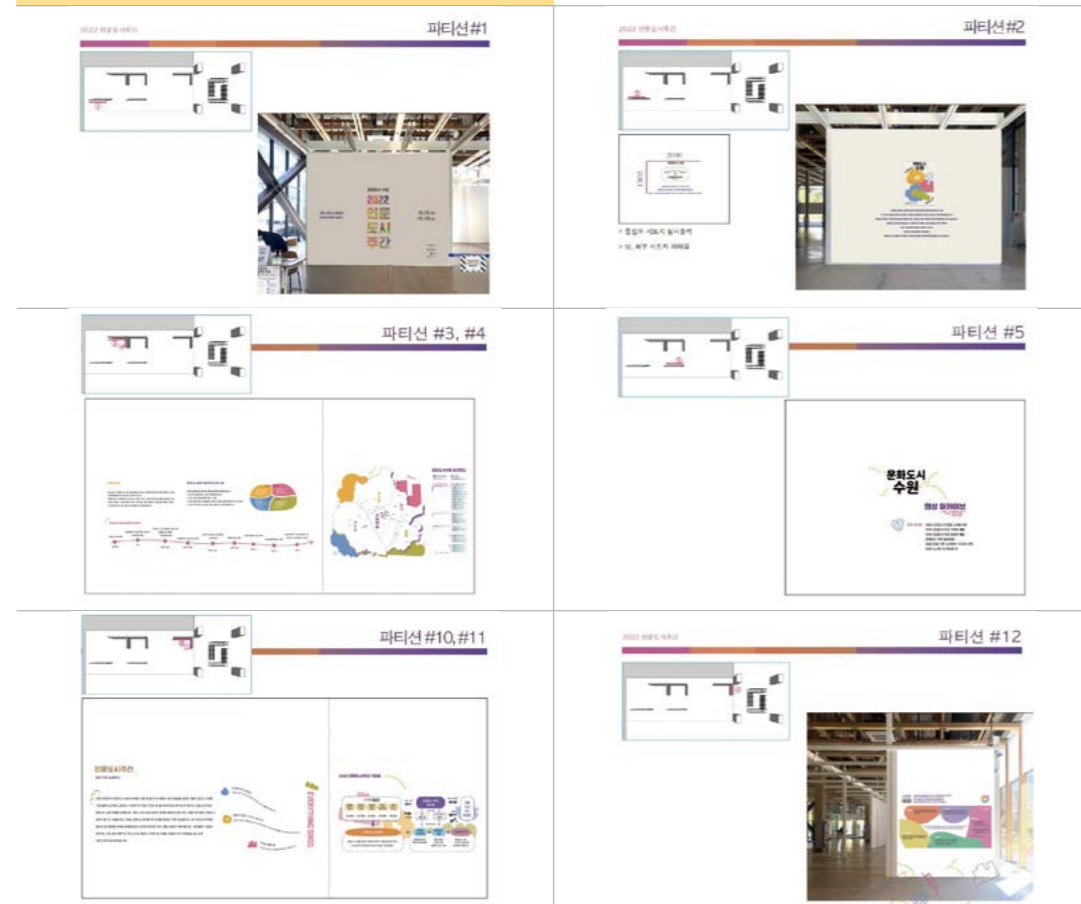
문화도시 수원역의 역사와 인문도시주간의 그동안의 진행과정들을 아카이빙하는 전시로 축제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문화도시 수원과 인문도시주간의 생성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라. 진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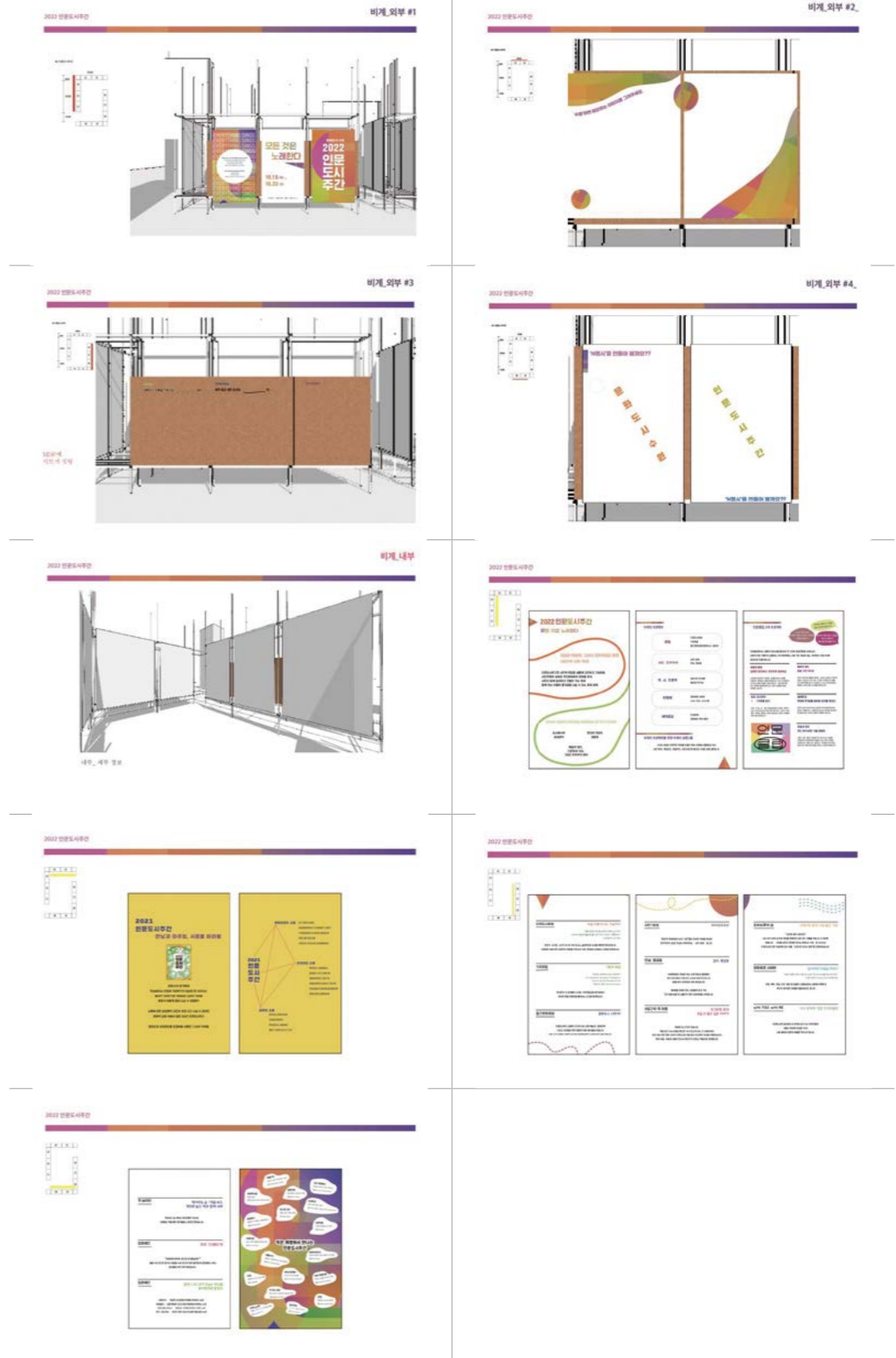
- 실행그룹과 재단의 자료들을 모아 외부 큐레이터를 섭외하여 기획, 설치

마. 아카이빙 전시 기획안

기존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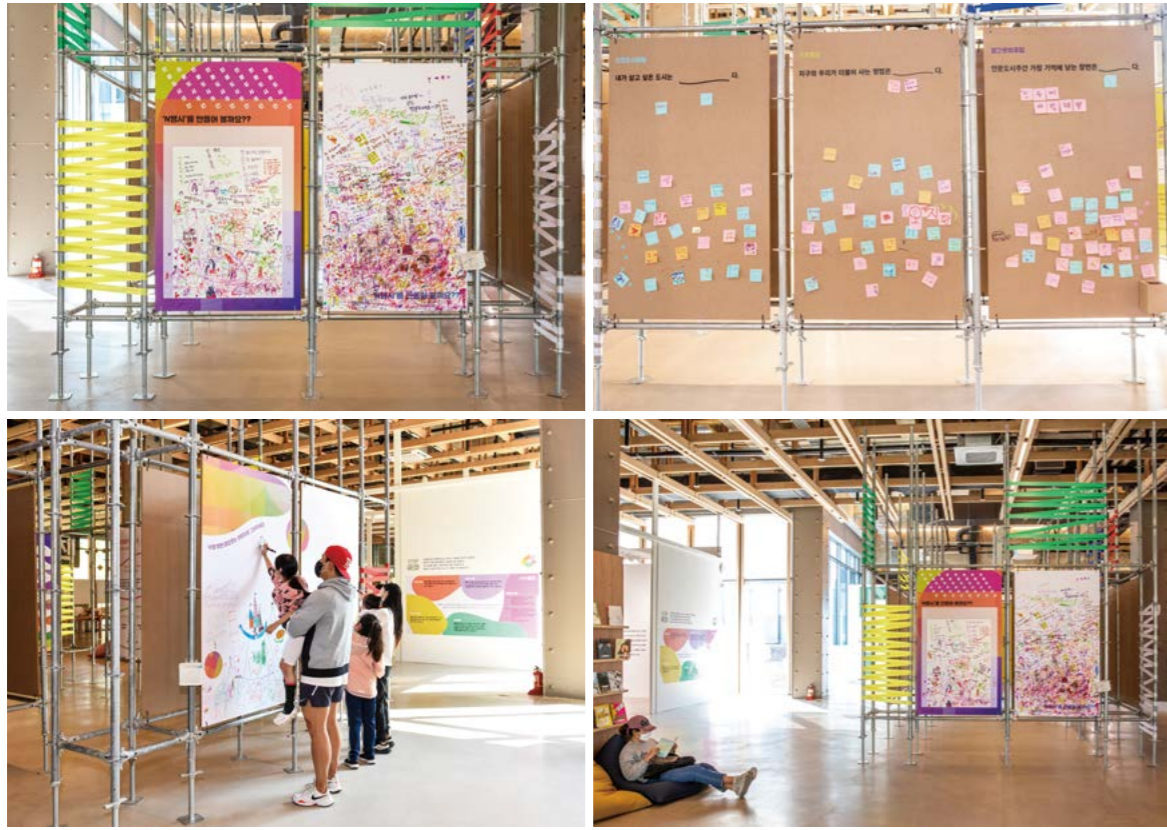
비계 전시공간



바. 참가인원

| 실행그룹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비고 |
|------|-------|-----------|----|
| 1명 | 3명 | 약 4,000여명 | . |

사. 현장 스케치



05

—
제5장
월간문화포럼

문화포럼 7월

주제 : 문화도시에 대한 서로의 생각 나누기

일 자 : 2022.07.19.(화)

프로그램

| 시간 | 주요 내용 |
|--------------------|---|
| 19:00~19:30 (30분) | 여는시간 / 인사 나누기 |
| 19:30~20:00 (30분) | 첼로연주 - 바흐 첼로 모음곡 등 총 3곡 시 낭독 - 위대한 가족에게 드리는 기도문(계리 스니이더) |
| 20:00~20:30 (30분) | 주제대화 -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는? |
| 20:30~ 20:40 (10분) | 첼로연주 (피아졸라 등 총 3곡) |
| 20:50~ 21:00 (10분) | 마니또 활동 - 선물 교환 / 닫는시간 |

참 여 자 :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예술가, 시민 등 30여명

장 소 : 하늘을 나는 돛단배(권선구 호매실동)

문화포럼 8월

주제 : N개의 실행단과 인문클럽,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일 자 : 2022.08.23.(화)

프로그램

| 시간 | 주요 내용 |
|--------------------|--|
| 19:00~19:30 (30분) | 월간 문화포럼 안내 및 참석자 인사 |
| 19:30~20:00 (30분) | 바이올린 연주 1. Thais - Meditaion(타이스의 명상곡) 2. Monti - Czardas(차르다시) 3.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o) 4. Smooth criminal(스무스 크리미널) 5. Bach - Air on the G string(G선상의 아리아) |
| 20:00~20:20 (20분) | 주제대화 - 도심 속 공공예술 |
| 20:20~ 20:40 (20분) | 주제대화 - 인문클럽 /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참여 이야기 |
| 20:40~ 21:00 (20분) | 네트워킹 시간 |

참 여 자 :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인문클럽, 예술가, 시민 등 25여명

장 소 : 실험공간 A

문화포럼 9월

주제 : 수원 문화공간(책방 등) 운영자들의 잡담회

일 자 : 2022.09.27.(월)

프로그램

| 시간 | 주요 내용 |
|--------------------|--|
| 19:00~19:20 (20분) | 여는시간 / 인사 나누기 |
| 19:20~19:40 (20분) | 삼일상업고등학교 버스킹팀 공연 정대원 작가 지우개 판화 체험(아이스 브레이크) |
| 19:40~20:10 (30분) | 북버스킹 - 나를 말해주는 책은? |
| 20:10~ 20:50 (40분) | 주제대화 - '독립 공간' 생존의 조건 |
| 20:50~ 21:00 (10분) | 마무리 대화 / 닫는시간 |

참 여 자 :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문화공간 운영자, 예술가, 시민 등 25여명

장 소 : 마그앤그레(권선구 권선동)

문화포럼 10월

주제 : 인문도시주간 × 문화도시 상상테이블

일 자 : 2022.10.23.(일)

프로그램

| 구분 | 시간 | 주요 내용 |
|---------------------------|-------------------|--|
| 1부 문화도시 너머 (토크쇼) | 17:00~17:05 (05분) | 오프닝 / 진행자 및 패널 소개 |
| | 17:05~17:25 (20분) | 토크쇼 진행 |
| | 17:25~17:30 (05분) | 플로어 현장 질문 |
| 2부 월간 문화포럼 | 17:30~17:40 (10분) | 관계 형성 - 모둠별 공통점 찾기, 역할 선정 |
| | 17:40~17:55 (15분) | before (참여전) - 내가 참여한 이유 / 참여 전 기대 사항 |
| | 17:55~18:20 (25분) | ing (막상 해보니) - 내가 발견한 의미 |
| 2부 월간 문화포럼 | 18:20~18:40 (20분) | after (앞으로 우리는) - 각자 위치에서의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 |
| | 18:40~19:00 (20분) | 공유 및 서로에 대한 질문 |

참 여 자 :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인문클럽, 예술가, 시민 등 50여명

장 소 : 111CM

문화포럼

11월

주제 : 인문도시주간에 대한 소회와 새로운 제안

일 자 : 2022.11.2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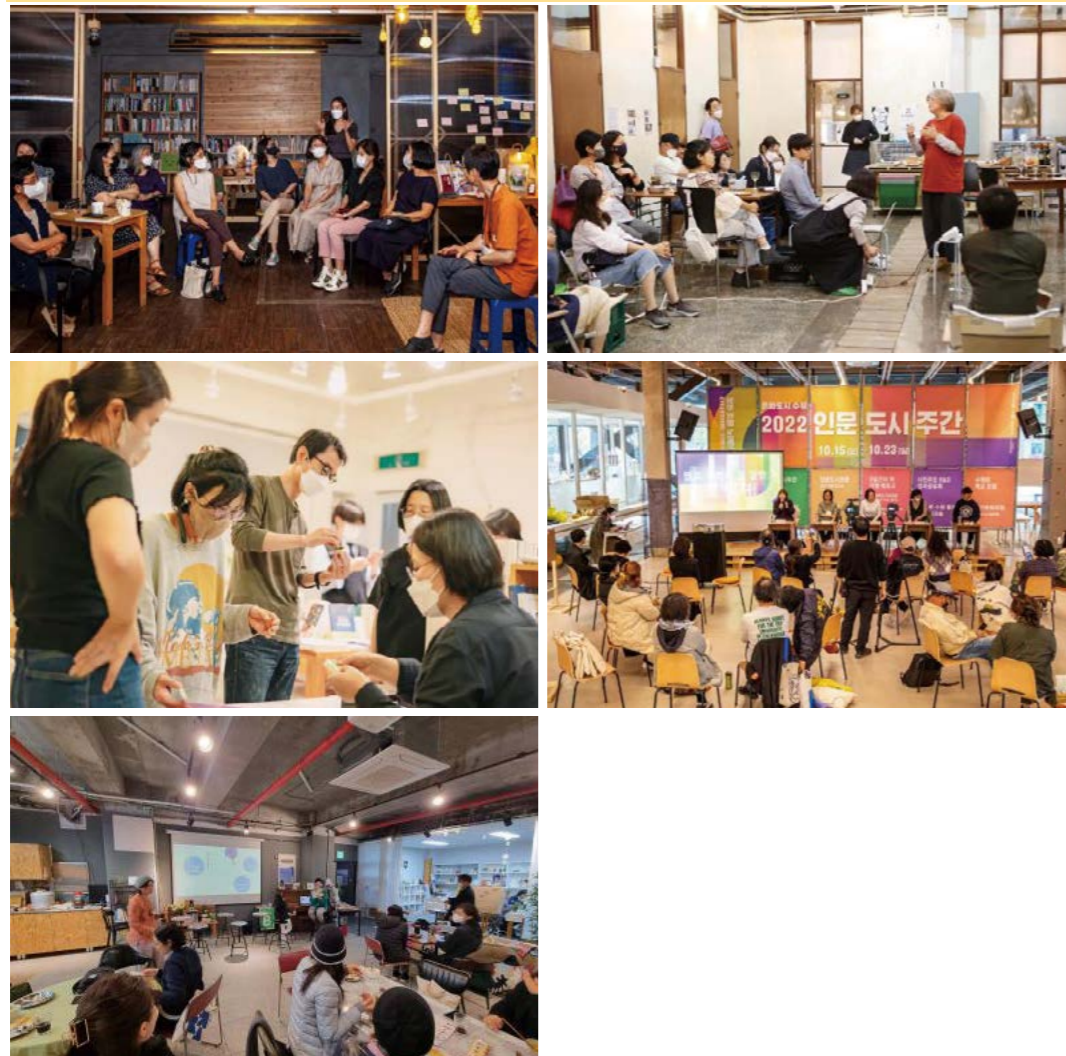
프로그램

| 시간 | 주요 내용 |
|--------------------|-----------------------------------|
| 19:00~19:20 (20분) | 여는시간 / 인사 나누기 |
| 19:20~19:30 (10분) | 가치가게 소개 |
| 19:30~20:00 (30분) | 너나드리 공연 / 5곡 |
| 20:10~ 20:50 (40분) | 주제대화 - 2022년 인문도시주간과 2023년 인문도시주간 |
| 20:50~ 21:00 (10분) | 마무리 대화 / 달는시간 |

참 여 자 : 인문도시주간 실행그룹, 인문클럽, 예술가, 시민 등

장 소 : 가치가게(권선구 세류동)

월간문화포럼



06

제6장 문화도시 연계사업

문화도시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로컬문화콘텐츠 직거래장터 수문장 콘텐츠 마켓

가. 일 시 : 2022.10.15. ~ 10.16. 12:00 ~ 18:00

나. 장 소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

- 오프라인 : 복합문화공간111CM 야외광장
- 온 라 인 : www.swmarket.kr

다. 내 용

우리가 사는 지역의 문화 창작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직거래 장터이자, 창작자와 소비자가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소통하는 장으로 지역의 다양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 마켓이다.

라. 진행방식

- 1) 문화마당(오프라인)은 디자인 소품, 패션잡화, 서적, 제로웨이스트, 식품 등 다양한 지역 브랜드의 콘텐츠를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로 사전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39개 브랜드가 참여하였다.
- 2) 참여마당은 지역 브랜드의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존으로 참여를 희망한 5개 팀이 6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3) 독립서점 <서른책방>과 지역의 독립출판 브랜드 33팀이 함께하는 아트북페어를 운영하였다.

마. 참여자

| 연번 | 분류 | 브랜드명 | 연번 | 분류 | 브랜드명 |
|----|--------|----------|----|--------|----------------|
| 1 | 디자인 소품 | 극단 환 | 21 | 디자인 소품 | 양유리 |
| 2 | 패션잡화 | 꼬미몽 | 22 | 디자인 소품 | 영청 |
| 3 | 패션잡화 | 꿈지락마녀 | 23 | 디자인 소품 | 예비 사회적기업 지오그래피 |
| 4 | 식품 | 꿈틀 협동조합 | 24 | 제로웨이스트 | 오름 |
| 5 | 식품 | 누룩팜 | 25 | 디자인 소품 | 오마주 |
| 6 | 디자인 소품 | 데미안 리 | 26 | 디자인 소품 | 오즈위빙 |
| 7 | 디자인 소품 | 드로잉 스튜디오 | 27 | 패션잡화 | 원스 플라워 |
| 8 | 디자인 소품 | 렛츠고 수원화성 | 28 | 식물 | 웰다육 |
| 9 | 디자인 소품 | 로컬러 | 29 | 제로웨이스트 | 재재상점 |
| 10 | 디자인 소품 | 무드러기 | 30 | 제로웨이스트 | 지구인의놀이터 |

| 연번 | 분류 | 브랜드명 | 연번 | 분류 | 브랜드명 |
|----|--------|----------|----|--------|-----------|
| 11 | 주얼리 | 벤디토준&에떼 | 31 | 디자인 소품 | 취미 공작소 |
| 12 | 디자인 소품 | 세라비쥬 | 32 | 식품 | 카카올라 |
| 13 | 디자인 소품 | 소잉 스케치 | 33 | 식품 | 커피가이 |
| 14 | 디자인 소품 | 소행성99 | 34 | 디자인 소품 | 콩새네 구멍가게 |
| 15 | 식품 | 수수한가 | 35 | 패션잡화 | 컬트수다 |
| 16 | 디자인 소품 | 수원쟁이 | 36 | 식물 | 퍼플 스모코 트리 |
| 17 | 디자인소품 | 스튜디오 312 | 37 | 디자인 소품 | 행복 공작소 마을 |
| 18 | 패션잡화 | 씨주씨 | 38 | 디자인 소품 | 행복한 뜨개인형 |
| 19 | 디자인 소품 | 씨드앤 그로우 | 39 | 디자인 소품 | 흙팜 |
| 20 | 디자인 소품 | 아트앤루프 | | | |

바. 체험 프로그램

| 연번 | 브랜드명 | 체험프로그램 | 내용 |
|----|---------------|--------------------|---|
| 1 | 렛츠고 수원화성 | 컬러링 엽서 체험 | 수원 화성 컬러링 엽서 채색 체험 |
| | | 수원화성 보드게임 | 수원 화성 보드게임 체험 |
| 2 | 세라비쥬 | 나만의 도자기 풍경 그리기 | 재별된 도자기 풍경에 채색 도구를 사용하여 나만의 도자기 풍경을 그려보는 체험 |
| 3 | 씨드앤그로우 | 플라로이드 통나무 사진꽃이 만들기 | 플라로이드 사진과 함께 자연물을 활용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
| 4 | 예비사회적기업 지오그래피 | 돌에 새긴 한글의 아름다움 |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한글 도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
| 5 | 오즈위빙 | 도약의 순간 | 패션·섬유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양말목으로 꽃을 만들어 포토존을 완성해보는 캠페인성 체험 |

사. 아트북페어 참여 브랜드

| 연번 | 브랜드명 | 내용 |
|----|---------------|--|
| 1 | 개띠랑 | 회사를 버리고 어쩌다 빵집 아르바이트생을 거쳐 어쩌다 빵기행을 다니고 있는 개띠랑입니다. |
| 2 | 그런의미에서 x 디디북스 | 가치있는 스토리를 창작하는 “디디북스”와 의미를 전달하는 책방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
| 3 | 김미소진 | 쫄고만 그림을 그리는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만화책 읽기에 빠졌구요. 웃기고 귀엽고 행복한 책을 만들고 싶어요. |
| 4 | 김민재 | 꼬마버스 타요를 제일 좋아하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겁내는 울보지만 누구보다 그림을 사랑하는 순수한 21살 청년입니다. |
| 5 | 더블유의 소소생각 | 인스타그램에서 더블유의 소소생각을 연재하고 있으며 책 <오늘은 힘껏 날 안아주기로 했다>를 출간했습니다. |
| 6 | 리틀플러피뮤즈 | 소중한 반려견 “래미”에 의해 시작된 아트브랜드&독립출판사로, 작가 KMNJ의 아트워크 기반의 굿즈와 도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
| 7 | 마그앤그래 | 권선동에서 문화공간 마그앤그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판화 정대원, 사진 이유진 글 이소영이 함께 작업합니다. |
| 8 | 민소윤 | 사진 전공으로 졸업해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고 서서히 벗어나는 중입니다. 외향적이고 싶지만 철저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

| 연번 | 브랜드명 | 내용 |
|----|--------------|--|
| 9 | 바리수 |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틈을 연재하고 있는 바리수 임수진입니다. 일상에서의 밝은 면들과 때때로 어둡기도한 마음속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
| 10 | 본본 |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관하여 결코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씁니다. |
| 11 | 서른책방에서 노네 | 꿈과 현실의 경계 위 좋아하는 일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서른책방과 귀여운 매력을 지닌 노네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
| 12 | 세여자 | 나이도 직업도 환경도 모두 다른 세 명의 여자가 '글쓰기'로 모였습니다. |
| 13 | 스토리앙 |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스토리앙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씁니다. |
| 14 | 여름아이 | 글과 그림을 그리는 동화작가 여름아이입니다. |
| 15 | 요시 | 애정어린 분투, 기쁘게 살려는 용기, 포기하지 않으려는 지속 등 모든 형태의 마음을 쓰고 짝고 다듬어 한 권의 책에 담습니다. |
| 16 | 은하수에서 만난 우리는 | 서른책방에서 열린 5, 6월 클래스 <포스터 코로나, 우리의 이야기> 작품지에 참여한 작가들입니다. |
| 17 | 이학윤 | <판의 시간: 공황장애그림이야기>의 저자 이학윤입니다. 제 책을 통해 공황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질병 당사자들이 병을 이겨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
| 18 | 종이선물 | 마음을 씁니다. |
| 19 | 종종 | <평범한 식빵>, 울퉁불퉁 크루아상을 그리고 쓴 종종입니다. |
| 20 | 해피니스 | 행복해지고 싶은 해피니스입니다. |
| 21 | G TO H | 'ㄱ'부터 'ㅎ'까지. 'ㄱ'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ㅎ'하나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
| 22 | 고영희 | 매일 소소한 일상을 그리고, 짝고, 글을 쓰는 일을 즐깁니다. 대면-비대면으로 아이, 어른들과 함께 글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23 | 느하 | 귀염 힐링 만화 그리는 느하입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귀엽게 치유하고 싶습니다. 꿈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만화책 [강아지 레스토랑]을 썼습니다. |
| 24 | 떡꼬물이 | 동물모양 떡들의 우정과 모험담을 담은 그림 동화 <떡꼬물이>의 저자입니다. |
| 25 | 빈칸놀이터 | 여행자들을 위한 문화플랫폼, 요소를 더하는 장소 빈칸놀이터입니다. urban(도시), architecture(건축), travel(여행), growth(성장), zere waste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하는 독립서점(여행서점) + 제로웨이스트샵입니다. |
| 26 | 오늘, 기록 | 사소한 것에 시선을 두고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생활을 합니다. |
| 27 | 이레이다 | 전기장판 위에서 편히 읽을 수 있는 책과 귀여운 고양이 굿즈를 만드는 이레이다입니다. 독립출판사 전기장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8 | 임발과 이종혁 | 소설을 꾸준히 써온 임발과 이제 소설쓰기의 묘미를 알기 시작한 이종혁 작가가 만났습니다. |
| 29 | 조침지 | 우당탕탕 여행 에세이를 쓴 조침지입니다. |
| 30 | 책방할아버지 | 동화그림책(방귀구름, 우유유치원)을 2개 독립출판해서 판매중인 김기진이라고 합니다. |
| 31 | 트래블라더스 |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지만 여행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진과 글로 여행을 추억합니다. 여행의 여운이 당신에게도 닿길 바랍니다. |
| 32 | 혜윤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달리 느긋하고 느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해윤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사는 귀엽고 행복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 33 | 호경 |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공존을 희망하는 작가 호경입니다. |

아.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23개사 62개 상품 입점)

| 연번 | 브랜드명 | 제품명 |
|----|----------|---|
| 1 | 김가지 | 일미리 002 탐방수원/매거진얼론 A1one 4호 - Alone, on the line/ 팔베개를 한 채로 멀어질 순 없잖아 |
| 2 | 꿈틀 | 꿈꾸래놀라 그래놀라/수원 화성 참기름 들기름 선물세트/수원 화성 참기름 들기름 |
| 3 | 꿈틀협동조합 | 꿈틀 with 커피가이 티백 커피/꼬꼬한끼 순살 닭갈비 |
| 4 | 누룩팜 | 쌀누룩,참쌀밥,물만 넣어 발효시킨 무설탕의 달콤한 감주 |
| 5 | 달파니 | 발효쪽염 스킨/발효쪽염 손수건/영유아용 &건강이불 '남다른 이불' |
| 6 | 더즐거운교육 | 렛츠고 수원화성 퍼즐 |
| 7 | 드로잉 스튜디오 | 뜨개 집과 나무 set채소 키링 &브로치/조리개 파우치 선물 set/스트랩 파우치 선물 set/뜨개 해바라기 브로치/뱃지/뜨개 해바라기 머리핀/뜨개 하트뽕뽕 머리핀 |
| 8 | 로컬러 | 수원이 뱃지/수원이 스마트톡/수원이 하트인형/수원이 핸드워머 쿠션/ |
| 9 | 삼미제빵소 | 삼미제빵소 상투과자선물세트 (6개입)/삼미제빵소 상투과자 (1개입) |
| 10 | 소행성99 | 레이어드 키링 - 연화문수막새 |
| 11 | 스토리블록 | 수원청개구리 디폼블록/수원화성 디폼블록/화홍문 디폼블록 |
| 12 | 세쥬씨 | 피크닉 매트 베르 비올레뜨/도트백 Noir délicieux (느와르 델리시오)/미니 크로스백 Fascination violett (파시나시오 비올레뜨) |
| 13 | 씨드앤그로우 | 유아굿 텀블러 |
| 14 | 양유리 | 드로잉 수저받침 |
| 15 | 영청 | 호건 우산 겸 양산/우리집 창문을 지켜줘, 범개쳐/단청의 연속무늬, 모닥금 피크닉 매트/조선 의궤 엽서 (Four Guardian Gods)/조선 의궤 사수도 엽서/수원화성 방화수류정 단청키링/강화 전등사단청 안경수건 (멀티클러너) |
| 16 | 오름 | 오름 주방세트 |
| 17 | 오즈워빙 | 수원의 시화-상징종 진달래-청개구리 양말목 편백안마뽕/수원의 주 상징종 "청개구리 양말목 휴지케이스"/수원의 시화 "진달래 양말목 휴지케이스"/오늘은 맑음 무지개워빙 |
| 18 | 재재상점 | 아동 오가닉 철릭 원피스/강화 소창행주 |
| 19 | 지구인의 놀이터 | 국산 (면)거즈 요루 행주 키친크로스/수원화성 호텔수건 5종 세트/달팽이 아코디언 가방/슬기로운 직장생활 세트 대나무칫솔/고체치약 키친크로스/다용도 주머니 스테인레스 빨대 세트 |
| 20 | 카카올라 | 똑딱 생초콜릿 키트(140g, 2set 분량) |
| 21 | 커피가이 | 커피가이 캡슐 30개입 |
| 22 | 퀵트수다 | 고래인형 열쇠고리 |
| 23 | 흙팜 | '행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어' 친환경 텀블러/노트패드 + 풀숲 포스트잇/스티커 4종/기념일 Good Luck 흙파티 캠핑 웨딩엽서 5종/리무버블 스티커 5종 |

자.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마켓 부스 | - 행사전일 판매부스 셋팅완료 - 참가브랜드 현수막 게시 및 물품 셋팅 - 12시~6시까지 브랜드 소개 및 판매활동 진행 | |
| 체험 부스 | - 테이블 및 의자 셋팅 - 체험별 예약자 확인 후 체험진행 - 5팀, 6개 체험프로그램 진행 | |
| 북마켓 부스 | - 지역 북마켓 부스 셋팅 - 12시~6시까지 브랜드 소개 및 판매활동 진행 | |

차. 참여인원

• 오프라인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 | | 체험 및 캠페인 참여 |
|-------|--------|--------|-----------|-----------|-------------|
| | 방문인원 | 일 평균 | 일자별 통계 | | |
| | | | 10.15.(토) | 10.16.(일) | |
| 39팀 | 2,344명 | 1,172명 | 1,210명 | 1,134명 | 985명 |

• 온라인 성과 (www.swmarket.kr)

| 스토어점 | 방문 | 구매건 | 상세페이지 제작 |
|------|------|-----|----------|
| 204명 | 317명 | 8건 | 20건 |

카. 성과 및 보완점

- 1) 북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 수문장 아트마켓은 올해 진행한 마켓 중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가 참여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소개할수 있었다.
- 2) 시민들의 행사 참여도가 높아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에 예약이 마감되었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 덕에 일찍이 품절된 브랜드도 다소 보였다.
- 3) 또한 평소 접하기 쉽지 않았을 아트북페어 역시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지만 주차 편의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마켓에 참여하는 셀러분들은 가급적 멀리에서부터 물품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파.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로컬문화콘텐츠 직거래장터

수문장 아트페어

가. 일 시 : 2022.10.20. ~ 10.23. 11:00 ~ 21:00

나.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39번길 15
 ※ 아트테크 특강 별도 장소에서 진행 (책과, 작은도서관 책고집)

- 다. 내 용
- 수문장 아트페어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예술 창작품의 전시와 판매를 통해 작품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하였다.
 - 예술작품 전시 및 판매 이외에도 체험 등 부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전시장 방문을 유도하였다.

라. 진행방식

아트페어는 4회에 걸쳐 기획자문단 회의를 진행하였고, 참여 작가는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수원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공모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된 2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작품은 개인당 최대 5점을 출품하였으며 판매가 완료되면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여 4일간 운영하였다.

매칭프로그램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전문 예술가 그룹과 참여 작가를 연결하여 5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구성된 기획그룹별 워크숍(총 10회)을 통해 수문장 아트페어만의 정체성을 담은 협업 작품을 제작하여 아트페어에서 전시·판매하였다.

- 1) 아트페어 : 수문장 참여 예술가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페어 운영
- 2) 매칭프로그램 : 청년 예술가와 기획그룹과의 매칭을 통해 제작한 '수문장 아트페어' 만의 콘텐츠 소개 및 판매 진행
- 3) 부대행사
 - 참여 예술가 포트폴리오룸 : 참여 예술가의 활동과 작품 등을 소개하는 공간 운영
 - 융복합 공연 <SOTC(Stage On The Canvas)> : 예술가 (미술작품)와 음악가(공연)의 만남으로 미술작품과 공연이 결합된 융복합 공연
 - 아트테크 특강 : 예술작품을 통한 아트테크 관련 특강 진행
 - 체험프로그램 : 지역 예술가의 작업 내용이 담긴 체험
 - 참여자 교류프로그램 : 아트페어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
 - 도슨트 투어 : 전문 도슨트의 출품작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 4) 참여규모 : 청년 예술가 29인, 기획그룹 5팀 참여

마. 프로그램
- 부대행사

| 연번 | 프로그램명 | 일시 | 내용 |
|----|--------------|---|-------------------------------------|
| 1 | 포트폴리오룸 | | 아트페어 참여 예술가 29인의 활동과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 운영 |
| 2 | 융복합공연 <SOTC> | 10.21.(금) 17:00 | 시각: 최경아 X 음악: 숨비 |
| | | 10.22.(토) 19:00 | 입체: 이태강 X 음악: 브루나 |
| | | 10.23.(일) 17:00 | 시각: 서찬석 X 음악: 이태훈 |
| 3 | 아트테크 특강 | 예술작품을 통한 투자를 뜻하는 아트테크 관련 특강 | |
| | | 10.21.(금) 19:00 | 컬렉터가 되는 방법- 장해진 미술품 컬렉터 |
| | | 10.22.(토) 14:00 | 동시대 미술 시장에 관하여- 우사라 부평문화재단 팀장 |
| | | 10.23.(일) 14:00 | NFT 미술시장- 조숙현 아트북프레스 대표 |
| 4 | 체험 프로그램 | 10.20.(목)~23.(일) 15:00~15:30 | |
| | | 15:30~16:00 | |
| | | 16:00~16:30 | |
| | | 16:30~17:00 | |
| | | 지역예술가의 작업 맥락을 해석한 교구재를 활용한 체험 01. 김유신/큰양 색면 키트 02. 데미안 리/내면여행 03. 김기태/아니마의 햇볕피기 04. 이수연/나의 첫 감성 드로잉 콜라주 05. 최경아/산책의 모양 | |
| 5 | 도슨트투어 | 10.20.(목)~23.(일) 11:30, 14:00, 16:00, 18:00, 20:00 (30분) | |
| | | 전문 도슨트 심성아의 수문장 아트페어 출품작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 |
| 6 | 참여자 교류 프로그램 | 10.23.(일) 18:00 | 참여예술가, 예술그룹, 방문객,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 |

바. 참여자
- 아트페어 참여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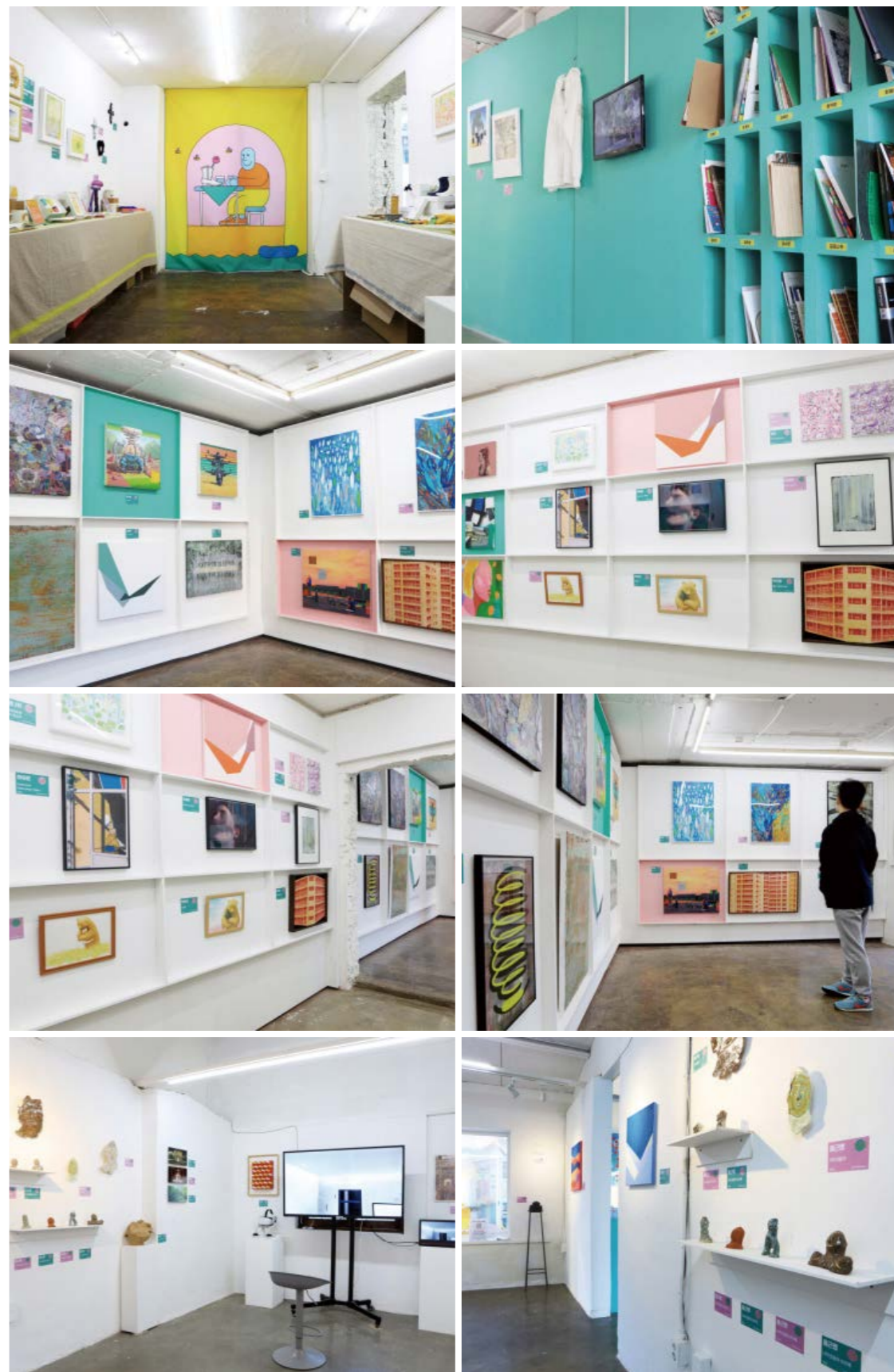
| 연번 | 분류 | 브랜드명 | 연번 | 분류 | 브랜드명 |
|----|---------|------------------|----|-----|-------------|
| 1 | 곽수영 | 회화 | 16 | 박지연 | 디자인(일러스트) |
| 2 | 김기태 | 회화, 디자인(일러스트) | 17 | 손혜원 | 회화, 판화 |
| 3 | 김명수 | 입체(조각) | 18 | 송희정 | 입체(조각) |
| 4 | 김모니카 | 디자인(일러스트) | 19 | 윤산 | 회화 |
| 5 | 김민정 | 디자인(일러스트) | 20 | 윤석원 | 회화 |
| 6 | 김보람 | 회화, 디자인(일러스트) | 21 | 이수연 | 회화 |
| 7 | 김유신 | 회화 | 22 | 이태강 | 입체(조각), 드로잉 |
| 8 | 김정우 | 회화 | 23 | 임지연 | 회화 |
| 9 | 김혜란 | 회화, 디지털드로잉 | 24 | 쥬디 | 입체(조각) |
| 10 | 데미안 리 | 회화, 입체(조각), 사진 등 | 25 | 최경아 | 회화, 출판물 |
| 11 | 드로잉스튜디오 | 회화, 디자인(일러스트) | 26 | 최봄이 | 회화 |
| 12 | 레레 | 회화 | 27 | 하므음 | 회화 |
| 13 | 마랑 | 디자인(일러스트) | 28 | 하유준 | 사진 |
| 14 | 문혜주 | 회화 | 29 | 홍근영 | 입체(조각) |
| 15 | 박수환 | 회화 | | | |

- 매칭 프로그램

| 연번 | 기획그룹 | 참여작가 | 내용 |
|----|--------------|-----------------------------|--|
| 1 | 스튜디오 엠버스 703 | 김유신, 김혜란, 송희정, 임지연, 홍근영 | 참여작가의 작품을 NFT 오픈마켓에 민팅하고 메타버스 전시공간에 <메타 수문장 아트페어>를 열어 가상 공간에서 작품의 관람과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 |
| 2 | 올드스킨 | 곽수영, 김보람, 마랑, 윤산, 이수연, 하유준 | "수문장 아트페어에서 '올드스킨'은 음악 레이블이 된다." 작가 스스로 뮤지션을 상상하고 자신의 작업 세계관을 담은 앨범 커버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시/판매 진행 |
| 3 | 오브갤러리 | 김정우, 문혜주, 이태강, 최경아 | 참여 작가의 대표작을 3D미팅렌더링한 이미지로 제작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작품의 모습 제시 |
| 4 | 완보작업실 | 김기태, 김민정, 레레, 손혜원, 최봄이, 하므음 | 참여작가들의 생각과 현실적 문제들, 펼치고 싶은 작업에 이야기를 나누고, 작가의 작업 맥락을 담은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아트페어에서 선보임 |
| 5 | 테이블 유머 | 김모니카, 쥬디, 데미안리, 박지연 | 머그컵, 접시 등의 상품에 참여 작가의 대표작 이미지를 결합한 독특하고 위트있는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선보이고 판매하고자 함 |

2) 청년 작가들의 단순한 작품전시를 넘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작품 세계를 탄생시키고 작가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수문장 아트페어'만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타 아트페어와 차별화하였다.

차. 현장 스케치



사.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아트페어 운영 | - 행사전일(19일) 사전오픈 - 전문 도슨트의 출품작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1일 5회) - 전시기간동안 작가는 상주하여 자신의 작품 소개 및 판매 | |
| 공연, 아트테크 특강 | - 테이블 및 의자 셋팅 - 특강 예약자 확인 후 특강 진행 | 책괘(금) 작은도서관 책고집(토, 일) |
| 체험프로그램 | - 전시장 내 일부 장소에서 작가의 작품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전 예약) | |
| 교류프로그램 | - 페어 마지막날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 운영 | |

아.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비고 |
|-------|------|----------|
| 34명 | 895명 | 19일 사전오픈 |

- 프로그램 참여 인원

| 체험프로그램 | 아트테크 특강 | 융복합 공연 SOTC |
|--------|---------|-------------|
| 55명 | 40명 | 68명 |

자. 성과 및 보완점 (서술형)

1) 대형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아트페어였다. 내년 철거 예정인 건물을 임차해 공간을 구성하였는데 골목에 있어서 홍보하는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MZ세대들이 방문하는 수원원의 핫 플레이스인 행궁동에서 아트페어 개최를 통해 수원에서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적 시도가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꼭 서울에가지 않고도 수원에서도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아트페어를 계기로 젊은 세대들도 수원원의 문화도시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문화도시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동행공간 네트워킹을 위한
번개모임

가. 일 시 : 10.16.(일) 11:00 ~ 13:00, 18:00 ~ 20:00
 10.17.(월) 19:30 ~ 21:30
 10.18.(화) 20:00 ~ 22:00
 10.19.(수) 19:30 ~ 21:30
 10.20.(목) 20:00 ~ 22:00

나. 장 소 : 마그앤그래, 유스피아 / 벌터온 / 아무컨셉 / 비사이드 / 온라인 줌(ZOOM)

다. 내 용 : 생활권역별 동행공간끼리의 일상적인 만남을 위한 번개 모임 진행

라. 진행방식
 자신이 운영하는 동행공간 소개, 주제별 이야기 나눔
 (동행공간 운영 방식, 공간별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 방법, 동행공간 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 등)

마. 현장운영 : 오프라인 모임 5회, 온라인 모임 1회

바.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비고 |
|-------|-----|----|
| 38명 | - | - |

사. 성과 및 보완점

- 동행공간 운영자 간 네트워킹 자리 마련
- 주제별 이야기 나눔을 통해 향후 계획 수립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 동행공간 운영자 간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눔
-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 참여하지 않은 공간도 있어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모임 마련 필요
- 번개 모임으로 하다보니 참여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과 사전 홍보가 부족함

아.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포럼
 슬기로운
 공유문화 포럼

가. 일 시 : 2022.10.17.(월) 14:00 ~ 17:00

나. 장 소 : 111CM 라운지

다. 내 용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문화로서 '공유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수원의 생태환경과 문화예술이 접목할 수 있는 공유문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 진행방식

- 관련 사례발표를 통해 '공유문화' 인식 및 이해 증진
- 지역 내 공유문화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진행
- 현장운영 및 녹화영상 온라인 공개

마. 프로그램

| 시 간 | | | 내 용 | 비고 |
|-------|-------|-----|-------------------------------------|-----------------------------------|
| 부터 | 까지 | 소요 | | |
| 14:00 | 14:05 | 5' | 개회 | 좌장 : 이득현 (수원그린크러스트 이사장) |
| 14:05 | 14:10 | 5' | 환영사 | |
| 14:10 | 15:10 | 60' | [사례발표 1]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 |
| | | | - 공연 및 축제 분야 | 박수정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 대리) |
| | | | - 전시 분야 | 성용희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1과 큐레이터) |
| | | | - 문화유산 분야 | 김도형 (세계은행 컨설턴트,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
| 15:10 | 15:20 | 10' | 휴식 | |
| 15:20 | 15:50 | 30' | [사례발표 2] 슬기로운 공유문화 프로젝트 공모 선정자 사례발표 | |
| 15:50 | 16:50 | 60' | [라운드테이블] 수원 내 공유문화 활성화 방안 논의 | |
| 16:50 | 17:00 | 10' | 폐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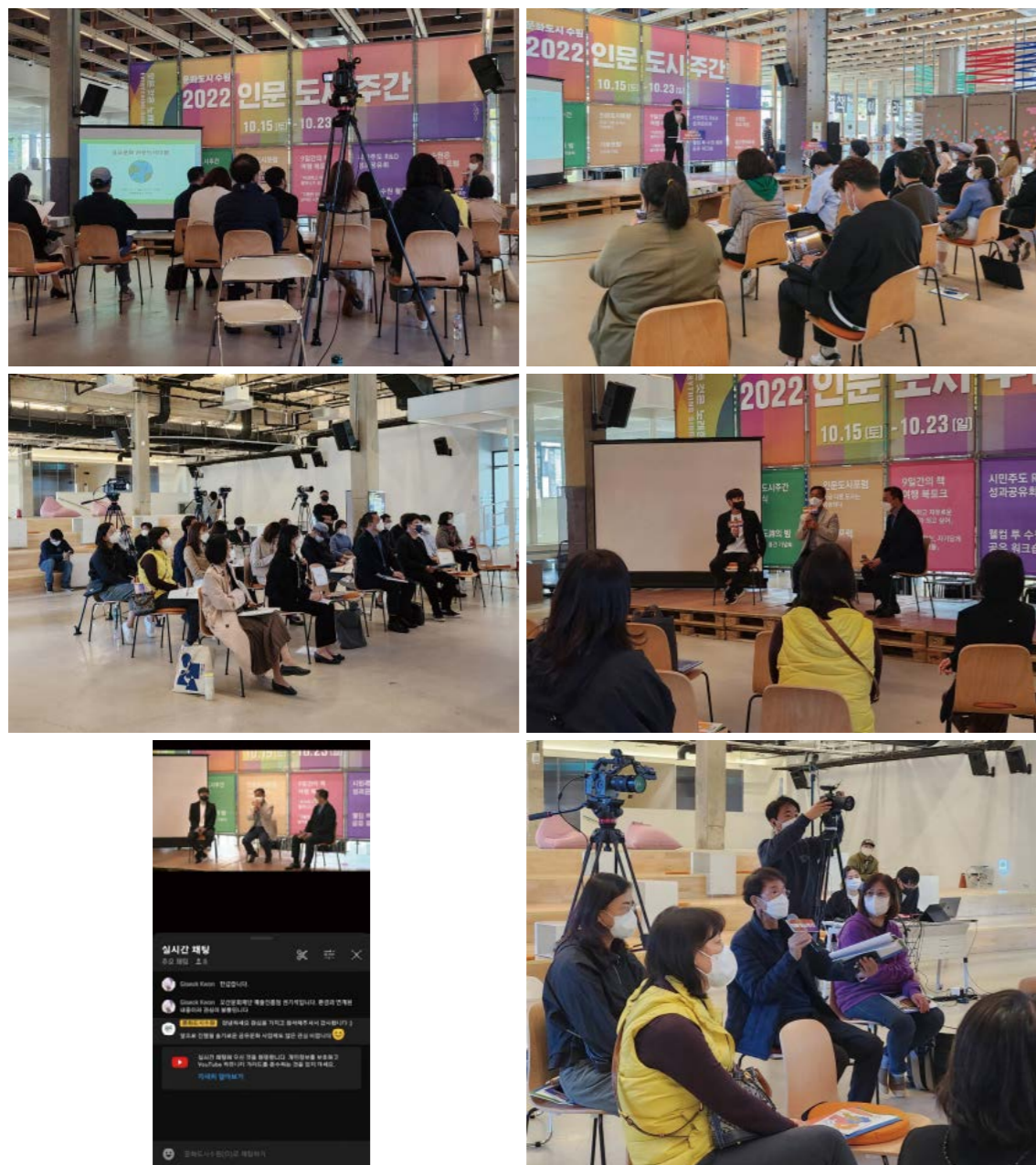
바.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비고 |
|-------|--------------------------|----|
| 7명 | 40명 (현장 25명, 온라인 15명) | - |

사. 성과 및 보완점

- 기존 공유경제와 공유복지를 넘어서 수원의 생태환경과 문화예술이 접목할 수 있는 공유문화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기후위기 시대에서 공연 및 축제, 전시, 문화유산 등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
- 수원 내 공유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 사전 홍보의 부족으로 좀 더 많은 수원시민이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추후에는 문화도시 수원 홈페이지 및 SNS를 제외하고 다양한 플랫폼에 공유문화 포럼의 메시지를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자 함.
- 참여시민을 조별로 분리 및 모더레이터 구성을 통해 공유문화, 지속가능한 예술, 기후위기 시대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보다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포럼] 수원은학교 포럼2부
당신은 '문화기획자'인가요?
_ 우리가 찾는 동료들

가. 일 시 : 2022.10.21.(금) 14:00 ~ 17:0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

다. 내 용

각종 양성과정이 쏟아지고 '문화기획자'가 키워진다. 시민 활동가에서 전문 직업인까지, 스스로를 당연히 문화기획자라 칭하거나 그러하길 주저하는 사람, 냉큼 그 이름을 자기소개란에 적어 넣는 사람 등등 그 반경에 포함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양상도 다양해진다. 어쩌다 그토록 우리는, 그리고 지역은 문화기획자를 원하게 된 것일까. 그들에게 기대하는 역량과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지역은 정말 그들의 역량을 필요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삶터와 일터가 통합된 이상향으로서의 지역, 집과 직장 사이의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터전으로서의 지역, 그곳에서 '문화기획자'라는 타이틀을 잠시 지우고, '우리가 만나고픈 동료들'의 모습을 그려보고 찾아보는 이야기 자리를 제안한다.

라. 진행방식

- 발제
문화기획자는 누구일까_ 임재춘(커뮤니티 스튜디오104 대표)
수원에서 만난 기획자들_ 윤영욱(프로젝트그룹 번지 기획자), 이승준(만물작업소)
- 토론
주성진(문화용역 대표), 정다현(플랜포이어 대표)
- 종합토론
백현주(수원은학교 총괄기획자)

마.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공간세팅 | - 포럼 공간 세팅 - 현수막, X배너, 포스터 설치 - 음향, PT 세팅 및 확인 - 인포데스크 안내 요청 | *대행업체 인력 참여 *스토리G 촬영 |
| 참여자 등록 | - 사전신청자 및 현장 신청자 등록 | |
| 현장 진행 | - 프로그램 소개 및 전문가 소개 | |
| 발제 및 토론 | - 발제 및 토론 진행 | |
| 전체 토론 | - 공간 재배치 후 참여자 전체 토론 진행 | - |

아. 참여인원

| 발제 및 토론자 | 플로어 참여자 | 비고 |
|----------|---------|----|
| 6명 | 22명 | - |

사. 성과 및 보완점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닌 인재양성 관계자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고, 청년기획자 및 인근 재단 관계자, 지역 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포럼의 규모에 비해 공간이 넓어 실제 참여자 수에 비해 라운지가 비어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책놀이 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음과 중첩되어 발제자의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역 청년기획자 및 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거창한 포럼의 형태가 아닌 잡담회 등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로 지속적으로 열릴 필요성이 있으며, 거대한 담론보다는 현재의 이야기를 나눌 자리 역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아.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
활동공유회
시민문화기획자공유회
<우리서로 문화공감>

가. 일 시 : 2022.10.17.(월) 14:00 ~ 17:0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목적실1

다. 내 용

문화도시 수원의 시민가치는 일상 속 인문 실천을 통한 시민문화력 강화와 수원을 살아가는 지금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상호 연대를 목표로 한다. 시민문화기획자 과정 이후 후속활동연계과정에 참여하는 시민기획단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열어 나가는 공유회를 진행해 본다.

라. 진행방식

| 연번 | 시간 | 내용 | 비고 |
|----|-------------|----|-----------------------------|
| 1 | 14:00~14:15 | - | - 활동공유회 소개 담당자 |
| 2 | 14:15~15:30 | PT | - 후속활동연계과정 시민 공유 5개 팀 |
| 3 | 15:30~15:40 | | 휴식 |
| 4 | 15:40~17:00 | | - 네트워킹 (발표자 & 참여자) 모더레이터 |

마.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공간세팅 | - 공유회 공간 세팅 - 포스터 설치 - 음향, PT 세팅 및 확인 - 인포데스크 안내 요청 | *스토리G 촬영 *퍼실리테이터 섭외하여 진행 |
| 공유회 발표 | - 각 개별 프로젝트 소개 및 시연 | |
| 네트워킹 | - 활동 후기 나누기(퍼실리테이터) | |

바. 참여인원

| 시민기획단 | 참여자 | 비고 |
|-------|-----|----|
| 5팀 | 11명 | - |

사. 성과 및 보완점

시민가치에 해당하는 사업 간의 연결지점으로 공유회를 기획하였으나, 사업별 참여자 간의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상이하여 시민문화기획자 과정을 수료한 기획단의 공유회로 변경 운영하였다. 이것은 사전 활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 서로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와 별개로 타 사업과 다른 활동가와의 만남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아.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
활동공유회
시민활동공동체
<오픈 Open Learn>

가. 일 시 : 2022.10.22.(토) 11:00 ~ 17:00

나. 장 소 : 행궁동 화령전 앞(차없는거리)

다. 내 용

수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나가며 학습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운영된 사업의 일환이다. 5회의 런앤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활동 공동체가 자신들의 활동을 일반 시민에게 선보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워크숍 형태로 운영되었고, 공동체 활동을 시민들이 보고 배우며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진행방식

- 재 단 : 활동공동체 지원과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공유회 공간 확보 및 인문도시주간 팀과의 논의
- 실 행 단 체 : 소셜드림프로젝트 코코코 참여. 참여 단체 활동 점검 및 오픈런 참여자 섭외, 현장 운영, 진행
- 참여공동체 : 벌터온, 진옥제인성예다교육원 참여. 현장 체험워크숍 준비/운영

마.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공간세팅 | - 부스 설치(10개) - 포스터, 현수막 부착 - 당초 새마을문고 앞마당에 위치하였으나 인문도시주간 부스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해가 들어 위치를 옮겨 진행함. | *스토리G 촬영 |
| 활동공동체 참여 | - 벌터온, 진옥제인성예다교육원 참여 - 시민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에서 다도 체험, 차이야기, 방향제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고, 시민들이 만든 뜨개 물품과 다도물품이 전시되었음. | |

아. 참여인원

| 참여공동체 | 현장 참여자 | 비고 |
|-------|--------|----|
| 2팀 | 250여명 | - |

사. 성과 및 보완점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많은 때라 생각보다 많은 공동체가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다도 체험과 방향제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호응이 좋았고, 가볍게 가족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이 행사에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인문도시주간의 활동공유회 일환으로 해당 일자에 오픈런을 편성했으나, 행사 부스의 위치나 홍보물, 타 부스와의 연관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아.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포럼
문화도시에서의
지역예술인의 역할

가. 일 시 : 2022.10.18.(화) 15:00

나. 장 소 : 수원문화재단 영상실

다. 내 용 : 문화도시에서의 지역예술인의 역할 포럼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발제 | 문화도시 제도와 예술인들의 역할 - 김찬동(前 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문화도시에서의 지역예술인의 역할 - 송창준(수원음악협회회장) | 사회 : 이영길 예총회장 |
| 토론 | 김찬동(前 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송창준(사단법인 수원음악협회회장) 정운봉(연극협회 지부장) 윤현덕(미술협회 사무국장) 정명희(문인협회 지부장) | |

라. 진행방식 : 포럼

마. 참여인원

| 진행자(발제, 토론자) | 참여자 | 비고 |
|--------------|-------|----|
| 10명 | 약 40명 | - |

바. 성과 및 보완점

- 지역예술인의 문화도시 공감대 확산을 통해 문화도시에서의 예술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
-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참여한 예술인들이 주로 청자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활발하게 교류되 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추후에는 라운드테이블 등의 형식으로 예술인의 발언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사.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워크숍

기관단체협의체 실무자 워크숍

가. 일 시 : 2022.10.19.(수) 14:0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목적실1

다. 내 용 :

- 문화도시 추천 기관단체협의체 사례 공유
- 기관단체협의체 통합홍보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 공유
- 기관단체협의체 협업방안 발굴

라. 진행방식 : 포럼

마. 참여인원

| 진행자 | 참여자 | 비고 |
|-----|-----|----|
| 4명 | 14명 | - |

바. 성과 및 보완점

- 문화도시 추천의 사례를 통해 기관단체협의체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눔
-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주관조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음

사.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포럼

예술가가 바라본 법정문화도시 수원

가. 일 시 : 2022.10.21.(금) 16:00

나. 장 소 : 창릉마을창작센터

다. 내 용 : 예술가가 바라본 법정문화도시 수원 포럼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발제 | 문화도시 수원을 문학과 함께 - 정수자(문학위원회) | 사회 : 홍순영 시인 |
| | 법정문화도시 이후의 지역미술활성화에 대한 소고 - 이오연(시각예술위원회) | |
| |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 이성호(풍물굿위원회) | |
| 토론 | 조은아(부지부장) | |
| | 이창세(시각예술위원장) | |
| | 정수자(문학위원회) | |
| | 이오연(시각예술위원회) | |
| | 이성호(풍물굿위원회) | |

라. 진행방식 : 포럼

마. 참여인원

| 진행자(발제, 토론자) | 참여자 | 비고 |
|--------------|-------|----|
| 10명 | 약 20명 | - |

바. 성과 및 보완점

-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 시민과 예술가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예술가-행정의 소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사.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인문도시주간

시민주도 R&D 성과공유회

가. 일 시 : 2022.10.19. (수) 14:00~18:00

나. 장 소 : 111CM 라운지 및 개더타운(메타버스)

다. 내 용

시민주도 R&D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는 사업명 “City Makers” 말 그대로 “도시를 만드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씨티메이커스”에서 고민한 내용을 실제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모임은 “실천활동 씨티플레이어”를 통해 직접 문화적인 해결방안을 실행해 볼 수 있다. 씨티메이커스에서 촉발된 고민과 관계는 씨티플레이어 외에도 “수원은 실험실”을 비롯한 문화도시 수원의 다른 시민주도 활동 사업으로 확장되어왔다. 이번 인문도시주간 공유회에서는 2022년도 씨티메이커스 103개 모임의 의제를 <지역>, <시민>의 두 분야로 나누어 각 5팀씩 총 10팀의 활동 확장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또한 인문도시주간의 메타버스 공간인 개더타운에서도 실시간 중계하고 메타버스 관람객들도 발표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진행방식

- 씨티메이커스 모집 당시 의제 분류를 기초로, <지역-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시민- 다양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발표 진행
- 지역, 시민 분야의 사례 발표 모임 각 5팀을 대표해 이야기할 발표자를 팀별 1인씩 총10인을 사전선정
- 발표자 1인당 10분 분량으로 본인이 소속된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가 <씨티플레이어>, <수원은 실험실>, <웰컴 투 수원> 등으로 활동이 확장 및 발전된 사례를 발표

마. 현장운영

| 분야 | 모임명(주제) | 참여 사업 | 발표자 |
|---|----------------------------|-----------------|-----|
| 섹션1. 지역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14:00~15:30 (질의응답포함) | 지구인의 놀이터 (업사이클링 시민활동) | 씨티플레이어 | 김민정 |
| | 마을살이 정류장 (마을공동체 형성과 확산) | 협동조합 설립 등 외부사업 | 성말연 |
| | 플랜맨 (지속가능한 로컬문화) | 씨티플레이어, 수원은 실험실 | 정현빈 |
| | 우리동네 미인 (로컬문화 발굴과 활용) | 씨티플레이어 | 권오련 |
| | 문화 꿈꾸다 (생태자산의 보호와 활용) | 씨티플레이어, 수원은 실험실 | 최란희 |

| 분야 | 모임명(주제) | 참여 사업 | 발표자 |
|---|----------------------------------|------------------|-----|
| 섹션2. 시민 다양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15:40~17:10 (질의응답포함) | 봄봄 (학부모와 영유아가 행복한 도시) | 웰컴 투 수원 | 김혜수 |
|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인과 이주민 문제) | 웰컴 투 수원 | 최혜란 |
| | 아티스트웨이 (지역 여성의 자립을 위한 콘텐츠 기획) | 씨티플레이어, 수원은 실험실 | 이주영 |
| | 씨드 (지역 노인을 위한 정책 제언) | 수원은 실험실, 웰컴 투 수원 | 한찬선 |
| | 꿈꾸는 청소년 이야기 (지역 청소년의 성장) | 씨티플레이어(2021) | 김민지 |

아.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비고 |
|-------------|------------|--------------|
| 11명(사회자 포함) | 약 20여명(현장) | 메타버스 관람객 73명 |

사. 성과 및 보완점

- 주제별로 시민을 초빙하여 씨티메이커스에서 촉발된 활동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공유할 수 있었다.
- 평일 오후 시간대에 진행하여 현장 관람객이 많지 않았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타버스로 중계하고 이를 씨티메이커스 전체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하여, 현장에서 참관하지 못하는 시민도 온라인을 통해 참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후 시민활동가들을 위한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어진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결과공유회

수원의 안부, 安否

프로젝트 결과 공유회

가. 일 시 : 2022.10.17.(월) 10:00 ~ 11:3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마을잔치와 같이 전 세대가 결과공유회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노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고, 4개의 노인 문화예술 프로젝트 팀별로 창작한 결과물 및 활동 과정 기록물을 전시, 상영회 등의 형태로 참여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공유하는 자리

라. 진행방식

- 4개의 노인 문화예술 프로젝트 팀별로 창작한 결과물 및 활동 과정 기록물을 담은 전시, 상영회
- 가족과의 즉석 전화 연결 이벤트를 통해 사연 받아 발표
-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연을 바탕으로 즉석 연주 공연
- 프로젝트 결과물 나눔 및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무드등 키트 선물 제공

마.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포럼용 무대 설치(자체제작) - 무대 배경막 설치 - 영상자료 송출을 위한 빔프로젝터&스크린 설치 | |
| 객석 | - 청중의자 40개 - 계단 방석 20개 | |
| 음향 | - 행사 시작 10분전 BGM ON - 객석옆쪽으로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대행업체 셋팅 |
| 영상&사진 | -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 | |
| 홍보물 | - 수원의 안부 포스터, 전시물, X배너, 판넬 설치 | *전시물, 결과물 16일 진행 |
| 인력 | -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 |

바. 프로그램

| 구분 | 비고 |
|---|--|
| 사전행사 전시, 상영회 10:00~10:30 | - 4개의 노인 문화예술 프로젝트 팀별로 창작한 결과물 및 활동 과정기록물을 담은 전시, 상영회 |
| 행사1부 예능형 라이브 방송, 할렉스 10:30~11:00 | - 가족과의 즉석 전화 연결 이벤트를 통해 사연 받아 발표 -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사연자에게 선물 증정 |
| 행사2부 공연 메이플뮤직 11:00~11:15 | -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연을 바탕으로 즉석 연주 공연 |
| 마무리 11:15~11:30 | - 단체촬영 - 프로젝트 결과물 나눔 및 선물 제공 |

사. 참여인원

| 진행자(발제, 토론자) | 행사참여자 | 비고 |
|--------------|-------|----|
| 2명 | 약 60명 | - |

아. 성과 및 보완점

- 3개월간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결과물과 창작물을 전시하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젝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창작물이 전시되고 시민들과 공유하여 부듯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 행사장소 111CM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와야한다는 불편한 점이 우려되었지만 버스대절을 통해 60명의 많은 참여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결과공유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떡 만들기 체험, 무드등 키트, 공연 등 각자 프로젝트에서 했던 활동을 다른 프로젝트 참여자들도 체험할 수 있게 활용하여 구성하여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다.

자.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웰컴 투 수원

활동 공유 워크숍

가. 일 시 : 2022.10.20.(목) 14:0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 내 용

2022년도 문화도시 수원의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웰컴 투 수원)참여 시민탐구모임을 대상으로 각 모임의 활동 내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전개합니다.

라. 진행방식

- <우리 삶 속에서의 문화다양성 이해와 실천 방향>문화다양성 강연
- 심도있는 활동 공유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그룹 워크숍 강연

마.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무대 | - 포럼용 무대 설치(자체제작) - 무대 배경막 설치 - 영상자료 송출을 위한 빔프로젝터&스크린 설치 | |
| 객석 | - 청중의자 40개 - 계단 방석 20개 | |
| 음향 | - 행사 시작 10분전 BGM ON - 객석옆쪽으로 음향시스템(음향감독) 설치 | *대행업체 셋팅 |
| 영상&사진 | -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 | |
| 홍보물 | - 워크숍 포스터, 전시물, X배너, 판넬 설치 | 20일 설치 |
| 인력 | - (주) 행복한 상상 | |

바. 프로그램

| 구분 | 비고 |
|--------|------------------------------------|
| 라운드테이블 | 14:00~14:50 인사 및 각 시민탐구모임 활동 내용 소개 |
| 휴식 | 14:50~15:00 휴식 및 준비 |

| 구분 | 비고 |
|-----------------------|---|
| 1부. 문화다양성 강연 | 15:00~16:20 강연자 : 송경희 우리 삶 속에서의 문화다양성 이해와 실천 방향 |
| 휴식 | 16:20~16:30 휴식 및 준비 |
| 2부. 문화다양성 그룹워크숍 | 16:30~17:50 퍼실리테이터 우지연(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고주영(독립 프로듀서) 이초영(별일사무소 대표) 강영훈(출판사 제람씨 대표) |

사. 참여인원

| 진행자(발제, 토론자) | 행사참여자 | 비고 |
|--------------|-------|----|
| 2명 | 약 29명 | - |

아. 성과 및 보완점

- 강의를 통해 기존 참여자들이 다양성 관련 이해가 낮았던 부분에 대한 해소와 추후 연계사업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워크숍 참여 태도를 가져왔다.
- 참여자들의 관심사 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룹 워크숍을 진행하여 세부적이고 개별 맞춤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참여자들이 시민이다 보니 평일 낮 시간대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전체 참가자 참여율이 낮았던 부분이 아쉬웠다. 추후 다시 진행한다면 사전에 참석률이 높은 시간대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개선하면 좋겠다.
- 화서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 접근성은 좋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참여자들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 현장 사진



문화도시 연계사업

프로그램

생활문화네트워킹활성화

<우리들의 사이시옷>

아. 현장 스케치



봄봄공방 - 가방의 원리 배우기



지니얼스 - 양말목방석 만들기

가. 일 시 : 2022.10.18.(화) ~ 10.19.(수)

나. 장 소 : 봄봄공방(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 30, 601호),
지니얼스(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66, 2층 204호)

다. 내 용

봄봄공방 : <가족공예로 사이시옷 하자>

가족공예를 통해 연령, 성별 구분없이 새로운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공예의 전반적인 이론 수업 및 천연 소가죽을 이용하여 가죽소품 및 가방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지니얼스 : <지구에 무해한 하루>

버려지는 양말목을 이용해 업사이클링 방식 만들기!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버려지는 자원을 아낄 수 있으며 난이도가 쉬워 환경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라. 진행방식 : 사전접수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마. 현장운영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족공예 프로그램 운영
- 현 시대의 흐름(환경보호)을 반영한 새로운 생활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바.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비고 |
|-------|-----|----|
| 3명 | 11명 | - |

사. 성과 및 보완점

- 해체된 이웃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공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관계망 형성
- 협소한 공간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저조

문화도시 연계사업
 프로그램
문화도시 아카이브
- 도시기록단 아카이빙 프로젝트

가. 일 시 : 2022.10.15.(토) ~ 10.23.(일)

나. 장 소 : 개더타운(메타버스)

다. 내 용

- 21년부터 양성한 도시기록단과 함께 재개발 예정지인 매탄주공 4, 5단지의 생태 및 공간 아카이빙 진행

※ 매탄주공 4, 5단지는 85년 사용승인 된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4,000세대)로 재개발 및 이주 예정지임. 수원시 주거형태 60%를 차지하는 아파트 중 오래된 저층아파트(5층)로 다양한 자연생태, 공간, 사람, 재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함

라. 진행방식 : 아카이빙한 사진을 개더타운(메타버스)을 통해 전시

마.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방문객 | 비고 |
|-------|------|----|
| - | 282명 | - |

바. 성과 및 보완점

- 지역 아카이빙을 통한 수원시민들의 관심 및 이해도 증진
- 아카이빙 프로젝트 효과 확산 및 홍보 극대화를 위한 오프라인 전시 필요

사.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미디어로 만나는 문화도시 수원, 미디어 차차(車車)>

가. 일 시 : 2022.10.22.(토) 13:00 ~ 14:00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야외

다. 내 용

이동형 오픈 라디오 부스를 이용하여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방송 형식을 통해 문화도시 수원을 홍보하고, 인문도시주간 행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퀴즈, 공연 등을 통해 방송을 운영하였다.

라. 진행방식

- 1부 - 문화도시 수원 소개 및 홍보
- 2부 - 인문도시주간 행사 소개
- 행사장 야외 공간에 오픈 라디오 부스를 마련하여 공연과 퀴즈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방송을 진행하고, '문화도시 수원' 유튜브 채널과 '수원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였다.

마. 현장운영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인력 운영 | · 라디오 출연 MC - 수미사협 2인 · 음향, 촬영, 스트리밍 등 - 수미사협 3인 · 게스트 - 인터뷰 2인 (동화책 작가, 지역 예술가) · 공연 - 2팀 | - |
| 부스 운영 | · 09:00~12:00 부스 설치 · 12:00~13:00 리허설 · 13:00~14:00 방송 송출 · 14:00~16:00 부스 철수 | - |

바.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방문객 (스트리밍 조회수) | 비고 |
|-------|----------------|----|
| 9명 | 400회 | - |

사. 성과 및 보완점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새로운 홍보 매체를 활용하였으며, '문화도시 수원'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수원 FM' 유튜브 채널과 동시에 스트리밍하여 폭넓은 시청자 층을 확보하였다.

또한 행사와 연계하여 공연과 즉석 퀴즈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수원 시민이자 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직접 대본과 촬영,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이 만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매체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아. 현장 스케치



문화도시 연계사업

전시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 결산전시

가. 일 시 : 2022.10.22.(토) ~ 11.13.(일)

나. 장 소 : 푸른지대창작센터 오픈스페이스

다. 내 용

2022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은 '수원 비행장'으로 불리는 '제10 전투비행단'의 이전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군 비행장은 수원 지역 현세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흥미로운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개발과 재생/공유에 대한 관점을 재고하고 다른 의견을 생성하여 도시 곳곳의 비었던 곳, 빈 곳, 빌 곳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공간과 개념, 방식을 구분 짓는 3개의 사이트-ON/CLOUD/WITH SITE로 운영되며 예술가-연구자-기술자-전문가-활동가 등 각계의 도시생활자들이 모여 조사와 연구-활동 및 교육-기록과 표현, 발신을 기반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멈추면 생동>은 수원 탑동시민농장 실험목장 AGIT를 거점으로 진행합니다.

#사이트 소개

ON site (여기)

비행장을 비운다고 가정하자. 다른 용도로 쓰기 전에 '비워둔 채 쓰는 시간'을 더 길게 해보면 어떨까? 이 시간 동안 늘어나는 1인 생활자, 노인, 청년, 여성, 이주민, 반려동물/식물과 생활하는 사람들이 쓰는 공간을 생각해보자. 삶에 꼭 필요한 공간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그려본다.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중심이 된 스튜디오로 운영된다.

CLOUD site (저기)

기후, 기술, 생태/환경의 대변동 시대에 지정학적 갈등 격화. 전통 커뮤니티와 산업의 붕괴가 가속되고 있다. 익숙했던 경계들이 무너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를 세워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무엇에 저항해야 할까? 각각의 영역에서 제작/연구, 활동으로 다른 관점을 만들어 내고 연대하고 연결하는 창작자들의 활동

WITH site (거기)

비행기의 소음과 고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옛 서울농대 터와 수원 일대에서 일어나는 아름답고 스펙타클한 삶의 장면들에 주목한다. 생활공간의 일상 실험지로서 도시, 장소, 공간은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관찰-탐구-연결-활동-대화-연대가 연쇄적으로 우연히 교차하는 활동들

라. 진행방식 : 전시

마. 전시운영 : 10.22.(토) ~ 11.13.(일) 10:00 ~ 17:00 운영(월요일은 휴무일)

바. 참여인원

| 진행참여자 | 관람객 | 비고 |
|-------|--------|----|
| 73명 | 4,500명 | - |

사. 성과 및 보완점

폭격기 소음 영향권에 있는 수원시 주민 18만 5천명, 개발과 연동될 수 있는 땅 천만평 이상인 서수원 비행장 인근 주변을 '도시생태문화 안전구역'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예술작업 시도

성장 일변도의 한국사회 변화, 기후위기, 기술사회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대변동시대의 거대 담론과 서수원 권역의 구체적 장소성을 동시에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외 전문가, 예술가, 연구자, 활동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대화하는 기반 마련

아. 현장 스케치



홍보물 제작

인쇄물 종류 및 수량

| 종류 | 포스터 | 사전 리플렛 | 본 리플렛 |
|-------|--------------|----------------------------|------------------|
| 수량 | 1,800장 | 5,000부 | 6,000부 |
| 재질&유형 | 스노우 화이트 180g | 아코팩 내추럴 120g / 접지형 12p(날개) | 람데뷰105g / 중철 40p |

포스터



사전 리플렛(접지형 12p-날개)



07

제7장 홍보물 제작

옥외홍보물 - 인문도시주간 전체 홍보

| 종류 | 가로등 배너 | 현수막 | 패트지 |
|----|--------|--------------|-------------|
| 수량 | 90조 | (10종-사이즈 다름) | (2종-사이즈 다름) |

가로등 배너

가로등 배너 / 사이즈 : 60cm*180cm



현수막

현수막 / 사이즈 : 가로500cm*세로7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600cm*세로7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2500cm*세로15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820cm*세로9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680cm*세로7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820cm*세로9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370cm*세로9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340cm*세로9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130cm*세로430cm 현수막 / 사이즈 : 가로140cm*세로430cm



패트지

패트지 / 사이즈 : 가로 320cm*세로 265cm



패트지 / 사이즈 : 가로 284cm*세로 265cm



옥외홍보물 - 인문도시주간 개별 프로그램 홍보

| 종류 | 무대 현수막 | 박람회 현수막 | 프로그램 현수막 | 프로그램 X배너 |
|----|--------|---------|----------|----------|
| 수량 | 총 2조 | 15개 | 6개 | 2종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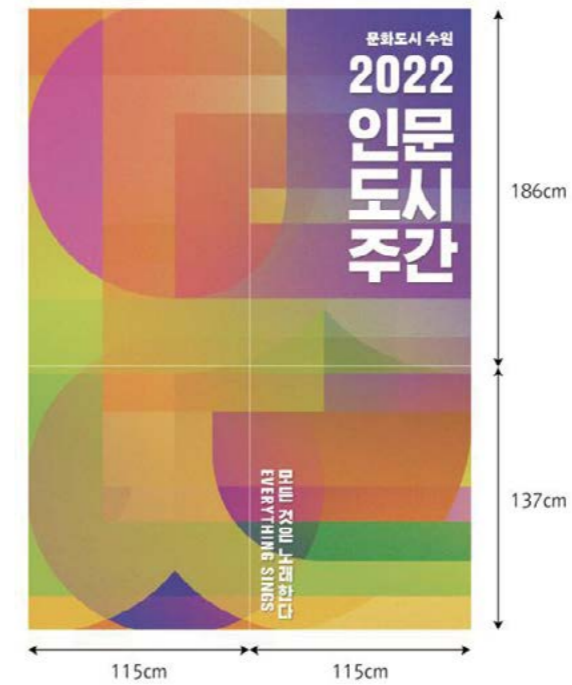
111CM 무대 현수막



행궁동 야외 무대 현수막



무대백월 측면 현수막



박람회 현수막

플리마켓 현수막 / 사이즈 : 162cm*30cm



프로그램 현수막

안녕, 행궁동 야외행사 일정표 현수막 / 사이즈 : 가로 100cm * 세로 150cm 시민광장 야외행사 일정표 현수막 / 사이즈 : 가로 100cm * 세로 150cm



프로그램 팸트지

팸트배너 / 60*180cm

팸트배너 / 60*180cm



08

제8장 홍보 및 행정지원

온라인 홍보

수원시 공식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문화도시 수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wculture.or.kr>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 <https://www.swc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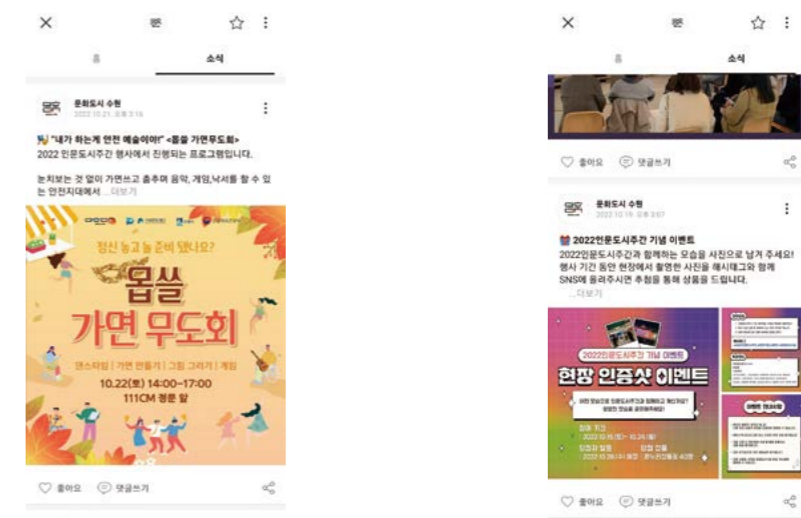
월간 문화도시 수원 인쇄물 게재 - 10월호 기획기사 작성



수원시청 홈페이지 : <https://www.suwon.go.kr/index.do>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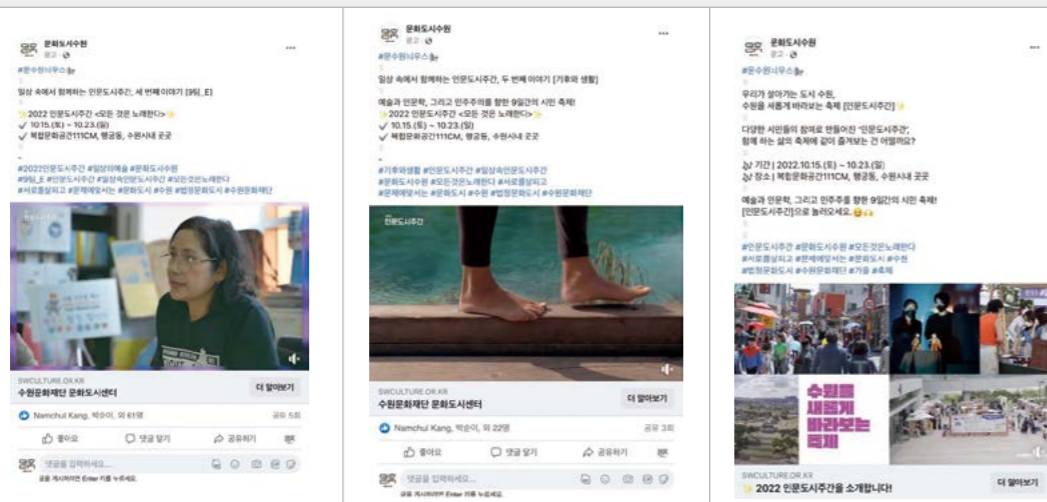
수원문화재단 가입회원 대상 문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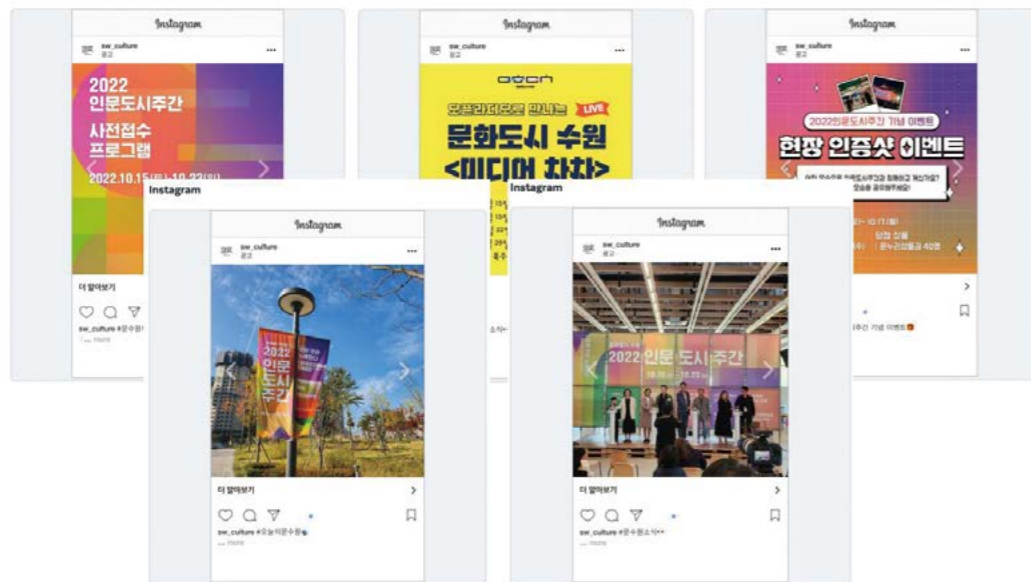
온라인

- 공식 네이버 블로그 계정 운영 : <https://blog.naver.com/suwonxnowus>
 - 내용 : 포럼 및 실행그룹 별 프로그램 소개, 사전참가신청, 인문도시주간 정보 등록
- 기타 웹사이트 연계 홍보
 - 인문도시주간 참여 책방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활용
 - 유관기관을 통한 메일링 의뢰(수원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등)
 - 인문클럽
- 온라인 홍보 전문업체와의 협업
 - GDN 광고를 통한 온라인 매체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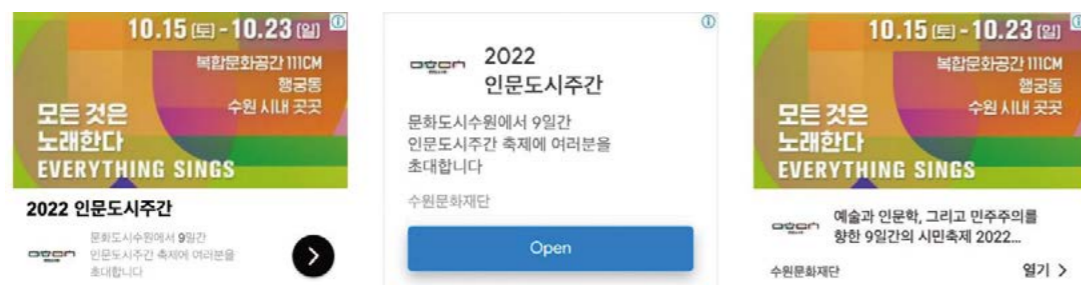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오프라인

- 관내 주민센터 내 포스터, 리플렛 비치
- 관내 아파트 단지 관련 공문 전송
- 주요언론사 기획기사 노출
- G버스 노출

경기도 G-버스



우천시 대책

- 복합문화공간 111CM
 - 실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일정 변경없이 진행
- 행궁동 차 없는 거리(10/22)
 - 기상상황 시간대별 모니터링 후 필요시(기상악화 등) 장소 이동 및 이동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 취소
 - 프로그램 취소·변경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블로그, SNS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정보전달

인력운영

- 내용
 - 인문도시주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행그룹과 관람객을 돕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 관객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지 배부 및 수거는 파견인력이 담당
- 업무분장 및 인력현황

| 구분 | 인원 | | 업무분장 |
|--------|-----|---------|------------------------------------|
| | 담당자 | 파견 (음향) | |
| 총감독 | 1 | | - 인문도시주간 전체 총괄 |
| 수원문화재단 | 3 | | -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지원(재단 내부 추가 지원인력 파악) |
| 코디네이터 | 1 | | - 인문클럽 5색 프로젝트 운영 및 행사 지원 |

| 구분 | 인원 | | 업무분장 |
|-----------------|-----|--------|--|
| | 담당자 | 파견(음향) | |
| 매니저 | 1 | | - 실행그룹 프로그램 및 운영 관리 - 축제의 전반적인 인력 및 물품 운영 |
| 문화도시의 밤 | 2 | 2(1)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음향 설치 및 관리운영) |
| 도시&기후 포럼 | 1 | 2(1)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음향 설치 및 관리운영) - 영상장치 설치는 임대업체에서 담당 |
| 영화로운 시네마 | 7 |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파견인력 없이 시민기획단 나침반 인력으로 운영 |
| 9일간의 책 여행 | 3 | 0(1) | - 프로그램 진행(음향 설치 및 관리운영) |
| 책 놀이터 | 3 |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
| 시민광장 | 2 | 2(1)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음향 설치 및 관리운영) |
| 안녕, 행궁동 | 5 | 2(0)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음향 설치 및 관리운영) - 차 없는 거리 차량 통제 및 진행인원 관리 (행궁동 주민40여명 외) - 소형 음향기기 관리운영 |
| withYOU, withME | 1 |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
| 청춘예찬-희곡 | 1 |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
| 청춘예찬-음악 | 1 | |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
| 월간문화포럼 | 1 | | - 소셜드림프로젝트 코코코에서 진행하며 기본 인력은 코코코에서 배치. 인력 추가로 필요시 지원 |
| [전시] 인문실천 아카이브 | 1 | | - |

행정사항

- 동일시기 연계 행사 업무 협의
 - 복합문화공간 111CM : 수문장, 인문클럽, 책 놀이터 간 구역 확인
 - 행궁동 차 없는 거리
- 111CM 차량관련
 - 111CM 주차장 : 행사 3일전 외부차량 이동조치하여 출연자 주차 공간 확보
 - 셔틀버스 : 행사장과 지하철 역까지 셔틀버스 운영(주말만 운영)
- 비상연락망
 - 스태프 비표 뒷면에 본부, 보험사 등 필수 연락처 기재

디자인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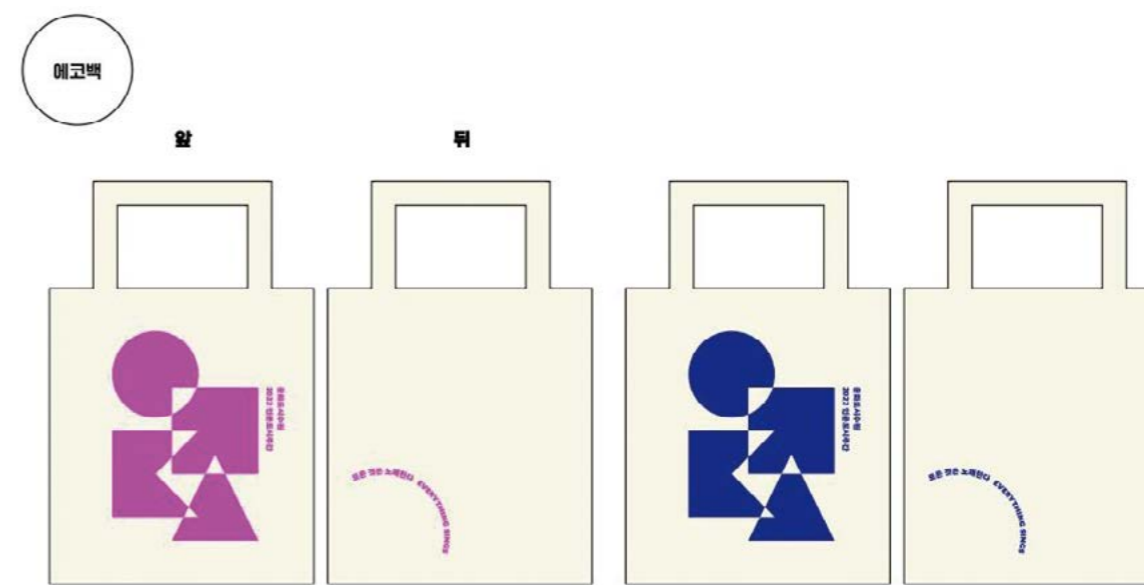
티셔츠 · 에코백 · 배지 제작

| 종류 | 티셔츠 | 에코백 | 배지(badge) |
|----|----------------------------|-----------------------|------------------|
| 수량 | 640장 (XXL, XL, L, M 4종) | 1,000개 (핑크, 블루 2종) | 2,550개 (총17종) |

티셔츠



에코백 2종



배지 17종



4.7cm



3.3cm



09

제9장 공간 조성

축제라운지
사무공간
전시 및 무대공간 구성

공간 조성

1. 축제라운지

가. 운영기간 : 10월 14일(금) ~ 10월 23일(일)

*111CM 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조정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다목적실

다. 내 용

인문도시주간 기간동안 출연자의 대기공간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111CM에 조성하여 운영

라. 운영방식

- 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2018~2022), 문화도시 조성사업(2022) 사업 포스터 및 홍보 영상 상영
- 2) 포럼 패널, 사회자 및 내빈 안내 공간으로 사용
- 3) 빈백 등 관람객 휴식 공간 제공

마. 현장필요물품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111CM 창의예술 실험실 | - 노트북 2개, 프린터 1개, A4용지, 사무용 테이블, 의자 세팅 - 출연자, 실행그룹과 직원을 위한 간단한 다과(커피머신, 과일, 사탕 등) - 출연자용 인문도시주간 기념품(에코백, 티셔츠, 배지, 시집 등) 보관 |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창작시 공모 당선자를 위한 시집 및 선물꾸러미 보관 | |
| 인력 | - 담당자 이보영 매니저 | |
| 기타 | - 진행인력 및 출연자용 다과물품 구비 - 사고대비 보험사 연락처 및 응급처치키트 비치 | |

사. 변동 사항

- 1) 출연자의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동선 및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대 백월 뒤쪽에 출연자 대기 공간 마련

아. 현장사진



2. 사무공간

가. 운영기간 : 10월 12일(수) ~ 10월 23일(일)

*111CM 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조정

나. 장 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창의예술실험실

다. 내 용 :

인문도시주간 기간동안 축제 운영지원 및 행정업무를 위한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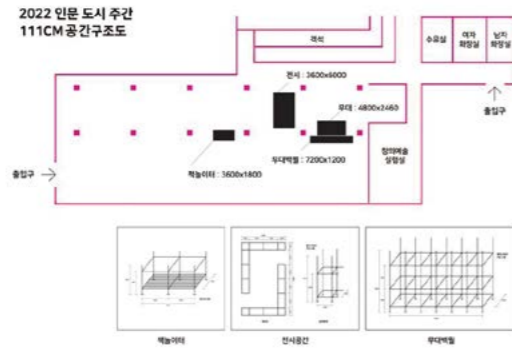
라. 운영방식

- 1) 현장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무용 공간 구성
- 2) 진행인력의 휴게를 위한 공간 조성
- 3) 다과물품(커피, 차, 종이컵) 구비

마. 현장필요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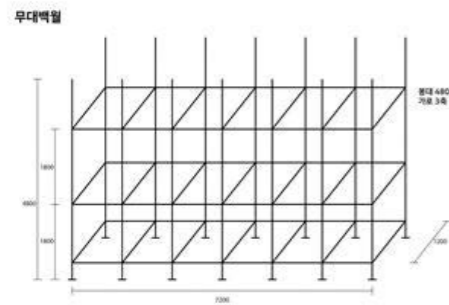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 111CM 창의예술 실험실 | - 노트북 2개, 프린터 1개, A4용지, 사무용 테이블, 의자 세팅 - 출연자, 실행그룹과 직원을 위한 간단한 다과(커피머신, 과일, 사탕 등) - 출연자용 인문도시주간 기념품(에코백, 티셔츠, 배지, 시집 등) 보관 | |
| 홍보물 | - 인문도시주간 포스터, 리플렛 비치 - 창작시 공모 당선자를 위한 시집 및 선물꾸러미 보관 | |
| 인력 | - 담당자 이보영 매니저 | |
| 기타 | - 진행인력 및 출연자용 다과물품 구비 - 사고대비 보험사 연락처 및 응급처치키트 비치 | |

3. 전시 및 무대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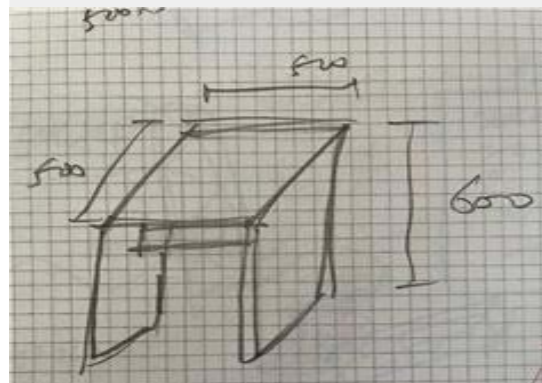


가. 복합문화공간 111CM 메인무대 디자인

- 시스템 비계를 활용하여 무겁지 않은 무대백월을 구성하고 그 프레임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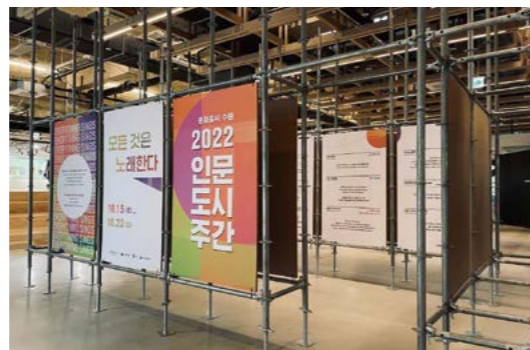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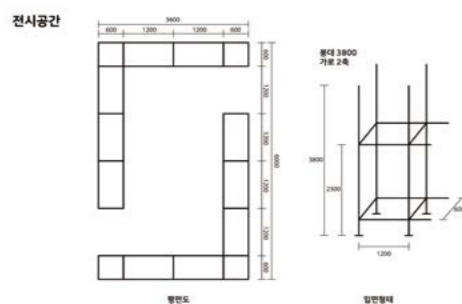


111CM 무대백월 디자인



나. 복합문화공간 111CM 비계전시공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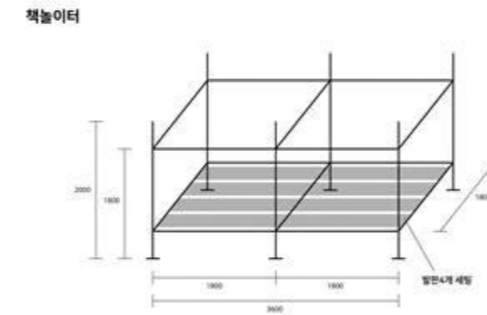
- 비계 프레임을 활용, 그 안에 월을 만들어 다양한 정보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



111CM 비계전시공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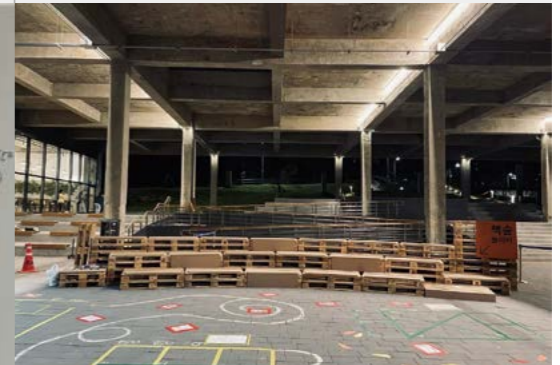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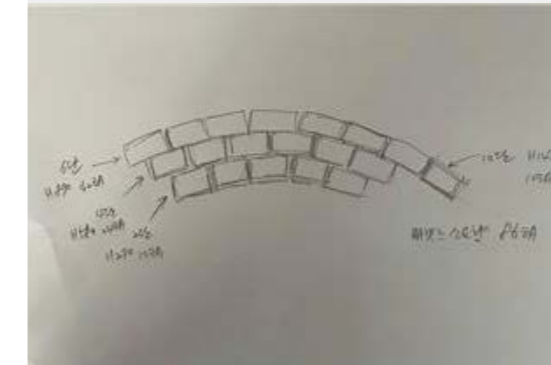
다. 복합문화공간 111CM 책놀이터 관련 디자인

- 책놀이터 센터 : 시스템 비계를 활용하여 대청마루나 평상의 느낌을 연출,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책놀이터 야외공간 : 바레트의 단차를 주어 로마시대의 원형경기장의 느낌을 연출, 층별로 올라가 편안하게 즐기거나 앞마당에서 노는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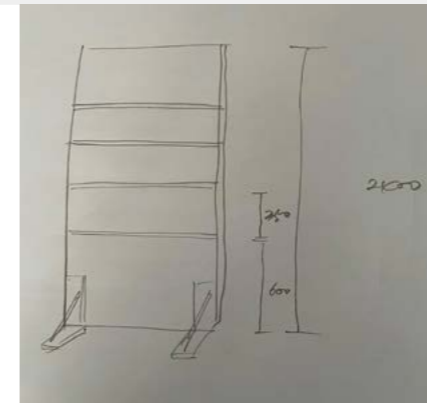
책놀이터 센터 설계도

설치 완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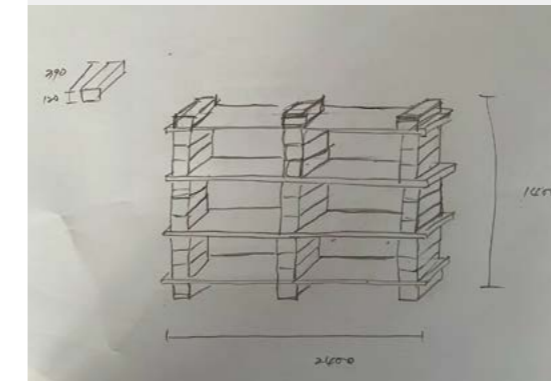
책놀이터 야외공간 스케치

설치 완료 후



책 선반 디자인 A형 스케치

설치 완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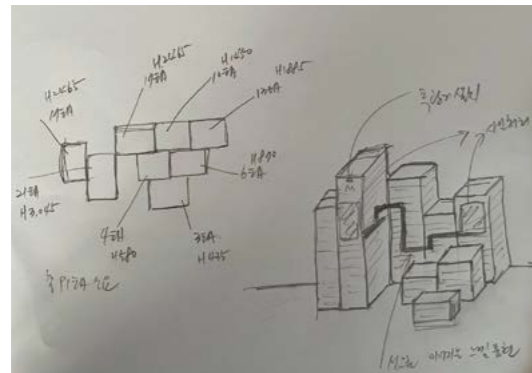


책 선반 디자인 B형 스케치

설치 완료 후

라. 복합문화공간 111CM 야외공간 디자인

- 비계 프레임을 활용, 그 안에 월을 만들어 다양한 정보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



111CM 야외공간 포토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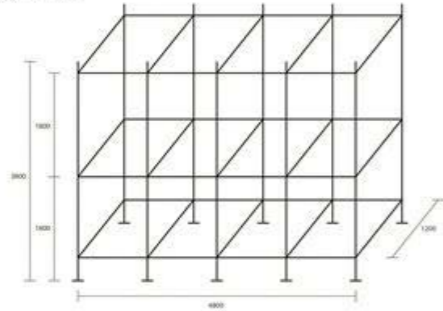


설치 완료 후

마. 화령전 앞 무대 및 공간 구성

- 무대의 중앙을 화령전 옆으로 위치하여 문화재와 무대가 한눈에 담길 수 있도록 배치.
- 쉼터의 배치는 화단의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곡선을 주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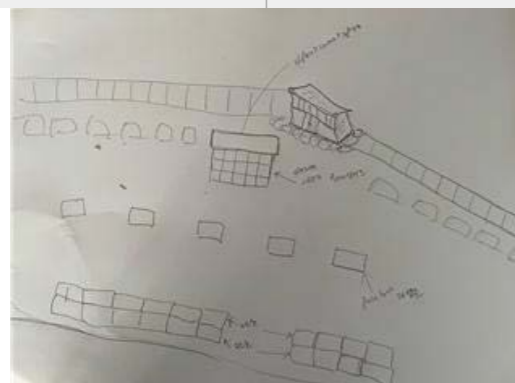
야외광장무대 벽면



화령전 앞 무대 디자인



설치 완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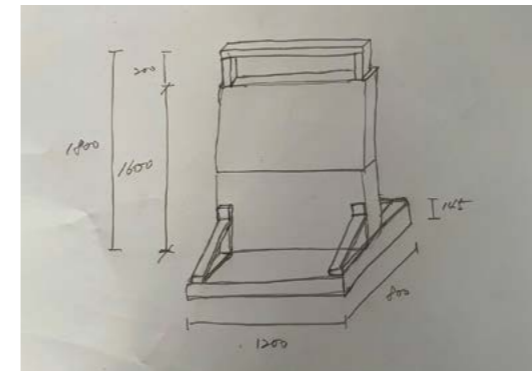


화령전 앞 공간 조성 스케치



설치 완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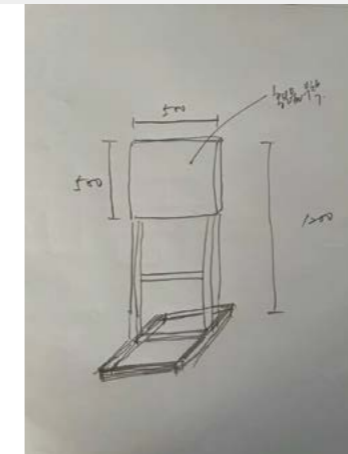
바. 기타 이동식 집기 디자인



안녕, 행궁동&시민+광장 프로그램 안내판 스케치



제작 완료 후



오색프로젝트 프로그램 안내판 스케치



제작 완료 후



EVERYTHING SINGS
모든 것은 노래한다

문화도시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결과자료집

10. 15(토) ~ 10. 23(일)
북합문화공간 111CM
행궁동
수원 시내 곳곳

비고

부록

인문도시포럼 <만족도조사>

언론보도 성과

인문도시포럼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 속기록

기후포럼 '기후와 마음' 속기록

부록

인문도시주간 <만족도조사>



인문도시주간 <만족도조사>

본 설문조사는 (재)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향후 문화도시 사업 진행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성을 찾고자 합니다.

※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응답은 통계처리에만 활용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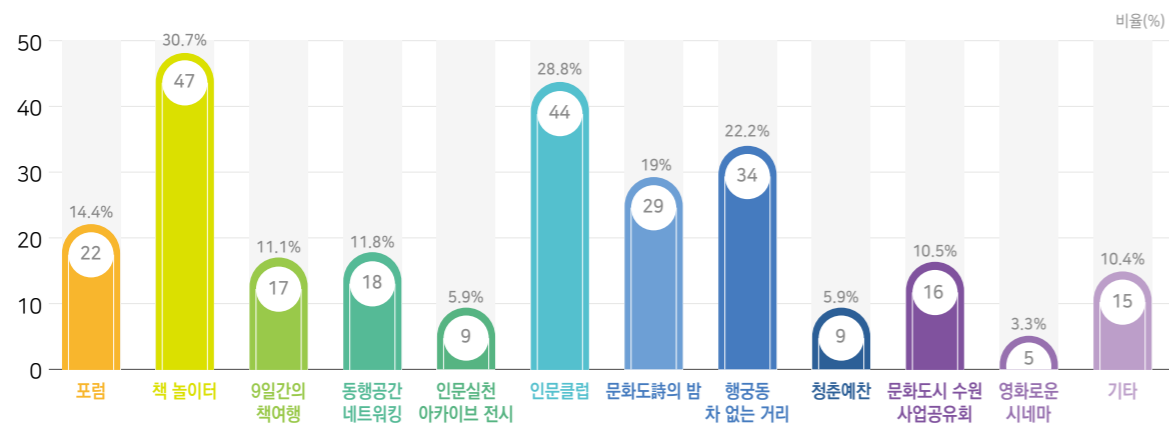
1. 2022 인문도시주간 행사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나요?

응답 1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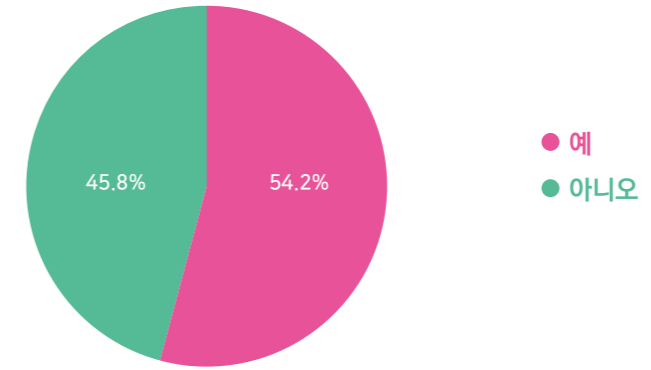
2. 어떤 프로그램을 관람/참여 하셨나요? (중복가능)

응답 1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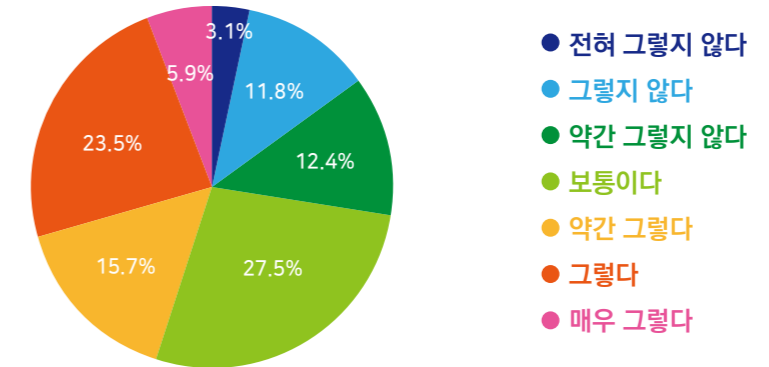
3. 2022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행사를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응답 1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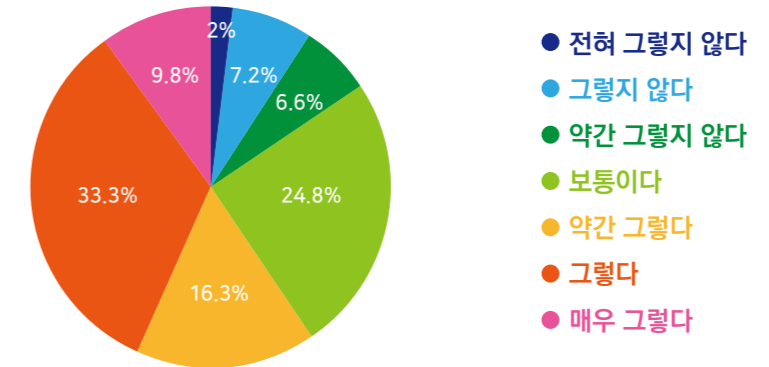
4. 2022 인문도시주간 행사 홍보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1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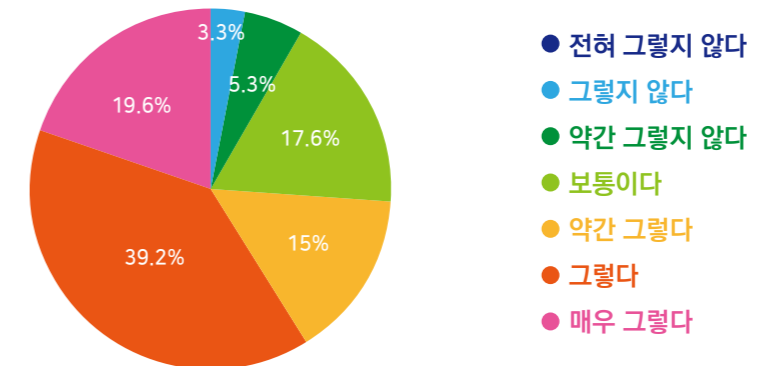
5. 2022 인문도시주간 행사 안내 및 해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1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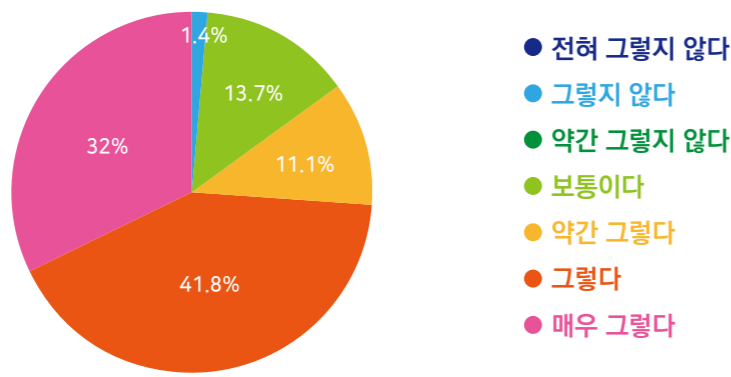
6. 2022 인문도시주간 행사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응답 1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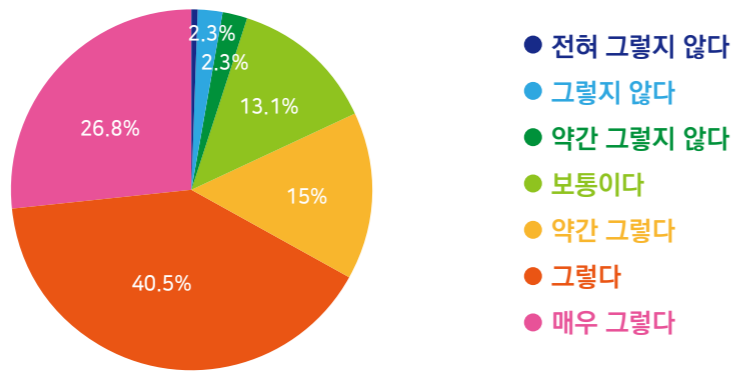
7. 2022 인문도시주간 행사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나요?

응답 1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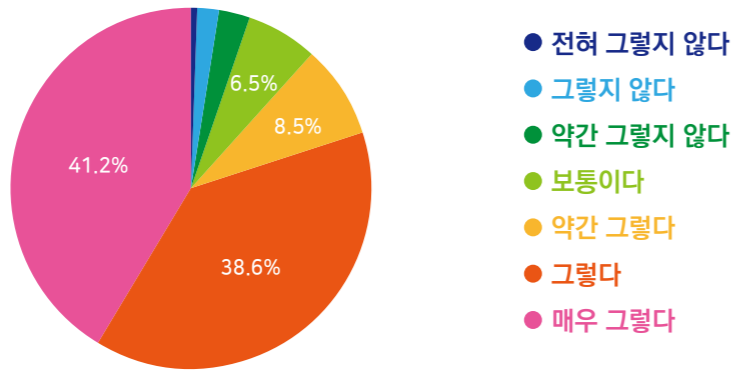
8. 2022 인문도시주간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응답 153개



9. 내년 인문도시주간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응답 153개



EVERYTHING SINGS
모든 것은 노래한다

문화도시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결과자료집

10. 15(토) ~ 10. 23(일)
북합문화공간 111CM
행궁동
수원 시내 곳곳

부록
언론보도 성과

언론보도

| 일자 | 신문사 | 제목 | 주소 |
|-------------|---------|--|--|
| 2022.10.12. | 기호일보 | 수원에 심은 '인문 새싹' 살핀다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262 |
| 2022.10.11. | 컨슈머타임즈 | 수원문화재단,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주제 시민축제 열어 |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117 |
| 2022.10.10. | nsp통신 | 수원문화재단,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시민 축제 개최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97388 |
| 2022.10.10. | 스카이데일리 | 수원 인문 포럼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69834 |
| 2022.10.10. | 열린뉴스통신 | 수원문화재단, 15일~23일 '인문도시주간-모든 것은 노래한다' 진행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40490 |
| 2022.10.13. | 뉴스핌 | 문화도시 수원 '인문도시주간' 15~23일 개최...공생공락 축제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13001058 |
| 2022.10.13. | 수원일보 | 수원시, '2022 인문도시주간 -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09 |
| 2022.10.13. | 디스커버리뉴스 | '문화도시 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 http://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91140 |
| 2022.10.13. | 프레시안 | '인문도시주간' 수원시,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130853064863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 2022.10.13. | 뉴스시스 | 수원특례시, '2022 인문도시주간 -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3_0002046318&cID=14001&pID=14000 |
| 2022.10.13. | 기호일보 | 수원특례시, '2022 인문도시주간 -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502 |
| 2022.10.13. | 시민일보 | 수원시 곳곳서 인문도시주간 행사 |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93079467209 |
| 2022.10.13. | 팍스경제 | '문화도시 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967 |
| 2022.10.13. | M이코노미뉴스 | 수원시 '문화도시'로 한 단계 비상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5417 |
| 2022.10.13. | UPI뉴스 | '문화도시 수원'의 2022년 가을, '모든 것이 노래한다' |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210130004 |
| 2022.10.25. | 뉴스웍스 | [수원소식] '힐링폴링 수원화성' 100만명 이상 찾아 내달 11일까지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 '인문도시 주간' 축제 마무리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70 |

| 일자 | 신문사 | 제목 | 주소 |
|-------------|---------|---|---|
| 2022.10.25. | 뉴스시스 | 수원시, '2022 인문도시 주간' 9일간 축제 마무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5_0002060511&cID=14001&pID=14000 |
| 2022.10.25. | 이뉴스투데이 | 수원시, '2022 인문도시 주간' 9일간 축제 마무리 | http://www.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918 |
| 2022.10.25. | 브릿지경제 | 수원시, '2022 인문도시 주간' 9일간 축제 마무리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1025010005998 |
| 2022.10.25. | 뉴스핌 | 수원시, '2022 인문도시 주간' 9일간 축제 마무리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25000229 |
| 2022.10.25. | 전국매일신문 | 수원시 '2022 인문도시 주간' 축제 마무리...3만 2000여 명 참여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63 |
| 2022.10.26. | 디스커버리뉴스 | 수원시, '2022 인문도시 주간' 9일간 축제 마무리 | http://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96646 |

PICK 언론사가 선정한 주요기사 혹은 심층기획 기사입니다. >

뉴스핌 2022.10.13.

문화도시 수원 '인문도시주간' 15~23일 개최...공생공락 축제

'2022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포스터 [사진=수원시] 2022 인문도시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차 문화도시'에 선정된 수원시가 추진하는 ...



수원일보 2022.10.13.

수원시, '2022 인문도시주간 -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2022 인문도시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차 문화도시'에 선정된 수원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전문가, 활동가 그룹과 시민...



디스커버리뉴스 2022.10.13.

'문화도시 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 '문화도시 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수원시가 15일부터 23일까지 복합문화공간 111CM과 시내 곳곳에서 '2022 인문도시주간-모...



프레시안 2022.10.13. 네이버뉴스

'인문도시주간' 수원시,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질문하는 도시문화로 도시접속하는 도시 등 3개 주제로 구성 경기 수원시는 오는 15~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과 시내 곳곳에서 '2022 인문도시주간-모든 것...



뉴스시스 2022.10.13. 네이버뉴스

수원특례시, '2022 인문도시주간 - 모든 것은 노래한다' 개최

기사내용 요약 15일~23일 111CM과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복합문화공간 111CM과 시내 곳곳에서 '2...



인생+

'시민-시인'의 탄생

입력 : 2022.10.27 03:00 | 수정 : 2022.10.27 03:04 | 고영직 문학평론가

“지옥이란 경이(驚異)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 경이로움이 내 안에서 죽었을 때, 권력(욕망)이 태어났다.” 아일랜드 시인 브렌던 케넬리가 한 이 말을 요즘 자주 생각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시대를 맞아 도무지 재미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나날의 삶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사는 게 나 같은 보통 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염원이기 때문이다.



고영직 문학평론가

시민들이 바라는 '사는 재미'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이다. 친구와 시시껄렁한 대화를 나누고, 연인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고, 가까운 벗들과 '불금'이면 우정의 술잔을 나누는 것 같은 사소한 행위들이다. 얼마 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시인 박준과 가수 김필의 공연 <시가 된 노래, 김필을 만나다>(양천문화회관)를 '직관'한 것은 소소한 행복이었다. 야구팬이라면 포스트시즌을 맞이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소한 일상은 나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배가된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작은 행복과 기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삶터와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가 재미있는 '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이란 결코 먼 이상이 아니다. 그러려면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자주 열려야 한다. 축제는 나와 당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의례(ritual)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지방정부 교체 이후 일부 축제들이 대폭 축소되는가 하면, 진행되는 축제마저 파행을 겪는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3고 시대를 맞아 문화예산은 1순위로 삭감되었다. 하지만 이른바 K컬처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다. 우리 삶에 '축적'된 문화의 힘에서 나왔다.

일상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할 줄 아는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사는 맛이 난다. 그러려면 어릴 때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놀 줄 몰랐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재미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고실업 시대에 소리 없는 외로움이 갈수록 확산되고, 기후위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나 죽은 뒤에 홍수가 나든 말든'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회는 진짜 '노답'이다. 인도 사상이 사티시 쿠마르의 말처럼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힘은 문화와 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수원 시민 113명이 '시민-시인'이 되어 시집을 펴냈다. 수원문화도시센터가 10월 인문주간을 맞아 시민-시인들의 시집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을 출간한 것이다. 어느 중학생이 쓴 "내 주변엔 맛있는 팝콘 천진데// 그런데/ 왜 나는 항상 탄 옥수수일까"(사랑)라고 쓴 연애시를 읽고 한참을 웃었다. 누군가를 웃게 하는 행위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을, 당신은 누군가를 웃음 짓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EVERYTHING SINGS
모든 것은 노래한다

문화도시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결과자료집

10. 15(토) ~ 10. 23(일)
북합문화공간 111CM
행궁동
수원 시내 곳곳

부록_속기록

인문도시포럼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
기후포럼 '기후와 마음'

인문도시포럼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 속기록

일시 : 2022년 10월 15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개회 오후 1시 30분)

사회 (노명우)

안녕하세요. 오늘 인문도시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안 계시고 카메라만 있어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포럼에 참가해 주셔서 포럼을 포럼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포럼에 참가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문도시포럼에서 다룰 주제는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입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 살고 있고, 도시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도시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될까, 아마 도시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한테 사회자의 역할이 부여되면서 인문도시포럼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기획되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인문도시포럼을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마침 또 얼마 전에 인문도시포럼과 관해서 수원문화재단으로부터 아주 짝막한 글을 하나 청탁 받았습니니다. 인문도시포럼을 생각하면서 제가 작성했던 글이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원고를 보냈으니까 아직 인쇄돼서 나오지

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문도시포럼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지 않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현재 문명의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적으로 함께함에서 솟아난 영향 덕택이죠. 도시는 함께함이 구체화된 공간이자 함께함의 다채로움을 펼쳐 보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함께함의 역량은 기원전 9천 년 전의 도시 괴베클리 테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괴베클리 테페 유적지에서 야생동물과 사람을 표현한 각종 조각상과 더불어 다량의 T자형 기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기둥 하나를 옮기려면 최소 500명 이상의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학자들이 추정하니 괴베클리 테페는 그 자체가 함께함의 전시장인 셈입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도시의 본질에 대한 가장 단순 명료한, 그렇기에 오히려 가장 적절한 생각거리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는 테크놀로지만 있으면 형성되는 인공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퇴적되어 빚어지는 공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에 기원전 4천 년경에 우루크가 출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강수량은 적고 땅은 메마르고 평평합니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물을 이용해야만 농업이라는 잠재력은 현실화될 수 있죠.

농사를 지으려면 관개사업이 필수적입니다. 관개사업은 괴베클리 테페보다 더 강력한 함께함을 요구했습

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우루크는 그렇게 만들어졌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기술적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은 기원전 9천 년 전에 괴베클리 테페에서 그리고 4천 년 전에 우루크에서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도시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도시 중앙에 공통적으로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죠. 누구의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모두에게 속한 공통적인 공간, 그 공통적인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도시는 낮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출현했고 그 합의가 무너지면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어떤 도시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중해 마그립지역의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이븐 할둔은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현상인 아사비아가 흥망성쇠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사비아는 생산력과 기술의 발달, 즉 공학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아사비아가 없는 도시는 소멸하고, 아사비아가 있는 도시는 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안녕이 궁극하다면 도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과연 나의 도시에는 아사비아가 있는지요.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다릅니다.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 풍족함을 즐기고, 풍요로운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즐깁니다. 풍족한 재물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주거복지가 모든 이에게 풍족한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목표를 지향하지만, 풍요로운 삶은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상상에 의해 채워지고 충족될 수 있습니다.

풍족함은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과 그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택과 기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만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 존엄에 걸맞은 삶을 보장하는 환경으로서의 도시와 풍족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는 다릅니다. 별도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담론은 지독한 불균형 상태에 있는데 공학적 유토피아 부동산 대박 신화라는 신기루 담론은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공동의 답을 내리려는 시도는 도시의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거주합니다. 부동산업자는 도시를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 우리가 형성한 사회적 관계 자본은 자본의 투여에 의해 개발될 수도, 상거래를 통해 판매될 수도 없습니다. 도시 내 상

업시설이 확충되고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는 인프라 구축은 삶의 질이라는 지표로 표현될 수 있지만, 삶의 질은 부유함의 측정에 가까울 뿐 풍요로움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유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질이 높지 않다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도시는 그 도시 내 사회적 관계의 질의 향상에 의해 일궈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평가하자면 아랍에미리트의 도시 두바이는 기적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있던 도시에는 꽃이 만발하고 중세 상업지역에는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분수쇼가 벌어지는 대형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도시 설계에 앞선 테크놀로지를 느낄 수 있지만, 오로지 일시적으로 그곳을 찾은 관광객으로만 채워진 두바이 도심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관계의 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바이는 풍족한 도시이지만 그래서 풍요롭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회의 질은 사람이 자기의 행복과 개인적인 잠재력을 키우면서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풍족한 도시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관계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빈곤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그저 인프라가 확충된 도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빈곤에서 벗어난 도시일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질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질은 공학적으로 공급 가능한 도시 인프라처럼 기계적으로 달성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경험으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은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있습니다.

첫째, 풍족함이라는 폐쇄적인 회로에 의해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한 사회적 관계의 질은 향상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질이 도시 내에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풍요를 향한 오솔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 합니다. 풍족의 회로에서 맴도는 사람에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풍요의 길을 향해 떠나는 사람에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고, 계다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골목길에 서점이 있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제대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친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스마트한 도시에 산들 관계가 스마트하지 않다면 그곳은 사람이 살 만

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무엇인가에 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반 일리치가 이야기했던 세상에 많으면 좋을 세 가지로 꼽았던 도서관, 자전거,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리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근대사회 시스템에서 예술적이고 자율적인 정서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은 교육 시스템에서 수동적으로 바뀌었고, 무한 성장과 속도의 사회에서 현대의 교통수단은 개인의 의지를 넘어 시스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상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일상에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조적이고 열려 있으며 동시에 사람의 힘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의 도구, 즉 도서관, 자전거, 시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풍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인문도시포럼입니다.

세 분의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게 될 텐데요. 먼저 자전거와 도시와 관련해서는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 그리고 도서관과 도시에 관해서는 두 번째로 사단법인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이신 이은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와 도시에 관해서는 전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이셨던 강원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강연

1 자전거와 도시

사회 (노명우)

먼저 첫 번째로 「자전거와 도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요즘에 트럼펫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시간 반 연습을 하고 집에 와서 좀 느긋하게 쉬다가, 저희 집은 수서 쪽입니다. 그래서 1900번 광역버스를 타고 여기 장안고등학교에 내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수원 인문도시 축제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우리 아이들 마음껏 떠돌고 뛰어놀고. 그래서 오늘 자전거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자전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 김태리 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저 역시 자전거를 자주 탑니다. 서울시 따릉이. 따릉이가 처음 나올 때부터 연회원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자주 탑니다. 저희 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청에 회의 갈 때도 가끔 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전거전용도로가 너무 부족해요. 제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에 지난 8월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암스테르담에 가서 학생들은 한 달, 저는 일주일 지내고 오면서 자전거의 천국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이야기도 유튜브에 많이 올렸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자체, 자전거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데, 이 자전거의 절친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보행. 그래서 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삼총사가 단단하게 연결이 되면 우리 도시의 대부분의 이동을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광주일보에 올해 초에 썼던 글

인데요. 사진들, 이를테면 유럽 뒤셀도르프역입니다. 철도역에 내리면 바로 역 앞에 이렇게 트램이나 버스, 어디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들이 바로 철도역 앞에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시내 교통뿐만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지금 보시는 것은 자전거 이를테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는데, 자전거를 타고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죠. 그때 한 무리가 가는 걸 보고 물었어요. 어딜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로 비유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갑니다. 여름휴가를 자전거를 타고. 그때 90년대 후반이었는데 서울역 앞에 풍경입니다. 서울역 앞은 대부분이 자동차 주차장 그리고 택시 승차장, 그리고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는 버스정류장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 많이 바뀌고 있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스, 자전거, 자가용이 사람들을 태워서 실어 나르는데 얼마만큼의 도시공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대중교통 버스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죠. 그리고 실제로 도로 위에 차지하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그런데 자가용은 한두 사람을 태우면서 정말 많은 공간들을 차지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도로는 뭘까.

도로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길 또는 거리, 가로라고 표현하는 영어로는 Street가 되겠고, 또 하나는 도로라고 표현하는 Road죠. 이 Road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빨리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로나 거리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고속도로가 Road일 테고, 시장길 같은 데가 Street겠죠. 친구도 만나고 구경도 하고 또 흥정도 하고. 도시의 도로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로 쓰일 때가 많지만, 횡단보도는 차도이면서 동시에 보도죠. 그리고 도로는 또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 공간만이 아니라 천천히 쉬는 곳이기도 해요. 때로는 도로 위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거리응원도 하고, 또 거리가 종종 무대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베니스는 해마다 1월인가요, 가면축제를 하죠. 이것도 역시 길거리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다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거리에서 벌어지죠. 가난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되기도 하고, 또 사진들도 길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럽 도시들에 가보면 가장 인기 있는 찻집의 좌석은 건물 안도 아니고 건물 창가 쪽도 아니고 바로 이 건물 밖이죠.

건물 밖에 보도 위에 차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을 보다가 힐끗힐끗 길을 지나가는 아주 한심한 남자를 쳐다보기도 하고 예쁜 여인을 쳐다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리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즐기면서 우리가 차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 이것이야말로 도시 삶의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죠. 또 거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쉬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파리 센 강변도로입니다. 평상시 주중에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주말에는 차를 막기 때문에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세발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도 있죠. 그리고 종종 차가 쓰던 도로를 차량통행을 막고 차 없는 거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 도로 설계의 관점보다는 차량 소통을 염두에 둔, 이런 도로 설계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도시 공간을 만든다, 도시 공간을 설계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주 다채로운 활동들이 우리 도로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 설계에 중점을 차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람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 네덜란드에서는 2016년부터 Bernard van Leer라는 민간재단이 Urban95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운동을 합니다. Urban 도시라는 뜻이고 95는 만 세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 키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어른의 눈높이로 보지 말고 만 세 살, 우리로 말하면 네다섯 살 꼬맹이들 눈높이로 도시를 보자. 횡단보도 앞뒤에 있는 가드레일의 높이가 1미터일 경우에 길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 아이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점에서 이동 약자들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도시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몇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잠실 신천역, 지금은 새내역이죠. 원래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네 군데 다 있었는데 2호선 신천역에 지하도가 만들어지면서 횡단보도 2개를 지웠습니다. 이쪽 방향에 있는 주민이 오른쪽 위 대각선 방향에 있는 새마을시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죠.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서 대기하고 있고 자동차 신호가 켜졌을 때 유아차를 밀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유아차도

차니까. 이렇게 길을 건너야 했던. 왜냐 하면 이 방법 말고는 지하도의 계단을 유아차를 접고 아이를 안고 오르내려야 합니다. 이 당시 90년대 후반에는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을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보면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는 200m 이내에 같이 설치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횡단보도를 자동차 통행을 가로막는 걸림돌 정도로 보는 거죠. 지하도가 뚫렸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지웠던 겁니다. 지금은 예외 조항이 만들어져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학교 앞에 통학로에도 길거리에 주차한 차량들 그리고 그 틈새를 오가는 차량들 때문에 아이들은 위험천만한 통학을 합니다. 지방에 가보면 국도 지방도 도로를 만들면서 차도만 만들고 보도를 만들지 않죠. 위험스러운, 정말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너게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이런 문제를 바꾸자는 생각에서 90년대 초반, 중반, 후반 ‘보행권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바꾸기 시작했죠.

덕수궁길이 왼쪽처럼 양 방향 차가 다녔고, 보도는 굉장히 웅색했던 이 길을 오른쪽 사진처럼 바꿨던 거죠.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그리고 속도를 못 내도록 도로를 휘게 했고, 나머지 공간들을 전부 사람에게 돌려준 거죠. 예술의 전당 앞에도 지하도만 있고 횡단보도가 없던 이곳에 횡단보도를 그었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90년대 후반에 인사동, 관철동, 명동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인사동의 경우도 처음에는 일요일만, 그다음에는 토요일까지, 그리고 지금은 종일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죠.

서울시청 앞 서울의 얼굴과 같은 이곳이 2004년 서울광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마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모든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데 사람들은 시청 앞을 땅 위로 건너갈 수가 없고 오직 지하도로만 건너갈 수 있었죠. 서울의 얼굴 시청 앞이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랬던 거죠.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전주에도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여러 지방 도시들에.

그리고 횡단보도 가운데 가장 사람을 배려한 횡단보도는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각선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 싶는데 가운데 X자 모양의 횡

단보도가 없으면 두 번 건너가야 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두 번씩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한 번에 건너가게 해주는 아주 사람을 배려한 횡단보도인데,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려면 모든 방향의 자동차가 동시에 멈춰야 하는, 이걸 All red signal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호주기가 하나 늘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렇지만 사람을 더 배려한다는 면에서는 아주 눈부신 횡단보도라고 할 수 있죠.

서울 광화문 앞에도 횡단보도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광화문에 지하도를 처음 개통할 때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을 할 정도로 지하도를 만든 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땅 속으로 길을 건너가게 하는 지하도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래서 광화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복원하자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횡단보도를 그으면 교통대란이 날 거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5년에 횡단보도를 그었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보1호 송례문도 자동차 바다 속 외딴 섬처럼 고립돼 있었죠. 송례문도 보도와 연결을 했죠. 그리고 광화문 세종로도 광장을 2009년에 만들었고, 최근에 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여서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시는 2017년에 4대문 안 한양도성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적색교통,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 또는 친환경 교통을 장려하는 곳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양도성 4대문 안에 녹색교통에 대한 배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던 서울역 고가가 지금은 사람길로 바뀌었고, 종로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종로 양편이 아니라 한쪽만 만들어졌고, 차선 하나를 통으로 준 게 아니라 절반쯤 웅색하게 주고 있죠. 다행히 작년 초였나요. 광화문에 서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에 차도를 하나씩 다 줄이고 이 공간을 자전거도로와 녹도로 바꾼 사람 숲길이 작년엔 개통이 되었죠. 이게 점점 서울 시내에서, 또 전국에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도 최근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정부는 이 부분을 또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우리 도시의 현실이었다면, 세계의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60년대 초부터 한 30여년을 저는 이걸 야금야금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도시로 바꾸는 일은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62년에 처음으로 도로 하나를 차량통행을 막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곳을 보행광장으로 바꿨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68년에 다시 그 구간을 확대합니다. 73년에는 더 많이 늘렸고, 88년, 92년, 96년까지 30여 년 동안 도심부에 약 10% 가까운 곳을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보행구역으로 오랫동안 바뀌온 거죠. 결국 자동차 도시를 대자보 도시로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강고한 지지 없이는 어렵습니다. 시민의 지지도를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유럽 도시들을 가보면 오른쪽 이런 표지판을 종종 봅니다. 이 표지판은 그림이 의미하는 것처럼 차와 사람이 함께 씩니다. 아이들은 공놀이도 할 수 있고. 이 길은 차와 사람이 함께 쓰되 사람이 우선인 도로다, 보행우선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보행우선도로가 시작됐던 것은 주민들이 먼저 했던 겁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던 동네 골목길에 차가 뽕뽕 다니고 아이들이 차에 치여 다치거나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도로 한쪽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차가 뽕 달리지 못하고 구불구불 돌아가게. 이것을 네덜란드 정부가 60년대, 70년대 후반에 본엘프(Woonerf 생활정원), 보행우선도로라는 제도로 받아들여서 동네의 도로들은 대부분 이렇게 운영하죠. 여기에서 운전자들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 걷는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못 내고,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의 과실로 처벌 받게 되겠죠. 속도규제 하는 이유도 자명합니다. 30km로 차를 몰고 가다가 15m 전방에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km로 달리면 아이를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시속 30km 이런 속도제한을 하는 거죠.

파리에 90년대 후반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시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를 막고 1만여 명의 인라인스케이터들이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90년대 후반 금요일 저녁에 이런 인라인 행진을 도시의 가장 중요한 도로에서 지속적으로 반

복적으로 했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감수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자가용 타기 좋은 도시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또는 인라인.

브라질 쿠리치바의 자이메 시장은 70년대 초반에 BRT를 최초로 개발해서 운영합니다. 대중교통 가운데 1세대 대중교통은 지하철입니다. 세계 대도시들이 대부분 지하철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하철은 건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1km에 1천억 원 이상 들어요. 지금은 아마 1,500억 원 정도 들 겁니다. 서울 수도권 지하철이 여전히 적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보다 돈이 덜 드는 2세대 대중교통으로 노면전철 트램이 등장했고, 트램은 1km 건설하는 데 한 400억~500억 정도. 그런데 브라질 쿠리치바는 70년대 초에 BRT를 개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보다 트램보다 훨씬 더 비용이 덜 드는 대중교통. 버스를 2~3대 연결하고 전용차로를 만들고, 굳이 철길을 깔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막히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든 거죠.

BRT의 핵심은 정류장입니다. 쿠리치바의 BRT는 정류장에 들어가면서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튜브정류장 안에서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다섯 개의 출입문이 열리고 신속하게 사람들이 내리고 탑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다들 바 없죠. 이 BRT를 건설하는 비용은 1km에 30억이면 됩니다. 훨씬 돈이 덜 드는 거죠.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을 두 번 했던 엔리케 페날로사는 보고타만의 차 없는 날을 제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타지 않는 날’을 운영했고, 또 대중교통 BRT ‘트랜스밀레니오(Transmilenio)’를 도입했고, 콜롬비아 보고타가 전 세계에 확대시켰던 눈부신 프로그램이 바로 ‘시클로비아(ciclovía)’ 차 없는 거리입니다. 매 주말, 여기는 일요일 날 주로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날 반나절 정도 시내 주요도로들의 차량을 막고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시클로비아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죠.

파리의 안 이달고 현 시장은 2년 전 2020년에 6년 임기 마치고 재선에 출마할 때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죠. 코로나 정국에서 생태, 연대, 건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생각을 기초로 했던 공약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 당시까지 절반 정도가 시속 30km 속도제한구역이었는데, 이제는 파리 시내 전역을 시속 30km로 속도제한 하겠다. 만약에 서울

시장이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30km 속도제한 하겠다는 것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파리는 합니다. 그리고 파리 시내 노상주차장의 3/4을 임기 중에 전부 폐쇄하고 이 공간을 자전거도로, 녹지, 보도로 바꾸겠다. 상젤리제 거리는 왕복 8차선씩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상젤리제 거리도 왕복으로 2개차로 정도만 자동차에게 주고 전부 보도와 녹도로 바꾸겠다. 이게 상젤리제 정원화 계획입니다.

파리가 자전거에 대한 또 하나 놀라운 배려가 바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도는 파리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도로 위에 지상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총 연장이 170km,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 이 3400억 원으로 만약에 지하철을 건설한다면 2km밖에 건설을 못 합니다. 트램을 건설한다고 해도 7km.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170km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지하철, 트램, BRT로 이어져온 대중교통이 이제 4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전거가 도시의 강력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것과 연결된 생각이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걸거나 자전거로 도시 안에 모든 활동, 출·퇴근, 통학, 쇼핑 이런 모든 활동을 15분 안에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15분 도시>죠.

또 하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스페인의 폰테베드라입니다. 미구엘 페르난데스 로레스 시장님이 99년에 당선돼서 아직도 시장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99년 시장선거에 처음 출마합니다. 미구엘 로레스 당시 후보는 의사선생님이셨어요. 99년 폰테베드라는 인구가 6만 명인데 자동차가 한 2만 대쯤 됐습니다. 3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이 좁은 도시에 온갖 문제들을 일으켰던 거죠. 교통사고, 대기오염, 소음. 오죽하면 외신기자들이 "자동차로 가득한 사막 같은 도시 폰테베드라"라고 기사를 썼겠습니까.

의사였던 미구엘 로레스는 시장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말 깜놀, 깜짝 놀랄 만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폰테베드라 도심부 30km²에 일체 차가 다니지 않게 하겠다. 대중교통까지도, 버스까지도. 30km²는 차가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고.

또 하나의 공약은 우리가 도시에서 가장 받아들여야 될 주인의 순서가 있다. 가장 첫 번째로 섬겨야 될 주인

은 걸어 다니는 분들이다. 두 번째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세 번째가 대중교통 타는 분들, 그리고 제일 후순위가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30km²를 차 없는 도시로 만들었고, 자동차를 타는 분들은 그 경계부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시내에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옵니다. 경계부에서 시내 중심부까지 걸으면 15~20분이면 가능하죠. 이렇게 도시를 바꿉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합니다. 교통사고가 점점 줄고 줄어서 2009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소음이 사라졌고, 도시에 활력이 넘치게 된 거죠. 전입 시민들이 엄청 늘게 되는 거죠. 그 바람에 미구엘 시장님은 아직도 시장을 하고 계세요.

우리 도시를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가능한 일부터,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도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엮어서 대자보 도시를 만드는 일은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동에서 한 달 살이를 마치고 하동시장님께 건의했던 게, 하동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가장 문제는 대중교통이었다. 구례구역에 KTX 내려서 하동 약양까지 올 길이 없다. 결국은 자가용을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타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구례구역, 구례터미널, 피아골, 화계, 약양, 하동읍, 이곳을 가장 빨리 오고가는 대중교통을 운영해 달라. 그리고 화계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걸 확대해 달라.

전주에서 한 달 살이 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던 순간은 군산에 강의를 하러 오후 2시에 가야 했습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아무리 찾아도 배차가 없어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이게 말이 되나. 결국은 자가용을 빌려 타고 다녀왔습니다. 왜 전주~군산 간에 대중교통이 불편한지를 물었더니 대중교통이 원활해지면 군산 인구를 전주에 뺏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역시도 없는 전라북도가 서로 인구 따먹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가장 빨리 연결하는 BRT를 운영하자. 전라북도에 아마 대여섯 개 노선이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 내려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청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부안까지 BRT를 타고 가서 부안

에서 회에다 소주 한잔 하고 대중교통 막차 타고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완주에 귀촌하고 또 진안에 내려와서 사는데, 전주에서 모여서 오랜만에 청년들 네트워크 파티 한번 하자 하면 저녁 9시가 되면 다 짐을 싣는다. 왜냐하면 버스가 끊기니까. 9시에 끝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 파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BRT를 만들어서 전라북도가 저마다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도록 하자, 열심히 전라북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바꾸는 게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는 게 매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정례화하자는 겁니다.

전주시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런 차 없는 거리를 합니다. 전주의 총경로, 전주의 옛날 동서관통도로라고 불렀던 도심부의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한 달에 한번 주말에 차를 막고 아이들에게 내어주면 아이들은 정말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신나게 놀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누워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차도 위에서 식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매주 반복한다면 시민들의 생각이 점점점 바뀔 겁니다. 이런 주말 차 없는 거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자.

서울의 경우에 인왕산길에서 얼마 전에 '호랑이도 걷고 싶다' 이런 행사들을 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서촌 주민들이 주도해서 인왕산길 절반을 막고 차 없는 거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하자는 거죠.

종로도 종종 차 없는 거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종로 차 없는 거리를 이제부터 매 주말 하자. 광화문 세종대로도 차 없는 거리를 가끔 합니다. 여기에서도 매 주말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도로를 우리가 재미나게 쓰다 보면 대자보 도시로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 겁니다. 그렇게 우리 도시를 바꾸자. 자전거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대중교통과 보행으로 공고한 스크램을 짜서 우리 도시를 바꿔가자고 이 어린 연사 목 놓아 외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노명우)

정석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자보 딱 그러니까 기억하기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하지만, 제가 서울에 사는데 시내에 살아서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는, 학교 올 때는 공공버스 타고 다니고 해서 정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 이걸 더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도시 안에서 교통수단에 대한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생각의 전환을 해 주시는 정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도서관과 도시

사회 (노명우)

두 번째로 도시 안에서 이렇게 교통체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시설이 도시 안에 늘어나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매체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 과연 도서관과 도시는 어떤 관계인가에 관해서 이은주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 이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섭외를 받으면서 섭외하시는 주최 측 선생님께서 이반 일리치가 공생의 3요소를 주장한 도서관, 자전거, 시가 주제라는 말씀을 듣고 어이쿠야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맞아, 이반 일리치가 그렇게 멋있게 도서관을 3요소 중에 하나로 넣어주었는데 과연 우리가 상상한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작은도서관에 있으니까 또 한 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서 저쪽에 '책이라는 숲'이라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것을 누가 세팅했을까요? 수원시에 있는 작은도서관 선생님들, 또 햇님달님 작은도서관 분들. 몰랐는데 여기 와서 만났어요. 저희 협회 회원과 또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선생님들께서 좋은 책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사실 작은도서관을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그냥 멀리 똑 떨어져 있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연배를 짐작할 수 없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들은 옛날에는 저기 외파로 떨어져 있는 첩첩산중 올라가야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었잖아요. 가서 보면 정숙, 조용해야 하고, 책장을 넘길 때도 조용히 넘겨야 되고. 가서 주로 뭘 하셨을까요? 제 눈을 피하시는 거 보면 공부라고 말하기는 참 뭐하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를 하러 가신 분들도 적어요. 도서관을 자주 들락거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제목을 '작은도서관이 있다.'라고 지었어요. 작은도서관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것들이 '진짜 도서관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실까 봐 작은도서관이 있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작은도서관들이 책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기도 하고, 사람과 지역을 잇기도 하거든요, 이어주는 역할. 그런 것들 두 축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이번에 도서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재미없는 법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공공도서관의 수준에 미달하는" 이런 정의였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수원시에 아마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실제로 작은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설립하는 그 기반이 되기도 했고요, 또 북스타트도 들어보셨을까요? 북스타트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 하는 거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고, 요즘에 공립도서관 가면 영유아실이 있고 신발 벗고 들어가고, 또 책 읽어주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작은도서관에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어요. 원조를 따지는 게 좀 치사스럽긴 합니다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도서관법 개정 작은도서관 정의에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또 아까 질문과 같이 제 눈을 피하시고 웃으시고. 2017년도에 조사했던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또 조사가 될 것 같은데, 17년도에는 62.3이었는데 21년도에는 47.52입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47.5입니다. 저는 그게 더 놀라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교과서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엄청 기여를 해준 겁니다. 성인 독서율은 정말 떨어지고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도 없는데 이 와중에 도서관이라니. 이반 일리치가 도시를 살리고 좀 다른 도시도 있고 하여간 도시의 중요성을 말할 때 그 3요소 중에 낀 도서관, 책 읽는 사람도 없는데 도서관이라니. 그 와중에 작은도서관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보셨어요? 거기에서 변요한 배우님이 얘기한 유명한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지요. 흘러가는 바람, 옷, 시, 꽃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사실은 그 과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들은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년대에 엄대섭 선생님께서 거의 시조새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전쟁 직후기 때문에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탄약상자, 사과상자 이런 데다 책을 싣고 다니시면서 마을문고운동을 하셨고, 70년대에 노동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마산에 있었던 양서협동조합운동 해서 어떤 운동의 차원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다음에 90년대 후반, 아까 정석 교수님 강의에서 90년대 후반 사진들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사실 그때 희한하게도 전국적으로 그런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청주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곳곳에서 희한하게 도서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도서관을 가려면 차를 타고 멀리 갔어야 됐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적에 도서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책을 모아서 책을 모아두고 그것을 민간사립 작은도서관, 공립도서관,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만든 작은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제화 됐고, 또 하나는 주택법 안에서 50세대 아파트 이상에 작은도서관을 세워야 되는 걸로 법에 되어 있어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보면 여기 있었구나. 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여기도 작은도서관이 있었네. 그래서 현재 전국에 7,50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민간사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앞쪽에 풀었고요.

작은도서관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도 작죠. 그리고 장서도 사실은 큰 공립도서관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작기 때문에 그런 장서들이 귀해요. 그래서 귀하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작은도서관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밀접한 것, 그다음에 유연하게 지역과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확장하는 것, 그 3개로 제가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용자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깊게 책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내시는 곳에 작은도서관이 있다면, 그런데 조금 불편한 거 있어요. 사실은 공립도서관, 서울도서관 같은 데 가면 제가 들락날락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문을 딱 열려면 약간의 용기는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되면서 갑자기 그분들의 눈빛이 막 빛나면서 막 환대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집에서 10분 거리 가장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걸 알면 굉장히 화를 낼 텐데, 저는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데, 연수구에 제가 결혼하고 처음 갔을 때 저희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저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 공통웃 입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가 제 아들인데, 저건 좀 컸을 때고 더 아기 때 갔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 제가 조그맣게 책을 읽어줬어요. 왜냐 하면 책을 읽어줄 수밖에 없죠, 아기는 글씨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줬더니 그때 도서관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쾌하여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찾아간 곳이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볼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분이 경험한 도서관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숙, 조용해야 하는 도서관, 아기가 막 뛰어다니고 방해하면 안 되는 도서관, 책은 굉장히 우리가 신성화하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랬던 그 선생님은 그런 도서관 경험치가 있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간 곳이 저희 인천시 연수구에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이라고 거의 시조새 같

은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봤었죠. 서가에 책도 적었지만 책 하나하나 뽑아봐도 어느 책 하나 버릴 책이 없는 너무나 귀한 책들이 모여 있는 거였고요. 저기에 갔을 때 좋았던 건 아이들이 누구한테나 책을 들이밀어도 서로서로 읽어주고 깔깔 웃고 같이 과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책 읽다가 뛰쳐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이가 자라나서 한 10살쯤 됐을 때인데, 저희 아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아기들이 중요하죠. 저 앞에 두 명 팝업북을 들고 와서 펼쳐놓은 친구들은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걸음마를 채 못 하는 아기예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가면 누구에게나 갖다 주면 책을 읽어주니까 형아한테도 저렇게 책 읽어달라고 서 있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고요, 강사 아니고요, 동화구연가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책을 읽어 주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책 읽는 걸 들은 경험이 있는 자와 아닌 자는 굉장히 다른 독서 문화의 경험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흔쾌히 동생들한테, 좀 괴로워하는 표정이 있지만 읽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작은도서관입니다.

믿을 만한 이웃이 있는 것, 그 이웃이 연령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우리 동네 아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 먹으러 와도 좋고, 작은도서관은 이런 곳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드러누워서, 저분은 거의 누우셨죠. 저렇게 책 읽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도서관 앞에서 저렇게 거리도서관으로 책을 읽어줄 수도 있는 곳, 이런 곳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청주에 있는 초롱이네도서관인데, 20년이 넘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잔치도 벌어지는 거죠. 오른쪽 사진이 왼쪽 친구가 처음 왔었던 때예요. 그리고 점점 자라난 성장앨범. 엄마 품에 안겨서 온 아이가 혼자서도 그냥 쭈레쭈레 와서 책 읽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제가 속한 곳이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더 밀접하게 잘 하고 계시는 도서관 몇 곳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충남 서천에 있는 여운의도서관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눈을 지나서 도서관에 오고 있는 아이들의 풍경이에요. 마을이 드문드문, 지방이 특히 인구가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눈을 지나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셔틀버스가 내려주기도 해요, 작은도서관에. 그 친구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또 가운데 사진은 저기 서계시는 분들이 활동가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80이 다 넘으신 어르신들이세요. 어르신들을 고추밭으로 논으로 다니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르신 나오세요 해서 직접 차에 태워서 모시고 와서 그림책도 읽어드리고 같이 동물농장 노래도 하고 또 바느질도 해서 미스코리아들처럼 가방을 하나씩 만들고 활동가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보기 좋으시잖아요.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냥 학습적인 책 읽기, 지식과 정보에 대한 책 읽기도 하지만, 그 플러스 더 진하게 지역민들과 함께 깊이 있는 책 읽기도 하고 저렇게 재미있는 즐거운 책 읽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보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처음에 '나 못해, 나 못해' 이러다가 더 밝게 신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집에 갈까요? 작은도서관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다 차에 착착착착 나눠서 타고 직접 고추밭으로 논으로 일하셔야 되니까 모셔다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동네 사랑방이고요. 제가 이날 갔을 때 사실 요즘에 쌀값이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천에서 농민들이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논도 없고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때 이장님께서 오셔서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서 여기 와서 커피 한잔 얻어먹고 가고 싶다.' 하셔서 또 커피 한잔 드시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 작은 도서관이구나, 동네 사랑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데들은 흑시이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따뜻한 경험들,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제주공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입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바로 뒤에는 저렇게 약간 숲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도 재밌게 지으시더라고요. '대장개미 탐험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에서 그냥 생태놀이를 하는 거예요. 책 읽고, 책은 정말 짧게 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짧게 읽으니까 더 간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주 작은도서관에 오는 아주 찐 이용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개 사진은 뭘냐 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을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선생님들

이 책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일반 공립이나 굉장히 탄탄한 어떤 위계질서가 있는 도서관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엄청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책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옛날이랑 다르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꽤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마음먹고 용기 있으면 작은도서관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책과 가장 멀리 있는, 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렵구나.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렸던 늘푸른어린이도서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둘인데 둘 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어요. 저희 활동가인데, 휠체어를 타고 공립도서관에 갔다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왜냐하면 뇌병변인 자녀가 휠체어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도서관에서, 그런 도서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작은도서관에 와서 아이랑 같이 책을 읽어줘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 다 열려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공간이고 공기관이고 작은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를 저도 알았었는데요.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선생님들은 그걸 넘어선 거죠. 직접 찾아가서 책 읽고 같이 활동을 하고 꾸준히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연성인데요. 작은도서관은 그래서 보통 생각하세요, '도서관이면 대출·반납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작은도서관 가면 책도 별로 없을 텐데 뭐 읽을 책이나 있겠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도서관들은 대출·반납의 기능만 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공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처럼 문화를 거점에 두고 활동을 거점에 두는 공간을 좀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주체적인 이용자들, 이용자들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처럼 공부하러만 도서관을 가지 않아요.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롭게 동아리실이 더 많거나 약간 오픈된 공간처럼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백색소음이라고 하죠, BGM처럼 조용한 음악이 계속 깔려 있거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인 강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대출·반납으로는 이용자들이 좀 만족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잘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일수록 적극적인 주체적인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거죠. 원래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조직적이고 수직적이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유연하게 지역에 또 이용자들의 어떤 요구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인데, 웃는책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저 왼쪽 보시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아이들이 뭐 하는데 뒤에서 너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양육자들이 아니고, 똑같이 동등하게 함께 독서동아리를 하는 독서동아리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엄마, 아이가 있어서 그냥 각각이에요. 그래서 서로 당연히 발언권도 똑같이 있고, 엄마 눈치 보지 않고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합니다. 저렇게 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왜 만날 우리는 듣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작가와의 만남은 왜 만날 어른들이 부르는 작가만 와요? 나는 이 작가 만나고 싶는데. 하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장님이나 협동조합 위탁운영 하는 그 주체가 어린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독서동아리도 저렇게 동등하게 해서 만들고, 작가와의 만남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가를 모셔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이용자들은 스스로 그림책을 읽고 책을 읽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림책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내가 작가가 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그림책을 만들고 이렇게 출판기념회도 하는 거죠.

도서관들은 요즘에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구에 부응해야죠, 고객의 니즈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타격을 사실 작은도서관도 받았습시다. 2020년도 같은 때는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들도 한동안은 다 휴관을 했었고요. 찐 이용자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자원활동가들도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공립은 뭔가 결재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조직이 좀 꼬불꼬불하지는 않죠, 복잡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해볼 수 있는 용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리 연습삼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시다.

그래서 저희 협회도 작은도서관ON이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작은도서관 학교' 만들어서 교육도 했었고. 실제로 'ZOOM이 뭐야, 나 그런 거 못 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뭘 눌러요.' 이런 분들께 저희가 다 전화해가지고 '뭘 누르세요.' 이러면서 설명을 다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의외로 잘 따라 오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도서관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책번개를 하는 거죠.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들어가요. 그냥 쓱쓱쓱쓱 취미가 독서예요 이런 분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내공의 힘이 굉장하신 건데요. 저는 독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잠시 쉬면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그 힘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온라인 책번개로 이렇게 두꺼운 책, 어려운 책, 세상 안 읽고 싶은, 저만 그런가요? 저런 책들도 하나하나 그냥 읽어 나가다 보니까 성격책 통독이다 생각하면서 벽돌책을 부수는 그런 활동도 가능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직과 생각의 유연함 그것들이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이 다시 이용자들을 작은도서관으로 오게 하는 역할도 했어요. 왜 온라인을 하다 보면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더 끈끈해지고 더 책도 열심히 읽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확장을 합니다. 지역으로 확장을 쪽쪽 해나가고 있는데, 그 확장의 가장 중심에는 제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겠

지만 요즘 제주 가보시면 현지인보다 외지인들이 훨씬 많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외국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제주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선생님들은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우리가 모아보자 해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그림책 만들기를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넘어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연필을 잡아본 적이 없고, 생연필이나 물감을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제주어는 아시겠지만 '4.3사건'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누구나 다 마음에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거나 내 이야기를 풀어서 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너무 겁내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 할머니들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삼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삼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때 그랬지, 우리 남편이 육지로 가버려서 내가 딸 둘 키우면서 요만한 과일좌판에서 과일을 팔았지. 그때 나는 날아가는 새 두 마리만 봐도 눈물이 났어. 그 어르신이 그린 그림은 모두 한 개예요. 우산도 하나, 사과도 하나. 그런데 새 두 마리가 지나가는 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저 날아가는 새 두 마리, 애인이겠지?” 이런 글이 나와요. 막 울컥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선생님들은 계속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제주 어르신 그림책 만들고, 여기가 강영미 관장님이라고 그 일을 꾸준히 해오는 정말 똑심 있는 작은도서관 활동가이신데,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북토크를 하는, 작가와의 만남을 하는 건데요. 이 어르신도 팔순이 넘으셨는데도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여기 와서 그림 그리고 내가 책 만든 거다. 내가 지금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은 이런 활동들.

요즘에 어르신 그림책 만들기가 사실은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랄까요,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이야기가 담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설문대의 어르신들은 근 1년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진한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제주어가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ISBN도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낭독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희한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초롱이네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을 지역이 세웠어요. 옛날에 좀 통나무카페 그런 거 있었잖아요, 통기타 연주도 하고. 아시죠? 이게 오래되니까 점점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지고 있는 저게 초롱이네 이용자가 그린 그림인데, 다시 세웠습니다. 모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잔치를 벌여서 다시 세웠고, 초롱이네도서관은 지역문화의 거버넌스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을 모셔서 '사람 책 라이브러리'도 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동네기록관이라고 해서 초롱이네가 있는 곳이 약간 청주 구도심인데, 진짜 그 지역민만이 알 수 있는 아카이빙, 찐 이야기들을 모아서 저렇게 동네기록관을 도서관 한켠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피아 네트워크라든가 문화다양성 현장 분투기, 가을 동화 잔치, 이런 것들을 다 아카이빙 하는 거죠.

저도 서울이 고향인데, 얼마 전에 제 고향에 갔더니 뉴타운이 되면서 제 고향이 사라졌더라고요. 옛날 기억만 있고 남아 있지 않은데, 초롱이네도서관 같은 작은도서관이 만약에 제 고향 영등포에 있었으면 그걸 다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초롱이네는 지금 이것을 열심히 지역과 소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저희 협회가 전국 지부가 있는 협회이다 보니까 다 네트워크를 해서 설문대 할머니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저렇게 순회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들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도깨비의 날' 이런 거 해서 같이 ZOOM으로 모여서 모월 모일 몇 시에 민간사립이 많으니까 우리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수행하고 밤도깨비 잔치하고 노는 거.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도서관, 청주, 제주, 수원에 있는 도서관이 모여서 저렇게 잔치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도서관이 요즘에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책 중심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이걸 좀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도서관대회 가서도 발표를 하고 왔는데, 도서관 안에 저렇게 작업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어린이 이용자가 주 타깃인데 '작은손'이라 부르고, 활동가는 '오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 양육자는 '뒷집손'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은 작은손한테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없어요. '작은손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은 내가 정한다. 옳은지 그런

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딱 규칙을 정해서 작은 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남다르게 만들어요. 저런 것들 실제로 드릴이나 아니면 별 도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붙이는 거 좀 무서운 도구들 톱, 칼 이런 거 다 있고, 그런 것들은 오른손들이 옆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작은손들이 그렇게 존중받는 이용자로서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경험을 한 작은손들은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가가 되어서 실제로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내가 강사가 되는, 왜 어른만 가르치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새로운 콘텐츠, 무한 증식하듯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작은도서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건 지금 이야기해서 들으셨겠지만 작은도서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영자나 관장이거나 사서 이렇게 특정인이 주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호응하는 거죠. 이용자와 운영자, 활동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 그다음에 계속 점검해요. 이게 맞나, 시대에 우리가 너무 뒤쳐지는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해? 니즈가 뭐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존재 이유를 고민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거버넌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이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으로 무한한 확장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도서관의 3요소거든요. 시설, 사람, 장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열정이 있는 곳이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책 있는 인구가 줄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안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저희는 계속 도모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사람과 마을,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남대문 승례문이 섬처럼 있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작은도서관이 이렇지 않다면 사실은 섬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일리치가 공생의 3요소로 도서관, 시, 자전거 얘기했을 때 그 도서관은 아마 섬처럼 있는 도서관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한 번 더 들여다봐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렇지 않다면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가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 우리 이거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하나 해보면 어떨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인 여러분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작은도서관이 의미가 없습니다. 공생의 3요소에서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도서관의 이용자로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작은도서관 많이 응원해 주십사 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노명우)

두 번째 발표 이은주 선생님의 도서관과 도시에 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전거, 두 번째 도서관 발표 들으면서 불현듯 영화에서 백델 테스트라는 거 혹시 아실 텐데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영화가 얼마만큼 성차별적이지 않은가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가는 여인1, 2 이런 식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알 수 있는 여성 인물이 2명 이상 그 영화에 등장하는가 등장하지 않는가. 등장하면 백델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두 번째, 영화 안에서 여성이 그 여성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가. 그러니까 여성들끼리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등장하면 백델테스트 통과입니다. 세 번째는 그 여성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인데요. 여성들끼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남자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세 번째 요소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에 관해서든 도서관에 관해서든 남자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그런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면 이른바 백델테스트를 통과해서 영화 자체가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관통하는 영화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게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발표, 두 번째 발표 들으면서 이번 일리치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과연 첫 번째 자전거, 저는 통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가 도서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 걸어서 내지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살 만한 도시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도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작은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책을 안 읽는 시대에 작은도서관 이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책 안 읽는 시대에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반 일리치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이반 일리치 테스트가 남았는데, 시와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포럼 준비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저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화면은 이쪽에서 보고.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즉석에서 수정을 해서 약간 동선도 바뀌고 진행되는 방식도 좀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상상력이 아닐까 싶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도시가 품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런 상상력일 텐데,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시에서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도시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서 마지막으로 시라는 요소를 꼽았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시와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셨던 강원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재(前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원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하는 문화 도시(都市)와 시, '시(市)'자를 원래 시장 '시'자를 쓰죠. 그러니까 도시는 시장이 있는 곳이죠. 시장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그 시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시장이 여기도 보니까 문화도시의 밤이라고 해서 저렇게 '시 시(詩)'자를 쓰는데 시시자가 보면 '말씀 언(言)'에 '절 사(寺)'자가 결합된 그런 풀이가 되잖아요. 아마 이게 한자권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 어떤 곳을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좋은 곳에서 들려오는 말씀들을. 시 시(詩)자로 표현을 했어요.

서구권이나 이런 쪽에서 교회 자를 썼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씀들을 시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면 그냥 '어떤 좋은 것', 어떤 구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간직하고 나눌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둘기는 왜 도시를 떠나지 않는가〉, 함성호 시인의 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도시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삶들을 살고 있어요. 힘들죠. 하루하루가 힘든 삶들을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사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사실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 우리는 굉장한 편리성을 갖고 살고 있지만 실은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 도시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같은 것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도시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도시였죠. 지금 망했지만 성으로 둘러쳐져 있는 앙크로와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인 도시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으로 둘러쳐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복잡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려요. 그걸 전염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100만 명이 살던 도시인데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자연이 도시의 흔적도 없이 덮어버리는 광경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도시가 세워진 곳도 원래는 자연의 것이었죠. 자연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던 것인데 잠깐 사람들이 비우는 순간에도 자연은 다시 그 도시를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또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안에 살 수 있었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 당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성 밖에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양 인구가 당시에 20만, 인구가 그 당시에 한 천만 정도 된다고 볼 때, 그러면 20만 인구가 살던 곳이 한양이었다면. 그럼 그 한양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택받은 계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 밖에서 늘 줄을 서 가지고, 아침이면 성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은 성 밖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를 이야기할 때 늘 폴리스 성 안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시'자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시 시'자를 쓰지 못하고.

그리고 예술이라는 건 문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의 이야기 자연의 이야기를, 도시가 너무 딱딱하니까 우리가 자연을 밀어내고 거기에 도시를 세웠으니까 그

도시 안에 신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이 살 수가 없으니까. 12신이 살고 있었을 것만 같은 신전을 짓고, 그리고 저 피안의 세계에 있을 것만 피라미드와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자연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예술을 통해서 자연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모두 '시'가 해왔던 역할들, 예술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를 urban으로 볼 거냐 city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지죠. urban으로 본다는 것은 라틴어 '우르스(urbs)' 로마를 지칭하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된/멋진/규율이 법치로 통치되는 이런 도시를 '우르스'라고 합니다. urban의 어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urban we generation'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도시를 어떻게 재생해 가겠다는 건가, 이 방향이 좀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성 안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city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어원을 라틴어 '키비타스(civitas)'에서 보통 가지고 있죠. '키비타스'는 그 마을에 자기가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마을이죠. 그러니까 시민성이라는 것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것이 city라는 뜻이죠. urban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제도와 건축 양식과 규율이 중심이 되는 용어라면, city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시민성'이 중심이 되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어떤 식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느냐, city로 바라보느냐 urban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활동의 방향들이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술은 인공적 활동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작용을 가해서 자연을, 신의 말씀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인위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이처(nature)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시적 자연에 해당되는. 인공이라는 것들도 테크네와 포이시스, 기술과 그리고 제작술을 이야기하고. 또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테크네가 '시'의 어원이 돼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을 테크네라고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개가 아르스 즉 '아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이 있는 절(詩, 詩) 그리고 예술(藝術)이라는 것. 사람의 노동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위에 꽃이 있고 아래에 구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노

동을 통해서 꽃을 길러내는 게 예술의 예(藝)자에 해당되는. 그리고 자연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라틴어 '나투라(natura)'는 대자연의 느낌들, '푸근하다'나 '자연스럽다'할 때의 느낌, 어떤 대자연의 의미라면, 반면 그리스어 '피시스(physis)'라는 건 약간 가혹한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해일이 덮치는 가혹한 자연을 이야기할 때, 보통 피시스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지금은 '나투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명이 자연을, 피시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요즘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피시스들이, 피시스로 오히려 인간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었다' 라고 했던 데 대해, 가혹한 자연이 우리를 다시 바꿔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나트라'의 자연과 두려워해야 할 '피시스' 존재로서의 자연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 도시 안에서 읽어내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서 생각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질문들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delivery 배달 로봇입니다. 가게에 주문을 하면 저 2개가 와서 집 앞에서 배달해 줘요. 실제 상용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된 지능형 기계 시대에 그러면 배달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굉장히 많은 분이 배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럴 때 삶이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가 그린 그림이 미국 미술대회에서 우승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술이 도대체 뭐지?'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탈원전 시대에 에너지 문제들, 우리가 대체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에너지들로 전환해야 된다는데 제주도 앞바다에 갔을 때, 풍력 발전기들이 바다를 점령하는 무사들처럼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대안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어디 시골에 가보면 산 하나를 다 깎아서 거기다가 태양열 발전 패널들을 붙여놨는데 숲을 없애고 패널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그 대안이고 또 그런 부분

들도 고민이 되죠. 그리고 대형 재난이 일상화된 위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과 우리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가난과 폭력, 질병 앞에서 각자도생과 보편 복지의 방법은 어떤가?’ 이런 고민도 드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많은 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굉장한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분들은 인생 스토리가 비슷해요. 예전에 도시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리다 병이 걸려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산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행복해졌다. 비로소 행복해졌다. 도시 안에서 어느 정도 고통받던 사람들이 부딪치면서 배신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살다 보니까 행복해졌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면 산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살면 되나?’,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산이 그 만큼 많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좀 고민스러운 거죠.

‘여럿이 같이 산다’는 건 결국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는 힘이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거꾸로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하고 행복하다면, 우리가 왜 굳이 모여서 살아야 될까? 굳이 모여서 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편 들거든요. 왜 비둘기는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구구’하고 있는가? 이 고민들이 우리가 실은 이 도시 안에서 찾아야 될 답 같은 거다.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도시에서)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힘, 그런 다양성 같은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지속되도록 만들어 낸 생물다양성 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종 다양성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DNA나 그리고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을 지속시켜 갈 수 있다는 것. 모여 있는 것들이 실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도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봤을 때는, 전 가이아와 우주로 서로 봤을 때, 작게 나누어져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주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여 있는 게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버림으로써 작은 지역들이 사라지도록 만들었지만, 나 스스로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러니까 도시에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생명을 지키는 본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시에서의 삶이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양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

는 기회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서 구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 다양성 측면에서 주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도 작게 나눠서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의 에너지원들을 찾는 것이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실천, 그리고 나와 이웃 그리고 모여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럴 때 나와 이웃과 무생명을 돌보는 생산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산 활동에는 ‘물질생산’, ‘노동생산’, ‘수명기술 생산’에서 ‘이물질 생산’, ‘놀이하는 생산’ 그리고 ‘디지털로 복제하는 생산’, ‘지식 세상’ 등이 있을 것이고. 생산은 주로 프로듀스(produce)라고 봤을 때 제작과 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술에 대한 것,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문화에 대한 시에 대한 겁니다. 그럴 때 컬처(culture)는 게 농(農)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라틴어 쿨투라(Cultura)는 농사를 짓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리고 농(農)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별과 밭이 결합됩니다. 위에 밭이 있고 아래에 별이 있고. 한자 공(工)도 마찬가지로 지예요. 땅이라는 것에 하늘을 끌어들이는 행위.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제작이 된 것들을 문자로 표현해서, 무(巫)자도 더 재미있죠. 하늘과 땅과 그것을 연결을 하는 것들을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서 해 나가는 그런 행위들을 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史)자도 마찬가지로 주술사가 흔드는 지팡이에서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생태, 골목가드닝, 신전축제, 클럽, 펌, 지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이런 어원들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삶 안에서 이 생산의 의미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을 하는 방식에서 도시나 문화를 만들 때, 밀어내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 것을 존중하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남는 거고요. 그럴 때 역사와 기억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현자들의 이야기(히스토리의 이야기)였죠. 예전에는 현자들이 신전에서 뭔가 해서 어떤 영웅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야 한다식의 이야기가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어의 스토리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 메모리라는 것은.... 르네모시네라는 여신의 딸, 뮤즈(muse), 즉 예술의 일곱 여신의 어머니인 르네모시네(기억)지역이 없다면 예술도 없는 거죠. 이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해 나가면서 그 이전을 존중하면서 지역에서 스토리를 존중하

면서 산다는 것은 역사만큼이나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책에만 있는 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기억들,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억들 안에서(연결을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창의도시는 ‘이 도시가 왜 창의 도시인가’를 홈페이지 메인 하면 띄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대부분의 장소가 도시인 것이고 도시 안에는 인간이 풀어가야 될 수많은 에너지 문제, 일자리 문제, 다문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된 것이 지각된 장소가 바로 도시이더라. 그런데 이 문제들은 하나로 풀 수 있는 해법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창의력이 필요하구나.

제가 얼마 전까지 일했던 지역이 서울시 영등포구에요.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곳이고 이 문제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로 훑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하나로 풀려고 하면 확 밀어버리면 끝나는 문제, 그동안 중앙이 주도했던 어떤 정책은 하나로 풀어내는 해법들이죠.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짓는, 그런데 그 복합적인 지역 안에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문제로 이것을 다루고 해결해 갈 때는 그렇게 밀어버리며 만드는 거죠. 양피지처럼 그 위에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쪽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하나 하나 쓸어 갈 때만이 (창의적 해법은) 가능한 것들이죠. 문헌 안에서든 마찬가지로. 그렇게 창의적 해법들이라는 것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발견되고 초대되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전환해 가는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상의 공론장들이 필요하고 우정과 현대의 문화들이 필요로 하며 그리고 유쾌하게 함께 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서는 필요하다. 그 기반 위에서 창의적 해법에 나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창의적 해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들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일상 안에서 일과 놀이와 공부를 통해서 함께 이 창의적으로 함께 경험해 가야 된다.

작은 일에서 같이 일해 봐서 즐겁다, 저 사람들하고 일하니까 너무 즐거워, 우리 동네에서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기뻐,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것들이 나의 삶이 되고 일이 되고 놀이가 되네. 이런 느낌들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창의적인 해법이 나오는 거지. 창의적 해법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자. 창의적인 공유제도. 시와 도서관과 그리고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를 만

들어 나가는 창의적인 공유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이 도서관이 내 옆에 있고, 가난하더라도 내가 시를 읽을 수가 있고, 가난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내가 이 도시에서 가지 못할 때 이 도시들. 그런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창의적인 문제들을 일과 놀이와 공부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이제 문화도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사례라는 빌바오 같은 경우 - 우리는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빌바오를 자주 생각을 하지만 - 실은 빌바오는 그 도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변 생태라든지 보행 교통이라든지 문화 다양성, 이것이 도시의 자량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시입니다. 빌바오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과 시민들이 함께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 거버넌스가 있다는 걸 자랑하는 도시죠. 그걸 Metropoli-30(빌바오 도시비전수립과 전략계획 민관합동기구), Bilbao Ria 2000(빌바오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기구)을 통해서 구현을 했죠. 그리고 거버넌스는 보통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결정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고. 거버넌스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럿이 함께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신영복 선생님은 왜 이 험한 길이 즐겁다고 이야기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럿이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험한 길만 즐거울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삶이 굉장히 험하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으니까. 그럴 때 이 험한 삶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럿이 함께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는 열심히 여기 (모여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럴 때 우정과 현대의 시공간을 우리는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나눠 갖고 있는 것을 함께 갖는 것이고 그것을 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예요. 그리고 우정과 현대의 시공간이라는 것들은 실은 ‘시’의 관한 것들입니다. 예술에 관한 것들 이구요. 우리는 함께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천천히 인간의 속도에 맞게, 우리의 속도에 맞게 해 가야 됩니다. 그럼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나

오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한 사람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럴 때, 그 마 음들을 함께 읽어낼 때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 나태주 시인은 시 〈꽃꽃2〉에서 이름만 알아도 우리는 이웃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냥 너무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이름만 알아도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작은 도시에 동네서점 하나가 집주인에 의해서 쫓겨난다는 게 3년쯤 그해 해외 토픽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점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돈을 좀 모아 이사비를 주자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손에 손을 잡고 책을 옮기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동에 낭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돈을 모아서 내면은 굉장히 편하게 빨리 그걸 할 수 있을 건데, 손에 손을 잡고 포스트도 만들고, 그 책을 실제 막 건네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 하는 일들이다. ‘시’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바로 밥을 먹여주지 않고,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돈보다 유용성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실은 책을 옮겨 준 사람들의 기억 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자녀에게 내가 저 서점 이사갈 때 책을 옮겨줬다 라는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서점은 절대 그 이후로는 사라지지 않을 이 동네의 전설이 되어 계속 남게 될 공간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문화가 하는 일, 예술이 하는 일, 시가 하는 일이지 않을까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보행자 육교 ‘루흐트진겔 프로젝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직접 다녀오신 이영범 선생님이 기록해 준 내용들인데, 도시를 가르는 도로를 통해 서로 문화가 나눠진 지역의 문제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육교를 같이 만들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 펀드레이징 안에는 도시정부도 같이 참여하면서 -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 도시를 바꿔 나간 〈아이메이크 로테르담 I make Rotterdam〉사례입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켜 나간 건 시민들의 주체성입니다.

그리고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사례입니다. 보통 좀 전에 작은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저도 영등포문화재단에 있을 때 대부분 공립도서관이 코로나 시대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이니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시간과 어떤 준수해야 할 안전규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을 오래 열고 싶으

면 노동권에 문제가 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니 도서관법에 묶여서 안되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왜 여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우리도 도시 안에서 도서관 하나가 만약에 그렇게 문을 여는 문제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가나자와도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면 문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없는 상태 이것이 우정과 환대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을지로에 OB베어라는 곳과 비슷한 맥주집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OB베어가 쫓겨나고 그리고 맥주집 하나가 천하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을지로를 합지로로 만들었던 장면이 뭐냐 하면, 그 골목이 낮에는 제작하는 여러 공인들의 거리였다면, 공인들이 문을 닫은 6시 이후에는 그 거리가 전부 맥주 가판으로 바뀐다는 점이였죠. 그럴 때 다양성이 살아있는 상태, 호프들, 작은 맥주가게들이 여러 개가 있고 함께 앞에 테이블을 내놓고 같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상태에서 그 거리는 ‘모두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일이 되어 버리고 한 가게의 거리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이 장면은 민원이 한 번 들어가면 그 거리에서 앞으로 맥주를 마시는 풍경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민원을 막 넣을 거니까. 이전에는 민원을 모두의 거리였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가 같이 벌여 먹고사는 거리였어요. 그런 것들이 우정과 환대의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우정과 환대의 상태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이것은 불가능해져요.

요즘 재밌게 보는 흥성통이라는 곳인데 그 시간 관계상 넘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빌바오의 메트로폴리 30의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가 재미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메트로폴리 30이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거버넌스 하겠다, 모이면은 약간 부동산업자거나 아니면 주민회 회장님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거버넌스로 오시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나 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30년 뒤 - 지금 당장에 우리 아파트 집값이 아니라 - 30년 뒤에 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모임이라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삶을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노명우)

도시와 사람과 마음이 얼마나 심도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촘촘히 알려주신 세 분의 강연자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잠시 10분 휴식 시간 가지고요. 사실 인문도시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10분 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멋진 강연자님들과 사회자님 그리고 저희가 꼭꼭 감춰두었던 토론자님까지 다섯 분의 빛나는 지성들을 모시고 인문도시 포럼이 어떻게 꿰어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 기 바랍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휴식 시간)

짧지만 잘 쉬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인문도시포럼 조금 다른 도시 가능하다 세 분 선생님들의 발표 들었고요. 지금부터 발표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토론자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함께 ‘조금 다른 도시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인천 연수구 문화도시센터 총괄 기획자로 계신 안태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두 번째 안태호 선생님 앉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세 분 선생님 또 무대에 올라주셨습니다. 먼저 안태호 선생님한테 세 분 발표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말씀 청해서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패널에게 포스트잇으로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몇 개를 좀 보내주셨고요.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 포럼에 참가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그리고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포스트잇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앞쪽으로 전달을 해 주실 듯 합니다. 그럼 먼저 안태호 선생님 모시고 말씀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안태호 (인천 연수구 문화도시센터 총괄 기획자)

방금 소개받은 안태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자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걸 생각해 보면 자전거나 도서관이나 시와 관련돼서 제가 어느 분야에도 딱히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조금씩 관련이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때는 제가 스트라이더라고 하는 자전거 중고를 사서 사무실에 출·퇴근하던 자전거 출·퇴근 쪽이었고 사

실 이반일리치의 책을 그때 처음 사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게 됐고 새 자전거를 샀으니까 이 자전거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자 싶었던 책이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였습니다. 이 책은 자전거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굉장히 딱딱한 보고서거든요.

두 번째 도서관은 어쨌든 저는 왕성한 도서관 이용자이기도 하고 한때 제가 부천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몇 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역할을 해보기도 해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때 문학 청년이고 국문과 졸업생이기도 해서 시와 또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발표하신 자료들을 보셨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자료들은 저 PT 자료 3개뿐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토론문을 써야 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에 고민하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분들의 발표에 논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질문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좀 마음 편하게 하고 글을 쓰고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런 걸 맡겼나 싶은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감도 있었지만, 오늘 포럼의 주제들을 세 가지가 잘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개별 개별로서의 역할들이나 혹은 시간이나 도시를 바꾸는 방식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공생의 도구들이 갖는 그런 공통적인 감각들을 어떻게 좀 잘 드러낼 수 있을 건가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토론문을 써봤습니다.

처음에 ‘가을의 초원’이라는 이시영시인의 시를 인용해 봤는데요. 이 시를 인용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해요. 제 나이 마흔일곱 가을에 포럼 자리에서 이런 시를 인용할 수 있게 돼서 스스로 굉장히 부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 굉장히 느긋함이 뚝뚝 묻어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한가함이라는 이런 방식들 혹은 무슨 큰일이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내가 오롯하게 어떻게 잘 존재할 수 있을 건가를 묻는 그런 시 일텐데요. 저희 선배들 중에 한 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요.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개인)라도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게 계속 기억이 나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상쾌한 느낌이거나 혹은 도서관

서가 있을 때 그런 아온한 느낌, 시를 읽을 때 그런 매력이나 느긋함 여유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전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정석 선생님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례들도 많이 이야기해주셨죠.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 보행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분간 쉽지 않은 길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에너지 위기라든지 혹은 기후 위기라는 것들을 앞두고 결국 이런 삶을 계속해서 고수할 수 없는 지점이 틀림없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굉장히 자동차에 중독돼 있고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기를 언젠가는 통과해 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주변 친구들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출퇴근할 때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유일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는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참 뭐랄까요. 누구에게나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고독을 자동차를 통해서만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전거와 관련해서 혹은 공생의 도구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일리치가 자전거를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이야기할 만한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자전거를 타는 행복을 구하려고 책〈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항상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리치는 꼭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더 발달하고 기술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속도에 구속되고 기술에 예측되면서 삶이 오히려 자유롭지 않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그런 걸 보실 수 있죠. 최근에 ‘나의 해방 일지’ 같은 데서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2등 시민’이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버스 안에 갇히는 삶, 2시간이 걸려서 출퇴근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그런 삶의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결국 기술 발전과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

각들을 함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리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이 성숙한 사회와 기술이 과잉 발달한 사회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자전거를 지급하거나 혹은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혹은 자기 뒤에 누구를 태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5단 기어를 가진 자전거를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없는 사회에는 좀 더 기술이 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기술을 가져가는 것들은 불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에서 들으면 굉장히 과잉된 얘기죠.

기술에 대해서 불신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걸 다시 생각할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전거는 결국은 사람이 신체가 미치는 만큼 에너지를 쓰는 만큼 나갈 수밖에 없는 도구잖아요. 별도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에너지 최적화라는 측면 에너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까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의 준거점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교통은 항상 선(善)인가. 혹은 에너지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정석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었구요.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뭐랄까 자동차 기준에서 자전거가 좀 무용하거나 혹은 뒤떨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고, 책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산물처럼 얘기가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는 여전히 문해력이나 혹은 장기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활자 텍스트가 지닌 장점이 없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는 건 책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관장하게 되니까요. 그런 활동들이 갖는 장점이라면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활자 텍스트를 고집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겠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있고, 사람들이 더욱 더 쉽게 그것들을 접하게 할 수 있거나 혹은 더 많은 효과들을 발생시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통합된 수단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무척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도서관 하나만 있으면 사실 다른 문화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들이었어요. 최근에 좀 규모 있는 도서관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역할들을 모두 합니다. 영화 상영이나 혹은 심지어 텃밭도 운영하기도 하

고 사람들의 커뮤니티나 아주 작은 소모임이나 심지어 공연 같은 것도 작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그 안에서 직접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일리치가 얘기한 것들을 조금 더 파고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없는 사회 같은 데서 일리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학교라는 게 결국은 뭐랄까 기존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제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세상을 알아가는 즐겁고 기쁜 과정들을 하나의 의무과정으로 만들어 무척 괴로운 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일리치는 특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식과 학교를 비교를 하는데요. 학교라는 게 결국은 교회의 예배 형식부터 비롯되는 거다. 교육이라는 게 거기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참 참신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의례라고 얘기합니다. 의례인데 의례라는 건 우리가 기우제를 예를 들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춤을 추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춤을 춥니다. 근데 일리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 있어서 더 열심히 춤을 추면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형식이다. 학교라는 게 그렇다. 실제로 교육의 효과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6년, 3년, 3년 지나면 4년....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앞에 상급 학교를 진학하면서 탈락시키고 배제해버리는 장치에 있는 건데 알튀세르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에서 지배와 피지배를 은폐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한다고 얘기할 텐데 일리치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탈락시키고 배제시키는 그런 장치일 뿐인데 이게 계속해서 의례로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도서관 이야기를 해요.

도서관처럼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활동이 가능한 공간들이 훨씬 더 공생의 도구로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학교와 비교해서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반 일리치가 이런 얘기를 학교가 의례일 뿐이라는 얘기를 되게 절친했던 에리히 프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했다가 에리히 프롬하고 절교를 당했더라고요. 에리히 프롬이 굉장히 격분해서, 교육 제도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강력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함부로 주장을 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반드시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나중에 일리치가 약 1980년대 이후에 도서관을 보고 나서는 “아 도서관이 학교처럼 변했구나”란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도서관이 매우 자유로운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도서관을 마치 상점에 들어서 물건을 보고 쇼핑을 하듯 이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해서 결국에는 주체의 문제나,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만들어내는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고 판단을 바꾸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은주 선생님이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작은 도서관에서 저는 아기자기한 활동들, 그리고 왕성하고 역동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한데, 한국 사회 속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사실 부모들의 욕망이 절충된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도서관을 간다고 그러면 말리는 부모들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결국에는 도서관이 출세를 위한 발판이 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는 인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도서관이 전국화되고 혹은 작은 도서관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 동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에서 아까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답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답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성을 사고해야 되는 지점이나 혹은 민주주의를 사고해야 되는 지점에서 그런 것들을 ‘공공’이라고 얘기하는 지자체나 국가에 위탁해버리고, 정치인들에 위탁하면서 소비자 정체성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좀 돌파하면 좋을까를 이은주 선생님하고 강원재 대표님한테 동일하게 여쭙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거버넌스를 만드는 제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실 말씀이 좀 더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제가 마지막에 시를 호출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문자답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까 강원재 대표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마치 한 편의 미학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는데, ‘시’가 좀 많이 없다는 불만은 좀 있었습니다.(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흥(편집자주 :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근원적인 힘들을 어떻게 길러낼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토론문에는 고영식 선생

기후포럼

'기후와 마음' 속기록

일시 : 2022년 10월 16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개회 오후 1시 30분)

사회 (고영직)

안녕하세요. 인문도시 행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열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조금 다른 도시는 가능하다.' 이런 주제로 수원이 법정 문화도시가 됐는데 문화 도시는 과연 나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는 제목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후와 마음'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후와 마음'이라고 정한 주체 측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생태계 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경고하는 여러 목소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또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실상에서 우리가 뭔가 합리적인 근거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한계가 너무나 크고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각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은 저의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라고 하는 명연설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호소를 했던 게 어쩌면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네 분 선생님을 모시고 '기후와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분 한 분

자기 좋은 분야에서 자기 좋은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키워드를 보면 시가 떠오르고 농사, 기도, 흙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재연결 이런 키워드가 오늘 중요한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도의 사상이 중에 사티시 쿠마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3S와의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3S가 소일, 소울, 소사이어티. 처음에는 흙과의 접촉이 필요하고 자기 영혼과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사이어티, 사회와의 재 연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아마 오늘 네 분 선생님의 말씀이 그 3S에 대한 새로운 환기, 새로운 회복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미국에서 시에라리온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가 모태가 된 활동가 중에 아주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자연은 항상 상징의 언어로 말을 걸어온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징의 언어가 실제적인 언어로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가뭄이나 장마나 온갖 이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들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기후야, 그만 변해. 우리가 변할게. 그것을 넘어서 기후야, 그만 변해. 이제는 내가 변할게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내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이런 공생의 도구들이 결국은 우리가 우아하거나 고상한 게 아니라 삶의 감각으로서 어떻게 이런 공생의 도구들을 잘 활용할 건가라는 문제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생물 중에 하나가 꽃을 피우는 식물하고 이 꽃을 화분을 매개 하는 곤충들이라고 해요. 서로 협력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얼마나 성공적인 전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 감각을 위한 공생의 도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건가 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네 분에게 사실 사회자이신 노명우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각자가 생각한 이 세 가지 말고 더 공생의 도구들을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굉장히 좋은 공생의 도구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사람들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하면 힘들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나중에 객석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생의 도구 관련해서 제안해 주시거나 드시는 생각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님의 <인문적 인간>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시는 아까 강원재 선생님께도 시라는 결국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글자 못 치일 뿐이고 현실로 바꾸는 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 위한 힘을 얻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들을 역사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시와 라틴아메리카 혁명이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의 두뇌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 때문에 우리의 창조적인 남자와 여자들 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륙 전역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때로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승리했다."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욕망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수성을 바꾸면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결국 시나 네루다 같은 시인나 문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꼭 그 세계를 바꾸거나 거창하게 국가를 바꾸거나 혁명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뭐랄까요. 나와 이웃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고 나와 세계의 거리 혹은 세계라는 존재에 대해서 폭력과 부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혹은 관여하도록 만든 좀 부드럽게 강제하는 힘이 바로 시의 힘이 아닐까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지하 선생님 같은 분들은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되게 많고 합시다만 죽음의 굶판을 걸어치우라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커다랗게 한국 사회 운동에 끼치는 악영향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본인이 꼭 죽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 다른 시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성복 시인 같은 경우가 서정시인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썼었죠. <그날>이란 시에서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시대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도 시대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세계가 어떤 힘들로 강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시가 새롭게 혹은 본질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일리치가 사실은 자전거, 도서관, 시를 공생의 도구라고 했을 때 이건 <성장을 멈춰라>라는 책에 나오는데, 다만 이것들만이 공생의 도구라고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공생의 도구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제강연

1 기후와 마음

사회 (고영직)

오늘 네 분 선생님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강연자로 김해자 선생님을 모시고 기후와 마음에 관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자 선생님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문단의 선배님이시고 2년 전에 작고하신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님께서 가장 애정하셨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저희끼리는 해자당이라는 비밀결사모임이 있습니다. 김해자당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저는 해자당의 당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울림이 있는 시를 쓰시고 또 14, 15여 년 전에 크게 건강을 잃고 나서 오히려 시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어떤 인간의 지구의 위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증하고 예리한 언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사로 오늘 김해자 시인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말씀을 청해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자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시오.

김해자 (시인)

수원 화서라는 공간에 지하철 타고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 와서 한 20분, 30분 전쯤에 농사도 짓고 예술활동도 하는 한진희 씨도 만났고, 이다예 씨도 만났고 녹색에 대해서 요새는 노동운동이나 빈민운동 이런 것보다도 더 몸을 내던져서 하고.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 더 근본적으로 자기를 걸고 하는 사람들, 홍칼리 씨도 같이 오늘 만났는데, 저는 이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 거대한 도시문명의 한가운데서 기후와 마음, 절박하게 생명의 터전으로서의 지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저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계신데 보시다시피 제가 말을 잘 못 합니다. 뇌도 열고 가슴도 열고 저는 의사가 될 팔자였는데 공부를 못 해서 의사한테 칼질만 당하는 팔자가 됐어요. 저는 김해자라고 합니다.

(박수)

저는 오늘 이 시끄러운 한복판에서 몇 분이 눈과 마음을 맞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당백의 마음으로 우리의 세계를 이 절박한 기후위기의 현실, 체감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처와 절박한 병과 혹은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저는 촌에서 농사 짓습니다. 십 몇 년째 농사를 짓기는 하는데 아직도 초보입니다. 그런데 제법 농사가 한 해한해 늘어서 제 소유는 아니지만 도지라는 게 생겼어요. 도지라고 아시죠? 표준어로는 도조라고 하나 봐요. 소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장님이 제가 풀과 작물을 구별을 못 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그거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도지가 지금 150평, 200평 늘어나더니 이제 500평까지, 올가을에 어쩌면 11월에 마늘도 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년 6월에는 들깨농사도 지을 거고.

우리 동네 아주 산골인데 아산하고 공주하고 맞닿는데, 천안은 천안인데 끝부분이예요. 콩지가 만난 부분에서 거의 산속에 있다고 해도 됩니다. 거기서 산지 꽤 됐는데 저는 어떤 이념이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고 제 자신이 그 촌에서 흙과 만나면서 제가 어린이가 되는 듯한 느낌, 나도 모르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 꽃이 사계절 피지 않습니까? 주로 가을까지만 피기는 하지만. 이 백합이 피었나 궁금해서 눈 뜨자마자 밖을 나왔는데 결국은 거기서 1시간을 허비합니다. 그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운동할 시간도 없지만 거기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거기서 뭘 또 따다가 부추가 있으면 부추를 따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따고 뭐가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백수농사꾼이라도. 그래서 그게 저절로 봉지가, 저는 주로 이웃들한테 얻어먹기만 하던 사람인데 저도 줄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땅에서 나는 게 이렇게 무한하게 많다니, 구경거리가 이렇게 많다니.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면서 저절로 일부러 제가 이웃을 사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 봉다리 하나로, 그 작물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해서 저희 동네는 지금 어르신도 계시지만 75세까지는 노인으로 안칩니다. 엇그제 30인승 버스로 가을여행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막 했는데 75세 이하가 봉사자고요. 75세가 넘어야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청년이죠. 그런데 그분들 주로 80세 넘은 할머니들, 문맹도 많습니다. 맹대열, 제 친구인데 81세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 적고 써서 내가 드리기는 하는데 안 읽습니다. 어쩌면 못 읽는 걸 알지만 저는 제 마음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 드리고 그런 분들에 에워싸여서 살죠. 물론 그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싸움과 패거리와 오해와 불화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지만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때론 미워하기도 하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또 따라 나와서 뭔가를 내 처지에 안 맞는 걸 해야만 하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게 결국 가족이자 이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어떤 다소 불편한 것을 내가 버텨내고 기다릴 수 있는가? 때로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지만 여기 택시를 타지 않고 모르는 길을 땀을 흘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말과 몸과 글은 한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다소 제가 체력이 불량하지만 내가 육체를 움직임으로써 만난 사람들과 그냥 관념으로 만난 우리 기후위기 행동하자 이거하고는 정말 다른 무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신자도 아니고 기도도 야매로 합니다. 급하면 아무나 불러요. 하느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달님도 부르고 이런 사람이지만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했어요. '선생님, 아버지. 제가 모자라지만 선생님의 지혜와 자비와 그 말씀을 십분의 일이라도 반의 반의 반이라도 저에게 가져다주세요. 김종철 선생님.'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만이 아닐 겁니다. 여기 와서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생애를 바쳐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라는 기간을 40대부터 2020년 6월 25일 아침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 걸 같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몸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이런 것을 아낌없이 세상을 위해서 주고 가신 분. 어쩌면 그런 억울함도 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실천적인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것을 녹색평론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30년을 하다가 가셨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잠잠할 수가 있나. 그것도 코로나로 전지구상에 위기가 닥쳤고. 농사짓거나 도시에서도 그럴 거예요. 가을이 가을이 아니고 아침과 밤이 봄·여름·가을·겨울이 지나가고 우리처럼 환갑이 지난 사람도 그럴 텐데 젊은이들은 오죽 그게 예민하잖아요. 젊음의 몸이라는 건 예민한데 얼마나 그것이 민감하게 다가올 것인가? 몸에 체감되는 것이 마음으로 다가올 것인가? 얼마나 각자도생을 하면서, 그 세상조차도 회색으로. 그런 시국에 결국은 저는 정말 김종철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야 우리가 어쩌면 그 눈물과 그 간절한 말씀을 이

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세상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억울하다는 말, 그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런 어떤 애달픈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대에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로도 일을 했고 또 생계가 또 안 돼서 아이를 낳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우유배달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너무 새벽에 일을 하게 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학습지 배달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을 말할 만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김종철 선생님이 마지막 7년 동안, 정확히는 세월호 때부터. 우리의 전 대한민국이 국상을 치르는 듯한 슬픔과 알 수 없는 오로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인데 진실은 어디에서도 말해 주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런 시기에 제가 김종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길을 잃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해 봐도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만났을 때 딱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나도 이 문명, 현대문명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쩌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도 병든 인간이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가? 단지 인생의 효율성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답답한 거 이것들이 결국 대지의 감수성, 생명이 자라고 나고 있고 그것이 꺾이고 있고 개발과 부라고 하는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존재가 짓밟히거나 수단화되거나 결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를 보게 됐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인공적이고 흙의 감수성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다른 수단으로 뇌를 채우는데 진정으로 몸과 하나된 그런 어떤 생명의 감수성을 내 삶으로 성장시킬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고뇌하고도 일치했다는 것을 제가 정말 확연하게 느꼈고. 아까 억울함을 얘기했는데 2030년 정도 되면 김종철 선생님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 우리가 어떻게 초거시적으로 초미시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술문명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실제 몸과 마음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이 외로운 마음. 이것을 정말 몸은 떨어져 있는 고독과 이런 어떤 외로운 상태로서의 그 문명.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구를 살린다는 말은 감히 못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농사지어보고 텃밭이라도 해 보고 아이를 키워보고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지구는 저희들이 고민할 수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의 인간, 나와 내 이웃과 나의 후손, 나의 아이들의 삶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생태문명. 땅은 저절로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심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키워내는데 자기가 갖지도 않고 자기가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것이 순수 증여인데 우리 같은 감히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거래를 하고 계산을 하고 주고받음을 생각하고 상품으로서의, 꼭 상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인간으로서 그 대지의 마음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갈, 원래 인간이 그럴 수 있었다면 지구는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김종철 선생님이 단지 생태운동가가 아니고 인간이 가진 현대문명의 말자하면 병든 문명 그것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부재다. 흙을 잃어버리면 흙의 감수성,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도 벌써 1, 2년 사이에 앞의 산이 깎이고 나무를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300그루를 한꺼번에 베어버리고, 단지 떨감을 하기 위해서. 도처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찢겨져나가는 대지. 단 한순간도 소음과 화학공해와 농약냄새와 포클레인이 잘라내는 소리, 찢겨나가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숲속조차도 걸을 수 없는 이런 세계.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만든 것은 자본이 아니고 결국은 그 자본을 함께 이 생산력이 발전한 세상에서 고루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부재. 진정한 정치의 부재.

제가 김종철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은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그렇게 몸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태, 기후라고 하는 위기를 자칫하면 그냥 자연을 사랑하자, 생명을 사랑하자, 좀 더 뭐를 아껴 쓰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결국은 정치시스템까지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병든 문명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이런 것이 저의 최종적인 것이었고 그 평등을 얘기하지 않는, 진정한 약자의 아픔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생태운동을 넘어서 진정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같이 먹고, 공식이라고 하죠. 같은 마음, 공심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같이 산다, 공생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적어도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미약한 사람이 자주 잊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주 깨어서 그것을 환기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자.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서가 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수)

저는 혼자 말하고 이런 건 진짜 오랜만인데 저는 이웃의 살아 있는 말들을 대지의 상상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김종철 선생님의 저작의 하나인 '대지의 상상력' 그것은 서양 유럽에 기계가 들어오고 인간이 파편화되고 인간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 고통을 얘기했던 민감한 영혼의 소유자인 소설가, 작가,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평론한 아주 훌륭한 마지막 저작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선생님의 저작은 아예 '땅의 옹호'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수성을 말씀하셨어요. '대지의 상상력'과 '땅의 옹호'가 부동산 서적에 분류되어 있었다는,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진정으로 공감하고 싸우려면 저는 눈물어린 웃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세계가 셔터 문이 닫히는 듯한 느낌이든 게 이론을 하나도 몰랐을 때인데 제가 촌에 살 때 아예 산속에 산 적이 있어요, 집 다섯밖에 없는. 거기서 산 적이 있는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뭐가 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셔터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산속에. 그게 제 마음의 소리였던가 봐요. 저는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안 보이는 걸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세상의 에너지가 전해 오는 걸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눈을 쳐다보느라고 하나도 안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강연보다는 다음 분들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고 제가 준비해 온 게 많아요. 많기는 하지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자신의 삶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마음속의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계십니까?

이번에는 조금 멋있게 말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좀 보완이 될 겁니다. 노동, 레이버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작업, 좀 폼나죠. 나 무슨 작업하고 있어. 좀 고차원이라고 느껴지고. 연구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크.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정치행동을 하고 있어, 생태운동을 하고 있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라고 할 때의 액션, 행동입니다. 김종철 선생님 말씀을 또 드립니다마는 와타나베 교지라는 재야,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는 앉지 못했지만 재야에서 꾸준히 핵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을 얘기한 와타나베 교지라는 사

람이 있는데 서양에서 생각하는 레이버를 그냥 육체노동으로 치부하고 고차원 정신노동을 워크라고 분류하고 고상한 예술을 하고 정치행위를 하고 이런 액션을 전부 분리해서 우리가 하는 육체와 흙으로서의 대지, 이런 것은 하위, 아래로 두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고차원적인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치우듯이 밥을 먹는 그렇게 노동을 취급하는 그런 어떤 분리된 이런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제 경험을 빌려도 밥을 맛있게 잘 먹기 위해서 저는 밭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밥은 꼭 필요해요. 내 에너지, 내 몸에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 내가 세상이 고상하다고 말하든 아니든 내 몸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단지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마치 대충 아무렇게나 챙겨서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가지 하나 따고 토마토 두 개 따고 그다음에 거기에 혹시 있으면 계란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레이버, 노동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맛이 단지 그냥 영양성분이 아니고 살아 있는 생명과 연결되는 내가 된다는. 그래서 저는 요새 뒤늦게 노동운동을 한다.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뒤늦게 내가 못한 노동을 해서 내가 그거 자체가 운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밥도 맛있고 그러면 또 내 생각이 이상하게 밝아져요. 우중충했던 마음, 약간 우울했던 마음.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저처럼 여러 가지 칼을 대고 무슨 약을 먹고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멀리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것을 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노동, 하찮게 생각했던 말하자면 열려진 공간에서의 생명과 함께하는 노동이었다. 그것을 제가 비록 촌이니까 탁구도 못 치고 배드민턴도 못 치고 스파 가서 뭘 못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그런 많은 데이터나 지식이 있으시겠습니까마는 2030년 정도 되면 AI 이미 플랫폼화된 노동, 하나의 부품으로써의. 옛날 제가 공장에서 미싱할 때는 서로 얼굴이나 보고 했지 지금은 이미 전부 다 분리된, 그 부품이 옛날에는 플라스틱 미세먼지로 따지자면 그때는 이만한 존재였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정말 미세한 먼지로 돼 있는. 지금도 그런데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AI가 내 옆에 나의 모든 노동과 워크와 행동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기 있는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됐을 때의 세상은 인간의 얼굴을 보기보다 거의 인공지능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때의 우리의 몸, 진정한 타인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데 제가 관심 있

어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계급은 어떻게 되냐면 0.01%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통제된 고도의 자본이 0.01%, 피라미드 상부에 1만 명에 1명이 존재하고. 그리고 나머지 0.02%의 정치가, 유명스타, 체육인 혹은 연예인 배우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몇 억씩 벌고.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우리는 과연 그때 계급이, 인간으로서 결국은 1만 명에 3명 빼고는 나머지 우리는 다 평등해진다는 얘기에요. 그 평등이 어떤 평등입니까? 차마 말하기 어려운데 조지 오웰이 말한 동물농장에서 말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통제된 거대한 눈이 있고 우리는 중산층조차 없고 농민도 없고 진정한 육체를 움직이는 노동자도 없고, 없다는 얘기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연구한 것 중의 하나는 로마클럽보고서나 최근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0.5도, 1도 이런 것들이, 실제 촌에 살면 저는 내복을 입은 지 한 달 됐습니다. 그 정도로 밤에는 급하게 겨울이 오고 낮이 되면 반팔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예민한 분들도 있겠습니까마는 산속에 살다 보면 그 온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다가와요. 그것이 이렇게 가파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저질러놓은 이미 서구유럽의 그 잘난체하는 근대문명이 저질러놓은 이런 것들을 아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을 하면 저절로 걸어지더라. 노동을 하면 저절로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더라. 노동을 하면 진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약간 희망적이 되더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의 어떤 이 생태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고가 훨씬 더 대지적 상상력과 몸이 맞닿아야 되고 그런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고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진짜 동지들을 규합하고 싸우거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나이 연배, 여기 제 나이 연배 선생님 한 두 세 분 계십니까마는 우리는 어릴 때 공동체적인 삶의 기억이 있어요. 거지가 와도 우리 엄마가 밥상을 차려서 상에 대접을 하고 옛장수가 와도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과연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는가? 그런 질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연배의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청년들의 말을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정도의 삶이라도 지속가능한가? 이 정도라도 가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집에서 오는데 벼 노랗게 물들고, 물론 개발과 진보의 상징인 기계소리가 엄청나게 시골까지 울려 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일부가 어머니같이 우리를 안아주고 있는 세상.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을 교환하고 자기가 몸으로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사람들과 교환하고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젊은 활동가, 농사도 지어보고 또 사람들과 상담도 해 보고 녹색연합에서 일도 해 보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급박하게 웃으면서 이런 자리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흙과 생명과 진심으로 민초, 풀이죠. 오죽하면 민초라고 불렀겠어요. 저는 우리 조상들은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양반이 있었다고 하지만 모심, 받들어 모시는 살피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경, 상대방을 진심으로 맞잡고 보는 경이 있었고 겸이 있었고. 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이라고 김중철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선생님이 살아보시면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질문의 하나가 자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흙의 모심, 어머니 모자를 쓴 흙에서 나오는 그 모심의 마음이 저는 자비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겸이었어요. 가난을 자랑하지는 못하되 전부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고르게 불편하고 가난한 삶을 검소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검소함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자 선생의 말을 빌려서 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 감히 남의 앞에 함부로 앞장서지 않는다, 앞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앞선다는 얘기는 그런 거겠죠.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 소유의 문법, 명예의 문법, 힘의 문법에 끌려 다니지 않고 마치 얼음길을 건너가는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 조심조심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저는 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2030년 로마클럽보고서에서는 물도 모자라고 우리가 이용하는 양식도 모자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다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이런 도표가 30년에서는 교차를 합니다. 다른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세계를 앞두고 오늘 모인 여러분, 저의 동료 여러분, 동지들이 웃으면서 꿈꾸기. 그냥 오늘 하루

맛있게 밥 먹고 기운을 차려서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 우리 예쁜 아이들의 마음으로. 꿈은 봄의 기운입니다. 나무의 기운이자 봄의 기운이자 어떤 생명을 막심는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재미있게 살아가보자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모자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기는 한데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보다 제가 만나고 내 마음에 뭔가 다가왔던 분들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뒷산에 평평골이 있는데 그 뒤에 백수도 참 할일이 많다. 부제 이웃들. 거기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얽은 들깨 한 소쿠리 얻었다고 끝나는 그런 시인데 저는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고 문자화된 시보다는 내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제가 감히 어루만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와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제가 허락을 받아서 실명이 등장할 때는 그렇게도 쓰고 또 사람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관찰자가 돼서 그분들의 시를 받아쓰는 편입니다. 이 시도 받아쓰는 시인데 제 시집 중에서 시가 제일 길어요. 제가 시집이 한 5권 되는데 제가 마흔 넘어서 시를 아주 늦게 딱 짓 하다가 시를 썼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 시집이 5권 시집에서 가장 긴데 고영직 박사께서 이 시를 읽어달라고 하시네요. 일부만 제가 낭송을 할게요. 이게 제목이 해피랜드예요. 제가 암수술하고 부작용으로, 후유증이라고 하나요. 온갖 기계 속에 들어가서 공명통에 들어가서 톱니바퀴가 갈리는 소리 이런 것을 듣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우울 이런 거 있잖아요. 혈압도 막 올라가고 약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 저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들어온 게 이 아이들의 얘기를 보고 내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시가 아닌 시인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해피랜드라는 다큐 프라임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EBS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5살부터 제일 많은 애가 14살인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해피랜드. 필리핀의 쓰레기 하치장. 거기서 페트병을 줍는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해피랜드예요. 반어죠. 우리 엄마가 내가 수학점수 50점 받아왔을 때 잘했다 하듯이 반어법인데 일부만 낭송하겠습니다.

해피랜드.

빨간 장화 두 짝.

몽게구름 이고 있는 장대가 신고 있다.

밤 9시 빨간 장화 내려와

작은 발 두 개를 들여놓는다.

빨간 모자 위에서 빛나는 보름달 같은 등.

대나무 구렁 지고 꼬챙이 들고 빨간 장화가 산으로

올라간다.

날마다 높아가는 반타르 계방.

쓰레기 더미를 헤치지 않고는 보물을 찾을 수가 없다.

장화가 닫는 곳마다 숨어 있는 종이와 플라스틱과 깡통은 제일 좋은 보물이예요. 지금 드시는 물병도 다른 데 버리면 안 돼요.

굴삭기를 피하다 유리에 찰렸다.

장화 위로 피가 흘러내린다.

상처를 손수건으로 묶고 빨간 장화는

보물찾기를 한다.

앞에서 아래에서 어른 파란 장화들이 퍽퍽 쓰러진다.

굴삭기에서 떨어진 텔레비전에 맞았다.

저깅 포클레인쯤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새벽 3시.

움막으로 빨간 장화가 돌아온다.

2시간 자고 학교에 갔다.

닭아도 닭아도 쓰레기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11살 나디아예요.

친구들이 내 옆에 앉지 않아서 슬퍼요.

학교가 코란을 읽는다.

코란을 못 읽어 선생님께 혼났다.

신은 왜 내게 공평하지 않은가.

작은 신, 아주 작고 작은 신.

빨간 장화가 책상에 엎드려 운다.

이것만 읽을게요.

(박수)

제 이야기에 이어서 강연자 세 분의 이야기가 연달아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기후를 걱정하지만 역시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유쾌하고 곳곳하게 대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첫

번째로 수원이 낳은 청년활동가이자 현재 순천에서 농사짓고 예술도 하는 한진희 씨 모십니다. 다음 이야기 주자는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다예 씨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보다 저는 여러분의 별자리와 점을 봐주고 싶은데 저랑 같은 동종업자인 예술가인 홍칼리 씨 소개합니다.

2 나는 왜 OO를 하는가?

한진희 (청년활동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원이 낳은 활동가라는 소개가 굉장히 잘해야 될 텐데 싶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저는 논두렁밭두렁에서 춤을 추면서 절망이랑 싸우고 있는 논밭 암시랑도 한진희라고 하고요. 논밭 암시랑도 할 때 암시랑도의 뜻은 아무렇지 않다는 전라도 사투리예요. 우리의 논과 밭이 아무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저는 수원에서 한 25년이 넘게 살다가 순천과 별교로 귀농한 저는 3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나는 왜 하필 농부가 되고 왜 하필 지금 농부가 되었는데 하는 이야기에요. 흔히들 지역이 소멸해 간다고 하죠.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소멸에 저항하면서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기후위기의 뚜렷한 징후들이 보일 때 굉장히 우울하고 속상한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 보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와 마음'이라는 행사가 열린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사는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나눌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거는 사족이지만 제가 마을에서 늘 어르신들만 뵈다가 이렇게 막 에너지 넘치고 젊은 분들이 함께하는 곳에 오니까 굉장히 설렘니다.

현재를 이야기하기 앞서 저의 과거에 겪었던 위기나 변화, 시도, 희망 같은 것들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녹색당원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인이 되고 싶었고 나뭇가지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했던 그때의 저는 더 자라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했고 그래서 눈물을 달고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말 못하는 무생명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녹색당원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당직자라는 이름보다 활동가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모습으로 4년에서 5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녹색당 안에서 낙관과 우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마주하는 생태적인 위기들을 보면서 뭔가 쟁취하고 우리가 승리한 기억보다는 커다란 벽과 마주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소리 치고 목소리 내는 우울한 날들도 있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활동가 3년에서 5년차쯤에 오는 에너지 소진의 고비가 있습니다. 저도 그 즈음에 제 안에서 비비비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경고는 나의 지향과 언어가 정작 나의 일상이랑은 과연 맞는가 생각했을 때 굉장한 괴리감을 느꼈어요. 녹색당에서 풀뿌리를 이야기했지만 나는 과연 지역에서 잘 뿌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었어요. 낮이면 컴퓨터랑 씨름을 했고요, 저녁이면 당원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러 갔고 주말이면 집회나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도 김밥 한 줄로 때울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일이라고 믿고 자위하면서 달려왔는데 정작 나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건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굉장히 많아서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 일이 바쁘니까라는 이유로 도시의 화려하고 편리한 것들로 쉬운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 것들로 제가 먹고 입고 선물하고 소비를 계속 해 왔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굉장한 단절감 같은 것들을 느낄 때도 많았고요. 뭔가 엑셀 함수는 그럭저럭 사용할 만한데 정작 삶을 일구는 자잘한 생활기술, 삶의 기술들을 잊어가는 위기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내 말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건 아닌가라는 갈증도 동시에 들었는데요. 그럭저럭 살고는 있지만 내 삶의 화두, 내 삶과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서사나 나의 목소리는 무엇이지 하는 고민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한 10년 뒤에도 저는 그럭저럭 바쁘게 허둥지둥 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마주하면서 저는 비로소 전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의지가 박약한 편이라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농촌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유명한 사진처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시골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저의 지향과 좀 맞닿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평소 제가 어떤 것들을 좋아했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수원은 제가 고향처럼 살았던 곳. 너무나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살았던 곳이기도 제가 다른 도시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제가 선택하지는 않은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어려서 이의동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여기 수원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광고신도시가 지금은 들어선 곳이어서 과거의 모습을 감히 거기에 살았던 저조차도 상상이 잘 안 돼요. 그곳에는 논과 산과 들판, 쓰러져 가는 구멍가게,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여름이면 새카매지도록 쪽배 들고 물고기 잡고 거미 잡고 밤 주우러 다니고 토마토 서리하러 다니고 그게 저의 일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콘크리트의 단단함보다는 흙에 대한 향수를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커서도, 아파트에 살았어도, 이 화려하고 좋은 도시에서도 늘 한 군데가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고 싶었고 제가 농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 살게 된다면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맹랑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 굳이 농사를 짓게 된다면 기존의 관행농보다는 지구에 덜 해로운, 사실 농사 자체도 어느 정도 계속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덜 해로운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촌이 아닌 귀농을 하게 됐고요. 빌린 논과 밭, 집에서 보시다시피 일회용 비닐 없고 제초제 없고 살생제 없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역 어르신들한테 저랑 짝꿍은 유기농 하는 바보예요. 밭을 망치는 바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재네들이 왜 도시에 있다 시골로 왔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기술이나 자본, 이런 것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녹록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감자밭인데요. 한 400평 가량 돼요. 여기를 매일같이 나가서 풀을 뽑고 했는데 3개월 동안 풀을 뽑았거든요, 짝꿍이랑 제가 둘이 나가서. 다 팔고 택배비 뭐 뭐 해서 남은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3개월 나눠보니 제 일당이 5,000 원이더라고요. 그런 생계적인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짝꿍은 전업으로 농사를 짓고 저는 오전부터 낮까지 인근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뵙고 말벗을 하고 안부를 살피는 일을 부업으로 겸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농촌에는 여성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실례지만 남성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요. 그랬을 때 덕호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본인의 이름 없이 저로 치면 제가 결혼을 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수원덕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고향의 이름으로 누구 누구 덕, 누구 누구덕 이렇게 불리면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 특히나 성역할과 가부장적인 것들이 농촌이 굉장히 뚜렷한데 그 안에서 차마 풀어내지 못했던 여성 어르신들의 응어리, 감정 같은 것들도 더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저도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것들이 또 있고.

지금 사진들은 농사지을 때의 모습들을 조금 담아봤어요. 어딘가 의존하지 않고 지으려다 보니까 저도 트랙터도 배우고 예초기도 하고 관리기도 하고 다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제 손가락만한 벌레를 보기도 하고요. 풀이랑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요. 그다음은 제가 어르신들 말벗일 한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만나서 콩도 까고 토란대도 까고 들깨도 털고. 여기 아래에 핸드폰 사진 보이시잖아요. 이거 잠깐 설명 드리면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1234가 안 돼. 와서 봐줘.” 해서 갔더니 어르신이 전화를 걸고 싶은데 키패드를 못 찾고 계산기를 누르니까 우리 전화기 키패드랑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서 계속 안 되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해 드리고 또 그 옆에 삼푸-린스가 영어로 되어 있거나 작은 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거 순서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르신, 이거 1번 먼저 쓰시고 2번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하기도 하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농부인데요. 농촌에 살아야지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를테면 마구 버린다거나, 그냥 정말 다 막 버리세요. 막 버리고 막 태워요, 그걸 또. 그리고 농약이면 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명의 사명감도 더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농촌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고 하는 것임을 여실히 알아가고 있고요. 또 이것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해 온 또래친구들과는 마음을 모으고요. 유기재배 농사짓는 이웃 농부들과는 같이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또 쓰임이 필요할 때는 봉사대원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에 얼마 없는 청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별거 아닌 창문들이잖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특별한 건 아닌데요. 제가 딱 누웠다가 눈 뜨고 바로 일어나 앉으면 보이는 일상의 풍경이었어요. 제 창문에서 바로 보이는. 이게 이 사진뿐만 아니라 새소리가 옆에서 막 들리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물론 농촌에 산다는 게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새소리, 물소리를 듣고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이 없이 살았지, 철을 모르고 살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땀 뚫린 도로나 은행에 갔는데 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상의 긴장감들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좋고. 또 몸은 비록 힘들지만 이 농사일을 짓다 보면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가볍고 깨끗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삶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도시적인 소비양식에서 제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적인 소비양식이 뭘까 생각해 보면 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분업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룰데면 옷에 큰 구멍 나면 세탁소 가면 빗자루가 필요한데 하면 마트에 가서 사고 그래왔어요. 그런데 농촌에는 애석하게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 직접 만들고 고치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오는 생산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도시의 소비양식은 계속해서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버스 하나 타러 갈 때도 맛있는 냄새, 화려하고 예쁜 옷, 정말 좋은 신상 핸드폰. 보다 보면 굳이 사지 않아도 필요하지 않아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훨씬 총동적인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소비로 풀지 못한 자극들은 다양한 취미활동이라든지 다른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다 만든 것들이예요. 제철 꽃 피면 꽃차 만들고 산딸기청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밀랍초도 만들고 아낌없이 피어나는 토끼풀로 화관 만들고 천연염색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역축제의 장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된장도 담고 수수빗자루도 직접 만들어보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이게 제가 농사지으면서 밭에서 나온 비닐조각들이예요. 제가 밭을 빌리기 전에도 그 농부님께서 친환경 유기재배를 하셨고, 귀농하신 분이. 그래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비닐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바람에 날려서 온 비닐일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커다란 쓰레기봉투 가지고 와서 열심히 치

웠는데 이게 끝도 없으니까 저도 지치고 또 막 화도 나고 무력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너무 자주 보니까 무뎠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로 뭔가 다른 공감을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웃 어르신 밭으로 당장 달려가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비닐들을 주워다가 개울가에서 털어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때 사진이고요. 그다음은 논밭에서 나오는 여러 쓰레기들을 계속 줍기 시작했어요. 그것들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른 시각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하얀 비닐쓰레기로 드레스를 만든 거고요. 그 옆에 쿨톤의 조형물은 쓰레기들로 만든 조형물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침도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일부러 사람을 써서 예초를 하고 베어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로 만드는 일회용 접시도, 물론 일회용이라는 게 굉장히 싫지만 아무튼 일회용 접시도 생각하고 있고 나무를 베지 않아도 매년 풍성하게 자라는 나뭇잎들로 명함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저한테도 분명 위기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위기가 저한테는 또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후위기가 정말 큰 위기이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계점을 지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환의 계기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처음에 했던 질문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왜 하필 농부가 되고 지금의 농부가 됐는지. 저는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제가 농부가 됐다는 것, 농부를 자처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농촌을 지키려고 해요. 소멸에 저항할 거고요. 제가 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 농촌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는 일임을 저의 존재로서 보여주고 싶고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모두가 조금씩 농부가 되는 사회를 꿈꾸면서 저야 수원을 떠나 농촌에 살기를 결심했지만 수원 안에도 오아시스 같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산에서 생명 다양성 논을 만들어나가는 논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가치가게,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지향하면서 그 안에서 기후 정의를 도모해 가는 가치가게도 있고요. 수원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빠르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런 곳들을 조금

더 빨리 만났더라면 저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수원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 공유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현 작가님의 '마고'에 나오는 길인데요. 이게 바로 낙관이야. 우리는 낙관할 수 있어.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낙관해요. 다시 한 번 낙관해요. 감사합니다.

(박수)

잠시 30초만 빌려서 깨알 홍보를 하자면 제가 아까 사진 작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11월 말에 오프라인 전시를 생애 처음으로 열게 되는데 온라인 전시도 함께하려고 해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잠깐 저의 연락처를 공유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맞닿아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얘기가 너무 주절주절 길었는데 다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신 분은 녹색연합 활동가인 이다에 님이세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얼마 전부터 안내자로 참여하고 있는 재연결 작업의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 재연결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회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재연결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다에 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이다에 (녹색연합 활동가)

안녕하세요. 계속 녹색연합을 강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이다에라고 하고요. 재연결 작업 안내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재연결 작업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분 안에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쉬운 게 제 이야기부터 하는 거여서 제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기후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별 보는 걸 좋아해서 천문학을 공부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 너드 사이언티스트(Nerd Scientist)라고 부를 만큼 되게 감성 없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되게 발달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재연결 작업하고 있다면 되게 웃긴데 상대방의 감정에 잘 공감 못하고 위로 같은 걸 잘 못해 주는 약간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었고. 천문학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동물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고 그게 상당히 제 인생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저는 세상이 굉장히 완전무결한 곳인 줄 알았거든요. 다 잘 작동되고 있고 해결할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제 안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문제라는 것에 조금 더 폭넓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기 옆에 계신 분처럼 뭔가 이게 다양한, 환경문제 생각하면 수렴되는 것이 농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귀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3, 4년 전인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조천호 박사님의 강의를 보고 이 문제를 처음으로 잘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강연을 듣고 들었던 생각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는 이제 알게 되었는가? 어른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은 무엇이었는데?'와 두 번째는 당시에 제가 친구들 5명 정도 데리고 가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과 굉장히 절망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밥 먹는데 친구들한테 "야, 그런데 기후 위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끝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그런 식의 반응과 한 친구는 "지금도 사람은 죽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러한 큰 문제를 외면할까라는 물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다가 예전에 알던 환경문제는 조금씩 노력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뭔가 하다보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면 괜찮겠지. 그런데 기후위기는 어쨌든 시한이 어느 정도 정해진 문제라서 뭔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제 주변에는 당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우울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왜 살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뭘 해봤자 딱히 세상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이들에 한 번씩 울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어떤 강의를 듣게 됐는데 '멸종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라는 제목의 영국의 멸종저항운동을 경험하고 돌아온 분의 강의였는데 그 강의에서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후강의를 굉장히 들으러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세 번씩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걸 많이 들으러 다녔었는데 보통은 다들 숫자와 해결책과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처음으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후가 붕괴하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고 이런 걸로 울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걸로 슬퍼해도 되는구나, 중요한 문제 구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작업이 재 연결 작업이었고 이런 재연결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혼자서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런 슬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작업이 있다고 소개시켜줘서 굉장히 이 작업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녹색연합 활동가가 되었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활동하자마자 코로나가 있어서 사람을 못 만나다가 어떻게 줌으로도 하자 해서 녹색연합에서 이 프로그램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재 연결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5주 동안 20명의 사람이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활동가들의 목표는 이 불안이나 우울의 에너지를 어떻게 행동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재연결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이러한 위기가 초래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욕심이 무한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업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끊어져 있는 그 연결감이 이 위기를 초래한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 자연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작업이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데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았냐면 우리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300년, 4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았던 인류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지속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주민이라든가 아메리칸의 선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했

던 의식들과 활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거나 자신들이 생명을 취할 때 그 생명에 대한 애도를 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동으로 가져와서 형태로 만든 게 재 연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만든 건 미국의 심층생태학자인 조안나 메이시라는 분인데요. 지금도 90세가 넘었는데 살아계신데 이분이 이 작업을 만든 게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였는데 아들이 싸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 자기 집 주변에 원전이 있는데 그 원전에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과 밥을 먹다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제는 밥 먹다가 꺼낼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조천호 박사님 강의를 듣고 그랬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외면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분이 생각한 것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이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라서 그것을 안다면, 정말 안다면 지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외면하는 거구나를 깨달았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그 문제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게 자신의 어떤 슬픔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자기는 그 문제를 마주보았을 때 어떤 슬픔을 느끼는지부터 꺼내놓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작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심층생태학이라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심층생태학이 뭔지 저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녹색연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생태철학 강의를 사무처장님이 해 주셨어요. 그때 사무처장님이 생태감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끼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약간 ‘이런 거 잘 못 느끼지?’ 이런 말로 한 거였는데 제가 “당연히 느끼죠.”라고 대답을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언제 어떻게 느껴? 그걸 어떻게 대체 느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당시에 어떤 고래가 선박의 소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게 기억이 나서 “고래가 아픈 걸 보면 제가 아프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심층생태학의 개념인 것 같아

요. 예를 들어서 표층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버리면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부서져서 미세플라스틱이 돼서 그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서 인체에 해로우니까 플라스틱을 버리지 말자는 거라면 심층생태학은 우리와 그 물고기가 그리고 바다가 같이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몸처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심층생태학인 것 같고. 재 연결 작업은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뿌리에 해당하는 작업이 감사의 작업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고통을 서로 이야기하고 존중하는 작업, 새로운 눈으로 보기를 거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짜여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따가 기회가 되면 감사 작업을 같이 해 볼 건데 제가 녹색연합해서 했던 재 연결 작업에서는 예를 들어 감사 작업에서는 지구를 화면에 띄워서 보면서 우리가 지구를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지구를 보면서 지구에서 살면서 좋았던 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고 각자 애도하고 싶은 것을 가져와서 그런 걸 돌무덤이라는 곳에 꺼내놓으면서 애도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같이 애도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작업들을 4, 5주에 걸쳐서 했고요.

재 연결 작업을 다루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 연결 작업에 대한 소개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이 제일 먼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 중 가장 큰 위험은 위기에 대한 반응이 무뎠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사실을 모두 다 아는 데도 기후위기라는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 생사를 다룬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 차단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무디게 반응하고 있는 것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랑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색연합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저랑 기후 관련 팀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다예야, 내가 분명 녹색연합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후위기 너무 심각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그것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왜 자꾸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할수록 아무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어떤 뉴스를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 “나도 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기업이 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할까, 생각을 하면 무뎠어져서 그렇구나,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뎠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갈고 닦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재 연결 작업을 했을 그나마 이 무뎠어진 마음이 조금 뾰족해지는 느낌을 저는 받곤 합니다.

제가 기후위기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거대한 문제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 1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나는 너무 작은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재 연결 작업에서 조안나 메이시나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라는, 나라는 사람은 보통 개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그냥 단절된, 세상 누구와도 단절된 개인인데 이 생명의 그물망에서 우리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40억 년을 살아온 생명의 물줄기의 일부이고 5번의 대멸종을 견뎌온 생명의 진화의 산물인데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힘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나 혼자 아니라 세상과 아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내가 곧 지구와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죠. 저도 활동가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물음이고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끝났어, 이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만나면 늘 생각하는 건데 IPCC 같은 기후과학에서 내놓는 경고는 6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다 확률의 언어로 표현된 거잖아요. 6년도 사실 정확하게 6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보다 더 적게 남았을 수도 있고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 그걸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무 늦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저한테 처음 기후강의에서 울어도 된다고

해 줬던 선생님의 말이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를 재건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 줬거든요. 기후위기 앞에서 같이 살아낼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비판과 낙관 속에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과 어떻게든 그냥 잘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희망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희망하는 것은 낙관이나 비판과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액티브 호프’라는 조안나 메이시가 쓴 책에서는 적극적 희망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적극적 희망이라는 건 희망이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날 가능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기후위기가 그러한 문제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적극적 희망을 우리가 당장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써진 말처럼 미쳐버리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금의 쓰레기더미와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 분은 제가 녹색연합에서 재 연결 작업을 했을 때 참여자로 처음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홍칼리님이시고 비건지향 페미니스트 전업무당이십니다.

홍칼리 (청년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무당 홍칼리라고 합니다.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다예 활동가님께 방금 들으신 재 연결 작업을 저도 신청해서 같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되고 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자연으로 기도를 가잖아요. 산신령님이나 바다의 용왕님 이런 신령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같이 현존하고 있는 에너지인데 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혼자서 그냥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재 연결 작업을 들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 좋았고 이 자리를 빌려

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동물들과 식물들, 우리가 잘 이름 붙이지도 못하는 다양한 생물종들을 애도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상징하는 나의 소중한 물건과 자연물들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지금 오늘 여기에 있게 된 이 시간도 마치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를 나누어준 앞선 분들과 또 김해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연을 가면 먼저 시작할 때 오늘이 어떤 날인지 말씀을 드려요. 오늘 10월 16일은 임인년 경술월 임인일이라고 하는데요. 올해가 임인년인 건 다들 아시죠. 검은 호랑이의 때거든요. 오늘의 검은 호랑이의 날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위에는 아주 큰 바다와 같은 물이 있는 날이고 밑에는 큰 고목, 큰 나무의 기운이자 산을 지키는 호랑이의 날이에요. 그래서 산신령은 자비를 뜻하고, 오늘 자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재미있는 동시성이었고요. 임인년은 영적으로는 산맥 안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던 지모신이라고 하죠. 땅 밑에 가장 아래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 대지 여신이 자다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올해가 그런 해였고 내년은 또 진흥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게 매년마다도 다른데 매일 마다도 주어지는 그날의 기운이 있고 그날그날 달라지는 하늘의 날씨처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기운도 바뀌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얘기 하나면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달력을 볼 때도 그냥 네모칸과 숫자의 배열, 할 일 목록을 보는 수단으로 보잖아요.

옛날부터 많은 사면들과 예술가들도 그랬고 농사짓는 분들도 그랬고 그날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땅의 냄새 이런 것들로 하루를 어떻게 보면 의미부여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창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감수성이 지금 모든 의미가 저는 해체되고 있는 때라고 느끼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상상력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왜 무당이라는 직업옷을 입고 수행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있게 되었는가, 또 비건을 지향하는데 왜 제가 비건을 지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무당이니까 굿도 하는데요. 보통 굿상에서 음식을 차리고 굿을 할 때 죽은 사람 영혼을 위해서만 주로 이렇게 상차림이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

만 그런 거 보셨죠, 실험용 쥐들을 위한 위령제 하고서 실험용 쥐를 그대로 실험하기 전에 어떤 액운을 막기 위해서 천도하는 이런 의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비인간 동물들을 온전히 애도할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8월 달에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동물권 단체에서 죽어가는, 너무 많이 희생된 비인간 동물들, 공장식 축산으로든 어떤 인간에게도 구화가 되었던 동물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는데 굿당에서 굿상을 차리고 하는 굿보다는 이렇게 집회현장에서 하는 의례와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집회도 다 굿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제일 왼쪽 끝에 있는 것이 땅콩인데요. 땅콩은 쥐에게 바치는 음식이었고요. 그 옆에는 소에게 바치는 옥수수. 순서대로 12지신 아시죠? 자축인묘진사오미, 띠별 운세 이런 거 보시나요? 그런 것처럼 각 열두 신령, 12지신의 음식을 놔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감자고 용을 상징하는 저기 왼쪽에 두 번째에 있는 음식은 파래인데요. 용을 물살이라고도 봐요. 물살이의 음식을 놔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 검색해 봤어요. 쥐가 좋아하는 음식, 물살이가 좋아하는 음식, 소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검색하면 쥐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주로 나오고 물살이가 좋아하는 음식 하면 미끼를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인간 동물들이 다른 생물종과 맺는 관계가 정말 이렇게 도구화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도구화할 수밖에 없는 그 프레임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왔고 이걸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깊은 절망감도 함께 마주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절망감과 그런 걸 갖고 계속 질문하면서 지내실 텐데.

우리가 애도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진은 동물권 행동 행진을 할 때 죽어간 비인간 동물을 위한 애도하는 진혼춤을 출 때 썼던 낫전과 종이국화, 쓰고 있는 건 고깔이에요. 이런 종으로 주로 애도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하얀색은 모든 색을 다 품을 수 있는 색이기도 하고 또 종이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거나 일기를 쓸 때도 주로 종이를 사용했잖아요. 사물 중에서도 인간에게 말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무당이면서도 어떻게 기후위기 이런 활동을 하고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또 퀴어에 페미니스트 이기까지 하나, 액세서리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무당, 샤머니즘에서 결국 얘기하는 건 만물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고 이 신령이라는 존재는 인간종만 있는 게 아니라 인물신령도 있지만 자연신령도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간 안에도 모두 기운이 깃들어 있고 터에 기운이 있고 이런 책상에도 다 만물의 신령한 기운이 다 녹아서 존재하잖아요. 그 상상력, 그 풀 한 때기를 보고서도 이것이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 이런 것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종과 다른 존재와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감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당이 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회가 도저히 너무 화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기후위기가 너무나 자명하게 인간의 책임이고 인류의 유성생식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자주적 인류 절멸운동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신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따져 묻고 싶고. 어쨌든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된 야생초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막 따져 묻고 싶은 마음에 인도로 가게 됐고 거기서 우연히 춤을 추다가 접신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무당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지낼 때 콩을 씻어서 물에 불려서 향을 피우고 하루 동안 불린 콩을 요리해서 먹고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콩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나한테 오늘 쌓였던 억울함, 마음에 남았던 씻겨주고 싶은 존재들을 상상하면서 콩을 씻어서 물에 불리고. 그러면 다음 날 콩이 잘 불어 있잖아요. 그거 맛있게 살아서 먹고. 이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가사·돌봄 노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행위가 결국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기도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행위하는 이 잠깐의 시간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정말 이 안에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명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체는 여기까지 이고요.

아까 김해자 시인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5분 동안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땅도 느껴보고 연결감을 다시 느껴보는 5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싱잉볼을 챙겨왔습니다. 제가 싱잉볼을 올리면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아주시면 됩니

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싱잉볼 소리와 함께 눈을 감아주세요. 숨은 내가 편안한 속도로 쉬어주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발끝에 신경을 집중해 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릴 때 발끝에서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를 상상해 주세요. 그 뿌리가 지구 전체로 확장되어서 땅에 튼튼히 뿌리내린 몸을 느껴주세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내 몸이 긴장 없이 편안한 상태인지 바라보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편안한 상태가 되게 해 주세요. 땅에 뿌리내린 발가락 위로 허리가 나무 기둥처럼 곧게 펴집니다. 손가락은 나뭇가지가 되고 나의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볼 때는 우리는 스스로가 분리된 존재라고 인지하기 쉽습니다. 눈을 감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나를 지탱하는 의자와 더 밑에 있는 땅과 흙, 내 머리 위의 공기와 건물, 옥상과 하늘, 나를 둘러싼 벽과 그 밖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이 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호흡해 주세요. 숨을 마시면서 내 안으로 우주가 한 점이 되어 모이고 내쉬면서 나는 우주로 확장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나무입니다. 나무는 땅속으로도 하늘길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호흡하고 있는 다른 나무들의 에너지도 느껴주세요. 숨을 크게 마시면서 세상의 안개를 마시고 정화된 숨을 세상 밖으로 부드럽게 내보내주세요. 지구에 단단하게 뿌리박힌 나의 발에 집중하면서 호흡해 줍니다. 내 주변의 모든 나무들과 숲이 되어 숨쉬는 나무인 당신의 숨결을 느껴주세요. 기후활동가 조안나 메이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모든 저항과 돌봄은 죽어가는 존재를 돌보는 호스피스 역할일 수도, 새로운 생명을 받아안은 산파의 역할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호스피스와 산파 모두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마음은 눈을 감은 지금처럼 나라는 개체를 넘어 공기와 바람, 나무와 풀과 별의 이야기를 듣는 상상력에서 시작되며 이 상상력으로 땅 깊숙이 뿌리내리는 연결의 순간입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생명의 나무인 나 스스로와 주변을 느끼며 천천히 준비가 되면 눈을 떠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인문도시주간을 함께한 사람들

오색프로젝트

지준성, 권민지, 서종남, 신승녀, 이하윤, 이영관, 이명신, 최혜란, 윤준화, 박해경, 신은미, 김세연, 이현주, 최란희, 최영애, 최혜란, 장동현, 김순애, 김채연, 김향미, 오정하, 유현숙, 이정원, 이혜정, 조훈희

기후포럼

안혜영, 고영직, 김해자, 홍승희, 한진희, 이다해

도시포럼

노명우, 정석, 이은주, 강원재, 안태호, 이동원

책놀이터

최정숙, 정은주, 정경숙, 문후남, 오경민, 송승희, 박진아, 임미영, 이은민, 오미리, 윤은희, 윤영미

9일간의 책여행

박서영, 김종철, 이소영, 한미화, 이동현, 이유진, 정대원

시민+광장

김성연, 최보라, 박영철, 이득현, 안은정, 조정현, 김정환, 김경식, 박은주, 이경엽, 닷카이 원, 박민자, 고은채, 곽민주, 신선원, 한동근, 서지연, 변남순, 조영미, 김미화, 우경자, 김대원, 전영수, 박영철, 이상명, 윤세홍, 임천빈, 김희경, 이정수, 전경숙, 김봉수, 박미정, 구명옥, 이은주, 김미영, 박소연, 김미화, 김찬호, 오천석, 최진원, 안은정, 김빛나

안녕, 행궁동

노영란, 김광원, 김정환, 김경미, 김홍주, 김상희, 이대순, 윤민순, 선지영, 정유리, 진경아, 이미화, 신진환, 오경신, 김영숙, 김태자, 이은순, 임연실, 오순자, 임안순, 고정생, 조계원, 강수경, 박숙자, 박영숙, 노금성, 김정분, 박순자, 최영희, 김원숙, 박중자, 우근자, 강옥선, 조병삼, 공인식, 이오연, 신승녀, 박은영, 송은지, 신동예

영화로운 시네마

신연정, 김정희, 박순옥, 안수희, 노윤영, 권미숙, 유승연

With 다문화

킨메이타, 김효진, 툐론바에바야스쿨, NGUYEN DINH THINH, MYINT MYINT AYE, 이은아, 푸누안쎄앵두안, 이 미숙, HEELLE L.C, YINDONGMEI, THAN Z.H, MAUNG GOVANI, 매구미, 김엘리나, 조혁빈, THAN ZAW LIN, YIN NWE SOE, 허림동, 박진주

문화도詩의 밤

박설희, 김인, 정수자, 고병택, 박천경

청춘예찬

구하나, 박지성, 김서영, 김적운, 김지인, 박서영, 유채진, 지혜림

인문도시주간 아카이브

이현희, 성왕현



EVERYTHING SINGS
모든 것은 노래한다

문화도시수원 2022 인문도시주간 결과자료집

10. 15(토) ~ 10. 23(일)
북합문화공간 111CM
행궁동
수원 시내 곳곳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이선옥

[시민문화팀]

팀장 박경홍

인문도시주간 담당 고병선, 박진희, 이루리

팀원 이슬기, 조혜미

[정책기획팀]

팀장 박경홍

팀원 하진주, 박혜진, 황지아, 김예진, 김영준

[지역문화팀]

팀장 이진희

팀원 김다롱, 박하늘, 김영용, 전예영, 방슬기

발행일 2022. 12.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디자인타임

수원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T. 031-290-3600
H. <https://www.swculture.or.kr>

본 자료집은 <2022 인문도시주간 결과자료집>에 관한 기록과 보전을 위해 수원문화재단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결과자료집에 실린 글과 도판은 수원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